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배상률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7-49-03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배상률 · 이경상 · 이창호 · 고은혜 · 이재희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7-49-03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인쇄일 2017년 12월 26일
발행일 2017년 12월 30일
발행인 한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414-1114
팩 스 044)414-1144
인 쇄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 02-2269-9917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비매품
ISBN 978-89-322-5083-0 94320
978-89-322-5080-9 (세트)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017년도 협동연구사업 중국종합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7-49-03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배상률	이경상 이창호 고은혜 이재희

Ⅰ 국문요약 Ⅰ

국내 유학생 집단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역량수준 제고 및 취업경쟁력 강화 등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적성장뿐만 아니라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사회·문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소기의 진로목표를 달성하여 한국에 우호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 실태 및 영향요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피고, 중국인 유학생의 양적확대에 주력해온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과 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소프트파워 제고와 우리사회의 인적자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인 학부 및 대학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질적 FGI를 실시한 결과,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어 적응의 어려움, 발표수업, 영어강의 등 강의방식 적응의 문제, 학점취득의 어려움, 학교공부 도우미 제도의 부재, 장학금 취득의 어려움, 기숙사 방 배정의 문제, 한국음식에 대한 부적응 문제, 병원 보험비 처리과정에서의 어려움, 아르바이트과정에서의 일자리 구하기와 차별문제, 범죄피해에의 두려움과 법적 보호의 문제, 한국인 친구 사귀기의 어려움, 조교선생님, 교수/강사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한국사회 일반인들의 차별적 인식, 진로지원의 부족, 비자연장과정에서의 어려움, 유학생할 안내의 내실화 부족 등의 여러 문제를 한국 사회·문화 적응의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중국인 유학생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취업이나 창업 관련 정보 제약과 지원의 부족'을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들 중 최우선순위로 꼽았다. 상위 10위까지의 항목들 중 취업 및 창업 정보의 제약(1위), 진학 관련 정보의 제약(6위), 한국 일상생활 관련 정보의 제약

(10위) 등 언어와 문화가 달라 발생하는 정보제약이 이들의 한국생활을 어렵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동료나 한국인 선후배와의 관계(9위)도 유학생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학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나의 한국어 능력 부족'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학생생활과 고등과정의 학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가진 유학생의 선별이나 한국어 능력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교수의 강의와 학생 지도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교내 도서관 사서 서비스와 취·창업 지원 서비스, 한국어 지원 서비스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통해 논문이나 보고서 작성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필요 있으며, 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창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과 중국 정부 그리고 학교의 연계노력이 요망된다.

설문 응답자의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목표의식이나 꿈의 부재를 가장 큰 개인적인 고민으로 꼽고 있어 이들에 대한 상담노력과 사회자본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학부생들은 대학원 과정 학생들에 비해 우울과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나 주변 상황에 따라 타의로 한국에 온 학부생들과 유학생생활 중 학업의지가 꺾인 학부생들의 비율이 늘어난다면 이는 개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재정의 낭비와 학업분위기 저해를 가져오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몸담은 사회에 비용과 부담을 지우는 꼴이 될 것이다.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한국사회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 어려움을 느낄수록, 한국인 동료/선후배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수록, 한국에서의 외로움에 의한 어려움을 느낄수록, 한국어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도 한국사회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의 어려움, 한국인 동료/선후배와의 관계의 어려움, 외로움에 의한 어려움, 한국

어의 어려움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됨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대학생 활적응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대학의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수의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같은 학교 중국인 학생과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가 많을수록, 한국어 강의를 이해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취업/창업 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 중 취업/창업에 대해 만족감을 높게 느끼는 학생들일수록 화장품장사, 옷장사 등 현재의 취업/창업에 관심을 집중하여 전반적인 학교생활적응에 소홀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여러 요인들 중 대학의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도, 교수의 강의에 대한 만족도, 같은 학교 중국인 학생과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 한국어 강의를 이해하는 정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됨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화장품장사, 옷장사 등 현재의 취/창업에 몰두해서 학교적응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대학직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중국인유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다음의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① 학교 내 자국 요리를 조리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적응단계별 맞춤형지원, 한국학생과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② 중국인유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중국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유학생들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 ③ 중국인에 대해 갖고 있는 한국인들의 부정적 이미지나 편견을 불식시킬 필요성; ④ 한국어능력 등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중국인 유학생의 유치; ⑤ 중국유학생들의 언어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지원 및 일자리 제공 등.

상술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대학의 역할, 지역사회의 역할, 정부의 역할별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대학의 역할로는 ① 교내 아르바이트의 적극

알선, ② 중국음식 요리 공간 확보 및 중국음식 코너 마련, ③ 한국인과의 사회적, 문화적 교류 강화, ④ 교내 중국인 유학생 네트워크 강화, ⑤ 유학생 상담 강화, ⑥ 적응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⑦ 취·창업 지원 강화를 제시하였다. 지역사회의 역할로는 ① 중국인 유학생 커뮤니티와 지역사회의 협력 강화, ② 중국인 유학생 대상 페스티벌 확대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2023년까지 유학생 2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한 정부가 유학생 유치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인적자원 개발 및 확보, 소프트파워 제고 등의 질적인 면에서도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① 중국인 유학생의 체계적인 유치 및 관리체계 구축, ② 외국인 유학생 전담기관 설립, ③ 다문화이해교육 강화, ④ 유학생 권익 및 법적 보호 강화, ⑤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및 기업문화 적응 위한 연수 제공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1장 서론	2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6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9
1)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사회문화적응실태 및 관련 요인	29
2) 중국인유학생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	29
제2장 이론적 논의	31
1. 중국인 유학생의 현황	32
2.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5
1) 외국어 능력관련 요인	35
2) 학교공부관련 요인	36
3) 경제적 요인	38
4) 생활관련 요인	39
5) 사회적 관계 요인	41
6) 미디어관련 요인	42
7) 진로지원관련 요인	45
8) 유학생생활 안내의 내실화	45
제3장 연구 방법	47
1. 문헌연구	48
2. 중국인 유학생 및 한국인 학생대상 FGI	48
3. 설문조사	51
1) 중국인 유학생 대상 설문 개발 절차	51
2) 중국인 유학생 대상 조사 내용의 구성 및 문항	53

4. 국제교류담당직원 및 전문가 대상 인터뷰 57

Ⅳ 제4장 연구 결과 59

1. 중국인 유학생 및 한국인 학생 FGI 분석결과 60

- 1) 한국어 적응의 어려움 60
- 2) 강의방식 적응의 문제 61
- 3) 학점 취득의 어려움 63
- 4) 학교공부 도우미 제도의 부재 64
- 5) 장학금 취득의 어려움 66
- 6) 기숙사 방 배정의 문제 68
- 7) 한국 음식에 대한 부적응 69
- 8) 병원 보험비 처리과정에서의 어려움 71
- 9) 휴대폰 할부구입의 문제 73
- 10) 아르바이트 과정에서의 문제 73
- 11) 범죄피해에의 두려움 76
- 12) 법적 보호의 문제 76
- 13) 한국인 친구 사귀기의 어려움 78
- 14) 사회적 관계의 특성 80
- 15) 조교 선생님과의 관계의 어려움 85
- 16) 교수님과의 관계의 어려움 86
- 17) 한국사회 일반인들의 차별적인 인식 86
- 18) 진로지원의 부족 88
- 19) 비자연장 과정에서의 어려움 91
- 20) 유학생생활 안내 및 내실화 부족의 문제 93
- 21) 소결 94

2. 설문조사 분석결과	97
1) 응답자 특성	97
2) 교육 및 유학생생활	103
3) 일/노동	142
4) 진로	144
5) 사회적 관계 및 적응	153
6) 매체 이용	170
7) 개인적 특성	184
8) 지원 정책 및 서비스	200
9)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의 영향요인	214
10) 소결	222
3. 국제교류담당직원 및 전문가 인터뷰 분석결과	226
1) 중국인 유학생 현황	226
2)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가장 큰 문제 ..	226
3)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생활지원 프로그램	228
4)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취업지원	233
5)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	234
6)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원방안	236
7) 소결	244
Ⅰ 제5장 요약 및 제언	247
1. 연구의 요약	248
1) 학생 대상 FGI	248
2) 중국인 유학생 대상 설문조사	249
3) 대학 직원 및 전문가 대상 인터뷰	251

2. 정책적 제언	252
1) 대학의 역할	252
2) 지역사회의 역할	257
3) 정부의 역할	260
Ⅰ 참고문헌	264
Ⅰ 부 록	269

표 차례

표 3-1.	중국인 학부 유학생 FGI 참여자의 기본적인 특성	50
표 3-2.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 FGI 참여자의 기본적인 특성	50
표 3-3.	한국인 학부생 FGI 참여자의 기본적인 특성	50
표 3-4.	한국인 대학원생 FGI 참여자의 기본적인 특성	50
표 3-5.	설문조사 영역 구성 및 영역별 주요 조사 항목	54
표 3-6.	인터뷰참여자의 특성	57
표 4-1.	성별	98
표 4-2.	연령	98
표 4-3.	중국의 출신지역	99
표 4-4.	체류자격	101
표 4-5.	소속 학교 지역	101
표 4-6.	한국에 처음 입국 년도	102
표 4-7.	한국에 거주한 기간	103
표 4-8.	처음 한국에 입학 및 편입한 과정	103
표 4-9.	현재 재학 중인 학년	104
표 4-10.	현재 전공	105
표 4-11.	유학생할 중 어려움 - 학교 공부	105
표 4-12.	유학생할 중 어려움 - 한국인 동료/ 선후배와의 관계	106
표 4-13.	유학생할 중 어려움 - 중국인 동료/ 선후배와의 관계	107
표 4-14.	유학생할 중 어려움 - 조교와의 관계	107
표 4-15.	유학생할 중 어려움 - 교수/강사와의 관계	108
표 4-16.	유학생할 중 어려움 - 교내 유학생 담당직원과의 관계	109
표 4-17.	유학생할 중 어려움 - 학비 조달 문제	109
표 4-18.	유학생할 중 어려움 - 생활비 또는 주거비	110
표 4-19.	유학생할 중 어려움 - 한국어	111
표 4-20.	유학생할 중 어려움 - 영어	111

표 4-21.	유학생생활 중 어려움 - 음식	112
표 4-22.	유학생생활 중 어려움 - 외로움	112
표 4-23.	유학생생활 중 어려움 - 가족, 연인, 친구에 대한 그리움	113
표 4-24.	유학생생활 중 어려움 - 신체적 건강	114
표 4-25.	유학생생활 중 어려움 - 한국사회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	114
표 4-26.	유학생생활 중 어려움 - 취업/창업 관련 정보의 제약	115
표 4-27.	유학생생활 중 어려움 - 진학 관련 정보의 제약	116
표 4-28.	유학생생활 중 어려움 - 한국 일상생활 관련 정보의 제약	116
표 4-29.	유학생생활 중 어려움 - 학업 관련 정보의 제약	117
표 4-30.	유학생생활 중 어려움 - 아르바이트 구하기	118
표 4-31.	유학생생활 중 어려움 - 비자발급 및 갱신	118
표 4-32.	유학생생활 중 어려움 - 취업/창업 지원의 부족	119
표 4-33.	한국의 유학생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 (전체)	119
표 4-34.	한국에서 유학생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 (순위)	120
표 4-35.	한국 유학을 결심한 이유	121
표 4-36.	TOPIK 급수 및 어학당 한국어 레벨	123
표 4-37.	한국어 강의 수업 이해정도	123
표 4-38.	영어 강의 수업 이해 정도	124
표 4-39.	한국에서 학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	125
표 4-40.	학교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같은 학교의 교수 / 강사	126
표 4-41.	학교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같은 학교의 한국 학생	127
표 4-42.	학교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같은 학교의 중국인 학생	127
표 4-43.	학교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같은 학교의 타국 유학생	128
표 4-44.	학교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행정 및 국제 업무 담당직원	128
표 4-45.	학교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전체)	129
표 4-46.	학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대학의 전반적인 커리큘럼	129

표 4-47.	학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유학생에 대한 학사행정	130
표 4-48.	학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유학생을 위한 비자 및 국제 업무 지원	130
표 4-49.	학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외국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고충처리	131
표 4-50.	학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교수의 강의	131
표 4-51.	학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교수의 학생 지도	132
표 4-52.	학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학교의 기숙사 운영	132
표 4-53.	학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학교의 취업 / 창업 지원 서비스 ..	133
표 4-54.	학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교내 한국어지원 서비스	133
표 4-55.	학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교내 영어지원 서비스	134
표 4-56.	학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도서관(중국 DB 구축 등) 및 사서 서비스	134
표 4-57.	학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전체)	135
표 4-58.	학업적 적응 -나는 공부를 밀리지 않고 잘해나가고 있다	135
표 4-59.	학업적 적응 -나는 노력에 비해서는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136
표 4-60.	학업적 적응 -나는 대학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의 질이나 양에 만족한다	136
표 4-61.	학업적 적응 -나는 규칙적으로 강의에 출석한다	137
표 4-62.	대학만족도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대학에 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집에 있는 편이 낫겠다	137
표 4-63.	대학만족도 -최근에 나는 대학을 옮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	138
표 4-64.	대학만족도 -나는 휴학을 했다가 나중에 공부를 마칠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	138
표 4-65.	대학만족도 -나는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139

표 4-66.	대학생활 적응: 학업적 적응 및 대학만족도	140
표 4-67.	최근 1년 간 정부, 기업, 학교 등으로부터의 장학금 수혜여부 ..	141
표 4-68.	최근 1년 간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여부	141
표 4-69.	최근 1년 간 직장 및 아르바이트 경험	142
표 4-70.	최근의 직장 또는 아르바이트에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	143
표 4-71.	최근 1년 동안 직장생활 또는 아르바이트를 한 주된 이유	143
표 4-72.	졸업 이후 한국 체류 의향	145
표 4-73.	한국에 더 머물지 않으려는 주요 이유	145
표 4-74.	진로선택 시, 부모(보호자)/가족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정도	147
표 4-75.	진로선택 시, 한국인친구/선후배로부터 정보를 얻는 정도	147
표 4-76.	진로선택 시, 한국인 교수/강사로부터 정보를 얻는 정도	148
표 4-77.	진로선택 시, 한국거주 중국인 친구/선후배/지인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정도	149
표 4-78.	진로선택 시, 중국거주 중국인 친구/선후배/지인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정도	149
표 4-79.	진로선택 시, 재학 중인 학교 행정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정도	150
표 4-80.	진로선택 시, 한국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정보를 얻는 정도	151
표 4-81.	진로선택 시, 중국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정보를 얻는 정도	151
표 4-82.	진로선택 시, 한국 SNS로부터 정보를 얻는 정도	152
표 4-83.	진로선택 시, 중국 SNS로부터 정보를 얻는 정도	153
표 4-84.	다문화 친구 수용성-타 국적의 유학생과 친한 단짝이 될 의향이 있다	153
표 4-85.	다문화 친구 수용성-한국인 학생과 친한 단짝이 될 의향이 있다	154

표 4-86.	다문화 친구 수용성-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국가(한국 제외)의 사람을 애인으로 사귄 의향이 있다	155
표 4-87.	다문화 친구 수용성-한국 사람을 기꺼이 애인으로 사귄 의향이 있다	155
표 4-88.	다문화 친구 수용성	156
표 4-89.	사적 고민이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지인-한국인	157
표 4-90.	사적 고민이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지인-중국인 (한국 거주)	157
표 4-91.	사적 고민이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지인-중국인 (한국 이외 지역 거주)	158
표 4-92.	두려움-내가 가진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	159
표 4-93.	두려움-나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으로 인해 자주 혼자 있다	159
표 4-94.	두려움-한국은 안전하지 못한 것 같다	160
표 4-95.	두려움-나는 한국 사람들이 나를 외국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와 사귀지 않는다고 느낀다	161
표 4-96.	지각된 적대감-한국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나를 미워하고 있다	161
표 4-97.	지각된 적대감-한국 사람들은 나의 문화적 가치를 바르게 평가하지 않는다	162
표 4-98.	지각된 적대감-한국 사람들은 행동으로 나를 미워함을 나타낸다	163
표 4-99.	지각된 적대감-한국 사람들은 언어(말)로 나를 미워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163
표 4-100.	지각된 차별감-나는 한국 사회에서 다르게 취급된다	164

표 4-101. 지각된 차별감-한국 사람은 나에게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	165
표 4-102. 지각된 차별감-한국에는 많은 기회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165
표 4-103. 지각된 차별감-나는 한국에서 불공평한 취급을 받고 있는 듯 하다	166
표 4-104. 향수병-집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괴롭힌다	167
표 4-105. 향수병-나는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슬프다	167
표 4-106. 향수병-나는 내 고향과 중국에 있는 지인들을 그리워한다	168
표 4-107.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	169
표 4-108.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온라인게임 (PC, 스마트폰 이용 모두 포함) 이용/소비 시간	170
표 4-109.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한국어 TV프로그램(뉴스 제외) 소비 시간	171
표 4-110.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중국 또는 비한국어 TV 프로그램 (뉴스 제외) 소비 시간	171
표 4-111.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	172
표 4-112.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SNS 이용시간 (한국어 이용)	173
표 4-113.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SNS 이용시간 (중국어 이용)	173
표 4-114.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한국어 서적/신문/인쇄물 소비 시간	174
표 4-115.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중국 또는 비한국어 서적/신문/인쇄물 소비 시간	175
표 4-116.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한국어 뉴스(방송, 신문, 포털 등) 소비 시간	175
표 4-117.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중국어 뉴스(방송, 신문, 포털 등) 소비 시간	176

표 4-118. 결속성-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 중,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신뢰하는 사람이 많다	177
표 4-119. 결속성-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 중,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177
표 4-120. 결속성-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 중,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178
표 4-121. 결속성-소셜미디어를 통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179
표 4-122. 결속성-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이 나의 취업에 좋은 추천인이 될 것이다	179
표 4-123. 연결성-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은 새로운 사람과 대화할 수 있게 한다	180
표 4-124. 연결성-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	181
표 4-125. 연결성-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든다	181
표 4-126. 연결성-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반적인 공동체 활동에 기여하는데 기꺼이 시간을 소비한다	182
표 4-127. 연결성-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은 내가 더 큰 공동체의 일부임을 느끼게 만든다.	183
표 4-128. 온라인 공동체의 결속성 및 연결성	183
표 4-129. 한국 유학 전 부모나 가족과의 대화에서 주로 사용한 언어	184
표 4-130. 삶의 가장 큰 개인적 고민	185
표 4-131. 삶의 만족도-나는 사는 게 즐겁다	186
표 4-132. 삶의 만족도-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187
표 4-133. 삶의 만족도-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187

표 4-134. 우울-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우울해한다	188
표 4-135. 우울-나는 걱정이 많다	189
표 4-136. 우울-모든 일이 힘들다	189
표 4-137. 우울-나는 외롭다	190
표 4-138. 우울-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191
표 4-139. 우울-나는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191
표 4-140. 사회적 위축-나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192
표 4-141. 사회적 위축-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193
표 4-142. 사회적 위축-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	193
표 4-143. 사회적 위축-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194
표 4-144. 삶의 만족도, 우울 및 사회적 위축	195
표 4-145. 최근 1년간 한국에서의 활동-종교 활동(교회, 사찰, 선교 등) ..	196
표 4-146. 최근 1년간 한국에서의 활동-취미 동호회/동아리 활동	197
표 4-147. 최근 1년간 한국에서의 활동-중국인 유학생 단체/연합회 활동 ..	198
표 4-148. 최근 1년간 한국에서의 활동-지역사회 활동	199
표 4-149. 최근 1년간 한국에서의 활동-기부/봉사 활동	200
표 4-150.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유학생에 대한 인턴십 기회 확대	201
표 4-151.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취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201
표 4-152.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대학-기업-지역사회가 연계한 취업관련 행사 확대	202
표 4-153.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등록금 및 교육비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202
표 4-154.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양질의 영어 강의 개설/확대 ..	203

표 4-155.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한국어 지원 서비스 확대 (리포트/ 논문 수정 등)	203
표 4-156.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영어 지원 서비스 확대 (리포트/ 논문 수정 등)	204
표 4-157.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양질의 중국어 강의 개설/확대	205
표 4-158.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멘토링제 지원/확대	205
표 4-159.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재학중인 학교의 국내외적인 평판도 제고 노력	206
표 4-160.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복지 서비스 이용(의료보험, 심리상담 등)	206
표 4-161.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창업 관련 상담 및 지원	207
표 4-162.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법적 보호(주거 문제, 아르바이트 문제, 분쟁 등과 관련된 법적 대응 및 지원)	208
표 4-163.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비자 발급/ 갱신 제도의 개선	208
표 4-164.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유학생할 안내 확대 및 내실화	209
표 4-165.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209
표 4-166.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일반인들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210
표 4-167.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식생활(중국음식 등) 제공 확대	210
표 4-168.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아르바이트 제도의 개선 (허가, 절차 간소화 등)	211
표 4-169.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주거 지원 확대 및 개선	212

표 4-170.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학점 부여 시 한국인 학생과 중국인 유학생의 분리 평가	212
표 4-171.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 (순위)	213
표 4-172.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17
표 4-173.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21
표 5-1. 적응단계별 유학생지원 프로그램	256

그림 차례

그림 1-1. 연도별 유학생 수(명)	33
그림 1-2. 주요 국가별 유학생 수(명)	34
그림 3-1. 중국인 유학생 대상 설문 개발 절차	51
그림 4-1. 중국의 6대 지역	100
그림 4-2. 한국 유학을 결심한 이유	122
그림 4-3. 한국에서 학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	125
그림 4-4. 최근 1년 동안 직장생활 또는 아르바이트를 한 주된 이유	144
그림 4-5. 한국에 더 머물지 않으려는 주요 이유(%)	146
그림 4-6. 삶의 가장 큰 개인적인 고민(%)	185
그림 5-1. 유학생커뮤니티 연계 활동	259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6년 기준 중국인 유학생은 60,136명으로 전체 유학생인 104,262명의 57.7%를 차지하여, 여전히 우리나라 유학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교육부, 2016).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유학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의 성장세가 주춤거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 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중국인 유학생의 수는 2003년 8,904명에서 2010년 67,28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감소하다가, 2014년, 2015년 증가하였고, 다시 2016년 약간 감소하여 60,136명이 유학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간 중국인 유학생 수가 가장 많았던 2010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여, 최근 수년간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약간 주춤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국가통계포털(kosis.kr), 민귀식, 2017에서 재인용).

중국인 유학생 중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 비학위과정 유학생들을 제외하고 학부(전문대포함)와 대학원에서 학위를 이수하고 있는 학위과정 유학생들의 수만을 별도로 살펴봐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약간씩 감소하다가 2015년부터 다시 약간 증가하여 2016년 40,901명이 유학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국가통계포털, 2017).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한국어 사용범위가 협소하여 한국 유학시장이 세계 유학시장에서 객관적으로 열세인 상태에서, 그간의 유학생 관리부실에 따른 유학생의 낮은 역량수준과 이에 따른 유학생들의 중국복귀 후 취업경쟁력 약화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되어, 2020년까지 유학생을 20만 명까지 확대하여 세계 유학시장에서 우리나라 유학경쟁력을 강화

한다는 정부의 정책(Study Korea 2020) 달성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민귀식, 2017).

또한 이러한 상황은 학령기 인구 감소추세에 직면하여 국내 입학자원의 유치만으로는 경영에 곤란을 겪어,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학사관리가 부실해지고 대학사회 구성원 간 마찰과 불만이 발생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서영인 외, 2012; 정유선, 2014)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유학생들의 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국내 각 대학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제가 강화되고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인접국가인 중국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적 상황에서(이동윤, 2012; 조윤영, 2016), 향후 한·중 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우호적인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아울러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현상에 직면하여, 출산 및 육아 장려와 함께 이민촉진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데(Dent, 2015), 적극적인 유학생 지원정책을 통해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미국사회의 일원으로 취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미국처럼, 우리도 적극적인 유학생 지원정책을 통해 인구절벽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학 교육현장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근본적으로 유학생의 역량수준을 높이고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근본적으로 한국 유학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이 유학생으로서 한국의 사회문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성공적으로 소기의 진로를 달성하여 장차

한국에 우호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학부와 대학원에 유학 와 있는 중국인 학위과정 유학생들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 실태 및 원인을 질적, 양적조사를 통해 경험적으로 밝혀, 중국인 학위과정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유학생 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의 실태 및 원인에 대해 다수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 중 실태를 살펴본 몇몇 연구들은 한국 사회문화 적응의 실태를 비교적 넓게 살펴보고는 있으나 원인을 검증하는 데는 소홀하였고, 원인을 살펴본 다수의 연구들은 몇몇 영향요인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형태로 수행되어 영향요인들의 인과관계를 포괄적으로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이들 연구의 대부분들이 일부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의표집의 형태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학부와 대학원에 유학 와 있는 중국인 학위과정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문화 적응의 실태 및 원인에 대해 포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실적인 여건상 확률표집은 불가능하지만 할당표집 형태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해 연구의 타당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등으로 유학 와 있는 중국인 비학위과정 유학생들의 실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연구결과는 중국인 유학생이 성공적으로 한국의 사회문화에 적응하고 진로와 취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줘 중국인 유학생 개인은 물론 이들이 속한 미래 한국사회와 중국사회의 우호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사회문화적응실태 및 관련 요인

중국인유학생들의 한국사회문화적응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인 학부유학생 6명,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 6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한국인학부생 2명과 대학원생 2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해 한국학생들의 생각도 추가로 조사하였다.

더불어 중국인 유학생 694명(남학생 158명, 여학생 53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교생활만족도, 진로의식, 사회적 관계 및 적응, 매체이용,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의 필요성, 개인적 특성 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2) 중국인유학생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

중국인유학생들의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안마련을 위해 대학에서 국제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5명 및 전문가 5명 등 총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 유학생지원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 지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중, 장기적으로 유학생지원을 위해 어떤 제도적 노력들이 이뤄져야 하는 지 파악하였다.

제2장 이론적 논의

1. 중국인 유학생의 현황
2.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의 사회문화에 잘 적응하는 것은 유학생 본인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고, 한국과 중국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의 사회문화에 잘 적응해야 학위 취득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유학국가인 한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으며, 향후 미래 한국과 중국사회의 상호 우호적인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구자역 외, 2010; 문흥호 외, 2010).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관련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학술논문 등 관련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추출하여 이러한 영향요인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요인들이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본 후, 기존의 관련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학술논문 등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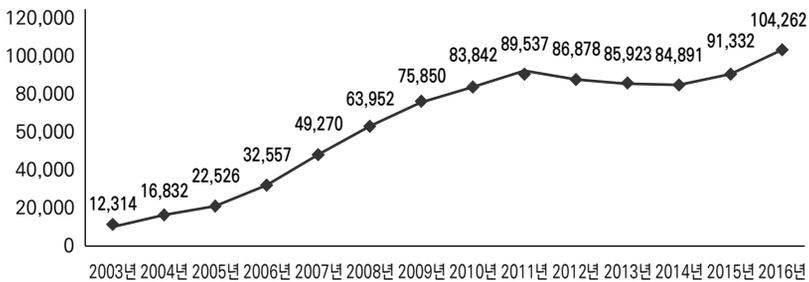
1. 중국인 유학생의 현황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2003년 12,314명, 2005년 22,526명, 2007년 49,270명, 2009년 75,850명, 2011년 89,53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 86,878명, 2013년 85,923명, 2014년 84,891명으로 3년간 약간 감소하다가 다시 2015년 91,332명, 2016년 104,262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교육부, 2016).

2016년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인 유학생이 전체 유학생의 57.7%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 뒤를 이어 베트남인 유학생이 7.2%, 몽골인 유학생이 4.3%, 일본인 유학생이 3.5%, 미국인 유학생이 2.7%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교육부, 2016).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 중 중국인 유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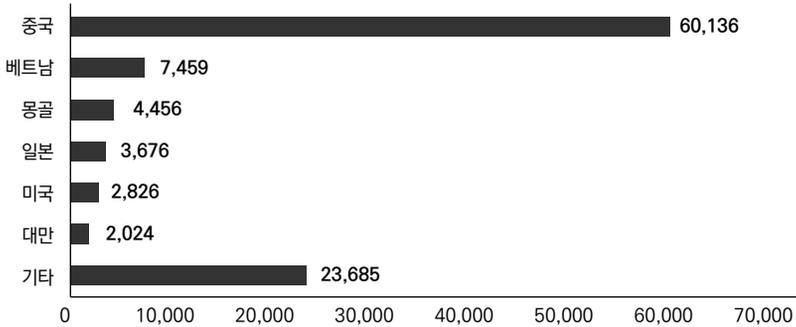
중국인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유학생 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 8,904명, 2005년 18,372명, 2007년 31,604명, 2009년 63,66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0년 67,288명을 정점으로 2011년 66,020명, 2012년 60,155명, 2013년 55,355명으로 3년간 약간 감소하다가, 다시 2014년 56,429명, 2015년 60,668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60,136명으로 다시 주춤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국가통계포털(kosis.kr), 민귀식, 2017에서 재인용).

그림 1-1 연도별 유학생 수(명)



자료: 교육부 홈페이지, 2016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정보공개,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boardSeq=64729&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1&s=moe&m=040103&opType=N>에서 2017년 7월 4일 인출

그림 1-2 주요 국가별 유학생 수(명)



자료: 교육부 홈페이지, 2016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정보공개,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boardSeq=64729&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1&s=moe&m=040103&opType=N>에서 2017년 7월 4일 인출

그런데 최근의 외국인 유학생 증가추세는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등 비 학위과정 유학생들의 증가에 힘입은 바 크며, 최근 학위과정 유학생은 2011년보다 약간 적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민귀식, 2017). 최근 비학위과정 유학생들의 수는 2011년 25,884명, 2012년 26,289명, 2013년 29,208명, 2014년 31,255명, 2015년 35,593명, 2016년 41,158명으로 증가한 반면, 학위과정 유학생들의 수는 2011년 63,653명, 2012년 60,589명, 2013년 56,715명, 2014년 53,636명, 2015년 55,739명, 2016년 63,104명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는 있으나 2011년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민귀식, 2017에서 재인용).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위과정 유학생들의 수도 2012년 40,710명, 2013년 35,787명, 2014년 33,484명, 2015년 35,791명, 2016년 40,901명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는 있으나 2012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국가통계포털, 2017).

2.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적응은 말 그대로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유학 와서 학업과정을 잘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기까지 한국의 사회문화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지를 지칭하는 말이다.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적응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외국어 능력관련 요인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요인은 중국인 유학생의 외국어 능력관련 요인이다.

외국어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은 한국에 유학 온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인 친구, 조교 선생님, 교수님, 행정직원, 일반시민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이다(반육홍, 2011; 반육홍, 이선영, 2012; 조혁수, 전경태, 2009). 또한 한국의 대학에서 한국어 강의를 수강해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이다(장선영, 윤태훈, 2015; 허혜영, 2014). 현재 중국인 유학생들이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국어학당,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의 기본적인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한층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입학 후 지속적으로 한국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대학 내에 여러 한국어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이현진, 2011).

한국어 능력과 함께 중요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요인은 영어 능력이

다. 최근 한국의 대학에서는 영어 강의 비율을 높이는 추세여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어 강의 수강을 위한 영어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내에 영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영어 지원프로그램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이현진, 2011).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의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 한국어 강의 이해정도, 대학 내 한국어 지원프로그램 여부, 기본적인 영어 능력, 영어 강의 이해정도, 대학 내 영어 지원프로그램 여부 등도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허재준 외, 2011).

2) 학교공부관련 요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인은 중국인 유학생의 학교공부관련 요인이다. 한국어와 영어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 하더라도 자신이 전공하는 분야의 학교공부에 흥미를 갖고 열심히 몰두하지 않으면 한국의 대학생활에 적응하기 힘들고 나아가 한국의 사회문화에 적응하기 어렵다.

본인 전공분야에 대한 선행기초학습 부족, 예습복습 부족 등 중국인 유학생 본인의 개인적인 이유 이외에 학교공부관련 요인으로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인은 대학의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도이다(허재준 외, 2011). 중국인 유학생이 본인 전공분야의 대학 내 커리큘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면 대학생활에 적응하기 힘들 것이다.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도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은 교수 강의에 대한 만족도이다. 커리큘럼에 만족한다 하더라도 교수의 전문성, 수업방식(토론, 팀프로젝트, 발표 등), 영어실력 등 교수의 강의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역시 대학생활에 적응하기 힘들 것이다(하오선, 신나민, 2013; 허재준 외,

2011; 허혜영, 2014). 교수의 학생지도에 대한 만족도도 학교공부관련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하오선, 신나민, 2013). 교수의 강의에 대해서는 만족한다 하더라도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교수의 학생지도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대학생활 적응에 애로를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허재준 외, 2011).

도서관 및 사서 서비스 만족도도 학교공부관련 요인으로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인이다(허재준 외, 2011). 도서관은 중국인 유학생이 학교공부를 위한 학술정보를 취득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며, 사서는 도서관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사람이다. 따라서 대학의 도서관 및 사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중요한 학교공부관련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유학생에 대한 학사행정만족도도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중요한 학교공부관련 요인이다(허재준 외, 2011). 중국인 유학생이 학사행정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면 대학 내의 전반적인 학업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해나가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학점 취득의 어려움도 대학생활 적응을 힘들게 만드는 중요한 학교공부관련 요인이 될 수 있다. 만약 학교에서 한국인 학생과 중국인 유학생의 학점을 분리해서 평가하지 않고 통합해서 평가한다면, 한국어 능력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점을 낮게 받거나 못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한국인 학생과 중국인 유학생의 학점을 분리해서 평가하거나 아니면 중국인 유학생의 학교공부를 도와주는 학교 공부 도우미 제도를 도입해서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이현진, 2011).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 커리큘럼, 교수 강의, 교수 학생지도, 도서관 및 사서 서비스, 학사행정에 대한 만족도, 학점 취득의 어려움, 학교

공부 도우미 제도의 부재 등은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나아가 한국 사회문화 적응에 중요한 학교공부관련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3) 경제적 요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인은 중국인 유학생의 경제적 요인이다. 경제적 요인은 중국인 유학생의 유학생생활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요인이다. 학비, 주거비, 생활비 등 경제적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허재준 외, 2011).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사회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으로 우선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장학금 취득이다(이현진, 2011; 허재준 외, 2011). 장학금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비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학교마다 운영하는 장학금 제도가 다를 수 있는데, 만약 한국인 학생과 중국인 유학생의 장학금 제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통합되어 있다면, 한국어 능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학점취득이 쉽지 않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장학금을 취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기숙사 제공도 중요한 경제적 요인이다.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의 기숙사 제공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허재준 외, 2011). 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아예 기숙사 제공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중국인 유학생들의 기숙사를 따로 할당하지 않고 숫자가 많은 한국인 학생과 숫자가 적은 중국인 유학생들 간의 경쟁을 통해 배정해 기숙사 배정을 어렵게 만든다면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은 힘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허혜영, 2014). 또한 기숙사 배정을 했더라도 기숙사 운영방식 때문에 중국인 유학생이

불편을 느껴 기숙사에 오래 머물지 않고 나간다면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이 힘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아르바이트 일자리 구하기도 중요한 경제적 요인이다(허재준 외, 2011). 중국어지도, 통번역, 여행가이드, 식당,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부족한 학비, 주거비, 생활비를 충당해 부모님의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면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사회문화적응은 어려워 질 수 있다(이현진, 2011; 허재준 외, 2011).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의 장학금 취득, 기숙사 제공,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에 중요한 경제적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4) 생활관련 요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인은 중국인 유학생의 생활관련 요인이다.

중국인 유학생의 생활관련 요인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요인은 한국 음식에 대한 적응이다(허재준 외, 2011). 중국인 유학생들은 오랫동안 중국 음식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한국 음식에 대해 적응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하루 삼시 세끼 부딪칠 수밖에 없는 한국 음식에 대한 부적응은 한국 사회문화 적응을 매우 힘들게 할 수 있다. 매번은 아니더라도 모국인 중국 음식을 접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신체적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이내영, 한지영, 2011; 정혜선, 2012a). 개인적으로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건강

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의료관련 제도가 잘 마련되고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이현진, 2011; 허재준 외, 2011).

신체적 건강 못지않게 심리적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백세진, 2011). 중국인 유학생들의 심리적 문제나 고충 등에 대해 학교 혹은 사회기관에서 상담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들을 잘 제공하는 것도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에 필요할 것이다(박은미, 황빙의, 정태연, 2010; 백세진, 2011; 이현진, 2011; 임수진, 한규석, 2009; 정혜선, 2012b; 허재준 외, 2011).

유학생할 동안 범죄피해에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안전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박현수, 이경상, 2012). 중국인 유학생이라는 점 때문에 여러 범죄의 대상이 되어 범죄 피해를 입고 범죄피해에의 두려움을 느낀다면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사회문화에 제대로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법적 보호의 문제도 중요한 요인이다. 일상생활에서 여러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국인 유학생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어설픈게 적당히 보호를 받는다면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은 힘들어질 것이다.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등 달라진 일상생활제도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유학 오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중국과는 다른 여러 제도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달라진 여러 제도에 잘 적응하는 것도 한국 사회문화 적응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비자 발급 및 갱신과정 등 국제 업무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요인이다(허재준 외, 2011). 학교 국제지원센터 및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련 기구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 및 갱신과정 등 국제 업무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만족스럽게 제공하는 것도 한국 사회문화 적응에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음식에 대한 적응,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범죄피해에의 두려움, 법적 보호, 일상생활제도에 대한 적응, 비자발급 및 갱신과정 지원 등도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에 중요한 생활관련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5) 사회적 관계 요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인은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관계 요인이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사회적 관계는 중국에 있는 가족 및 친구들, 한국에 함께 유학 와 있는 중국인 동료선후배들, 한국인 동료선후배들, 한국에 유학 와 있는 제3국 동료선후배들, 조교, 교수, 행정직원, 한국의 일반인들 등 여러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중국에 있는 가족 및 친구들은 그리움의 대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전화, SNS로 상호작용을 해야 할 것이다(서효봉, 서창갑, 2011; 허재준 외, 2011). 한국에 있는 중국인, 한국인, 제3국 동료 선후배들, 일반인들은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타자들이다. 조교, 교수, 행정직원은 학업을 수행해나가는데 중요한 타자들이다(조혁수, 전경태, 2009).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들은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사회적 자본의 정도가 원활해야 한국 사회문화에 적응하기 쉬울 것이다(구예원, 2015; 이홍직, 2011). 윤명숙과 김남희(2013)의 연구결과 중국친구보다는 한국친구에 대한 애착이 중국유학생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한국인 동료선후배들이나 한국인 일반인들로부터 중국인 유학생이

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다면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사회문화에 적응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구자역 외, 2010; 전재은, 장나영, 2012; 진민진, 배성만, 현명호, 2011; 최정, 2016; 허재준 외, 2011; 허혜영, 2014).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여러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한국인 동료선후배 및 일반인들로부터의 차별 등도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 문화 적응에 중요한 사회관계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6) 미디어관련 요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사용하는 매체와 소셜미디어 매개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반육홍, 2011; 반육홍, 이선영, 2012; 서효봉, 서창갑, 2011; 왕매, 나미수, 2015).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 응스트레스가 소셜미디어 활용형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도 있지만(김옥련, 왕설, 2013), 중국인 유학생들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활용의 특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임지혜, 최정화, 2009; WU XIAOWEN, 2012).

유학생들은 TV,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한국사회의 뉴스를 접한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중국의 소식을 알게 되고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연락한다. 특히 최근 SNS의 발전으로 유학생들이 즐겨 이용하는 QQ는 중국친구와 가족을 연결하는 주요한 소통채널이 되고 있다(서효봉, 서창갑, 2011). SNS의 경우 시간적, 공간적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유학생들이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주요 매체가 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은 유학생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한국사회적응과정에서 비롯된 심

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유용한 매체임이 드러났다(왕매, 나미수, 2015). 아울러, 인터넷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유용한 학습도구였고 중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과 쉽게 연락하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추구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왕매, 나미수, 2015). 임지혜와 최정화(2009)는 중국인 유학생 9명(석사과정 7명, 학부과정 1명, 박사후과정 1명)을 심층인터뷰 했는데 이 연구에서도 미디어는 유학생들의 정보습득과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장치로 활용되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SNS 보다 중국의 SNS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옥련, 왕설, 2013). 특히 고향이나 가족을 그리워할 때 중국의 SNS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들이 중국 SNS를 이용하는 동기는 한국적응, 친구교류, 정보공유, 인맥형성, 편리성, 재미 등으로 조사됐다(김옥련, 왕설, 2013). 흥미로운 것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사회 및 문화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중국의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SNS가 한국사회적응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주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TV 드라마를 보는 동기는 재미추구, 시간보내기, 자기확인 등 세 가지로 나타났다(김선남, 2008). 드라마 시청을 많이 하고 한국 드라마를 재미있어서 보는 유학생들일수록 드라마에 대한 만족도는 더 높아졌고 향후 한국드라마를 시청할 가능성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미디어이용은 한국어능력, 커뮤니케이션능력과 더불어 한국문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하는 유의한 요인이었다(반육홍, 이선영, 2012). 즉 한국어능력이 뛰어나고 한국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이 용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은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구교태(2014)의 연구에서도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한국내에서의 대인관계유지와 한국어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학생들의 중국미디어 이용은 문화적응과 관련성이 없었다. Wu Xiaowen (2012)의 연구결과에서도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한국문화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재신과 동료들의 연구(이재신 외, 2014)에 따르면, 한국미디어이용(TV, 인터넷), 한국인친구수, 한국인친구와의 면대면대화는 중국인유학생의 문화적 통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에서 문화적 통합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정체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한국문화의 접촉에도 적극적인 것을 뜻한다(244쪽). 특히 미디어이용과 면대면대화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면서 한국 친구들과 활발히 대화할수록 문화적 통합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한국미디어이용이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김소영, 양정애, 양승목(2013)의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인터넷을 많이 이용할수록 한국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중국인터넷이용 역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야기하였다. 하지만, 한국 TV와 중국 TV 시청은 한국이나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미디어와 달리 한국인과의 대화는 한국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유학생들이 한국인과 대화를 많이 할수록 한국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미디어의 이용과 문화간커뮤니케이션능력, 대인커뮤니케이션은 유학생들이 한국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SNS의 영향력을

충분히 고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자본이 유학생들의 한국 사회문화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회자본의 형성이 한국 사회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금희조, 2011).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소셜미디어 활용의 특성 등도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에 중요한 사회관계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7) 진로지원관련 요인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중국인 유학생의 진학, 취업, 창업 등 진로지원관련 요인이다. 중국인 유학생이 현재의 학교 학업과정을 마치고 진학, 취업, 창업 등 다음 진로를 계획할 때 정보 등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하는 것도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문홍호, 2011; 이현진, 2011; ZHANG DEEPNG, 2015).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학, 취업, 창업 등 진로지원도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8) 유학생생활 안내의 내실화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은 유학생생활 안내의 내실화이다. 유학초기 학교나 법무부 등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학생 생활에 대한 안내를 충실하게 실시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부딪치게 될 여러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는 것도 한

국 사회문화 적응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이현진, 2011).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학생생활 안내를 충실히 제공하는 것도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사회문화적응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이 연구의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여러 영향요인들을 바탕으로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질적 FGI를 수행하여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사회문화적응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여러 영향요인들을 바탕으로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사회문화적응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어학연수 등 비학위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한국 사회문화적응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회귀모형을 구성해 살펴보았다.

제3장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2. 중국인 유학생 및 한국인 학생대상 FGI
3. 설문조사
4. 국제교류담당직원 및 전문가 대상 인터뷰



1. 문헌연구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실태를 살펴보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학술논문 등 관련 선행연구 문헌들을 살펴보았다. 중국인 유학생들 관련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학술논문 등을 통해서 살펴 본 결과는 이 연구의 이론적 논의 부분 작성, 중국인 유학생 대상 FGI 질문지 작성, 중국인 유학생 대상 설문조사 설문지 작성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2. 중국인 유학생 및 한국인 학생대상 FGI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의 실태 및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에 반영하고자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과 대학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중국인 학부 유학생 대상의 FGI는 2017년 6월 3일 전국을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6개 지역으로 나눈 후 각 지역에서 1명씩 총 6명의 중국인 학부 유학생을 섭외하여 FGI 실시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동의서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 한국어가 서툰 중국인 학부 유학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의 도움을 받았다.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 대상의 FGI는 2017년 6월 21일 중국인 학부 유학생 FGI와 마찬가지로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6개 지역에서 1명씩 총 6명의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을 섭외하여 FGI 실시목적을 설명하고 참여동의서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 대상의 FGI에서도 한국어가 서툰 유학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의 도움을 받아가며 진행하였다. 중국인 학부 및 대학원 유학생 대상의

FGI에서는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점은 무엇인지, 학교의 사회생활에서 적응하기 힘든 점은 무엇인지? 한국사회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지? 중국에 있는 가족,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 한국에 있는 한국인 학생들, 한국에 있는 중국외 다른 나라 유학생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향후 진로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으며 진로성취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주제로 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에 대한 한국인 학생들의 생각도 추가로 살펴보기 위해,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과 대학원 유학생들을 친구로 두고 있는 한국인 학부생과 대학원생 대상의 FGI도 실시하였다. 한국인 학부생 대상의 FGI는 2017년 6월 28일 전국을 수도권과 지방의 2개 지역으로 나눈 후 각 지역에서 1명씩 총 2명의 한국인 학부생을 섭외하여 FGI실시목적을 설명하고 참여동의서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 한국인 대학원생 대상의 FGI도 학부생 대상의 FGI처럼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 1명씩 총 2명을 섭외하여 참여동의서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 한국인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FGI에서는 중국인 학부 및 대학원 유학생들과 같은 질문들을 물은 후 한국인 학부 및 대학원생들이 중국인 동료들로부터 보고 들은 경험들에 대해 논의하는 형태로 FGI가 진행되었다.

이들 중국인 유학생 및 한국인 학생 대상의 FGI결과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양적 설문조사결과, 중국인 유학생 전문가 대상의 FGI결과와 함께 이 연구의 정책적 제언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표 3-1 중국인 학부 유학생 FGI 참여자의 기본적인 특성

연번	이름	성별	재학교급	학교소재지	전공	학년
1	A	여	학부재학	서울	이과	2
2	B	여	학부재학	경기	문과	2
3	C	남	학부재학	강원	문과	2
4	D	여	학부재학	충청	문과	3
5	E	남	학부재학	전라	이과	2
6	F	남	학부재학	경상	문과	4

표 3-2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 FGI 참여자의 기본적인 특성

연번	이름	성별	재학교급	학교소재지	전공	학년
1	A	여	학부재학	서울	이과	석사 5학기
2	B	여	학부재학	경기	문과	석사 3학기
3	C	남	학부재학	강원	문과	박사수료
4	D	여	학부재학	충청	문과	박사수료
5	E	남	학부재학	전라	이과	박사수료
6	F	남	학부재학	경상	문과	석사 4학기

표 3-3 한국인 학부생 FGI 참여자의 기본적인 특성

연번	이름	성별	재학교급	학교소재지	전공	학년
1	A	남	학부재학	수도권	이과	4
2	B	여	학부재학	지방	문과	4

표 3-4 한국인 대학원생 FGI 참여자의 기본적인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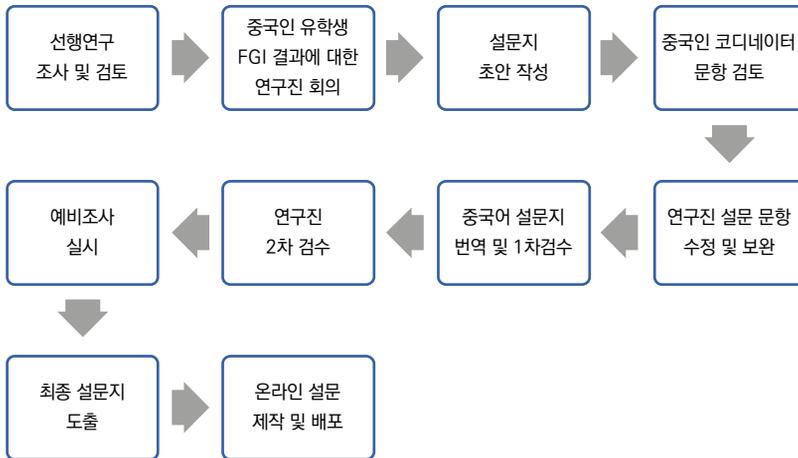
연번	이름	성별	재학교급	학교소재지	전공	학년
1	A	남	대학원재학	수도권	이과	석사과정
2	B	여	대학원재학	지방	문과	석사과정

3. 설문조사

1) 중국인 유학생 대상 설문 개발 절차

[그림 3-1]은 중국인 유학생 대상 설문 개발 절차에 대한 흐름도이다. 중국인 유학생 대상 설문을 위한 설문지 문항 개발을 위해 타 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중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연구 보고서들과 학술지에 실린 연구 논문들을 검토하였으며, 본 연구진이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통해 파악한 이들의 주요 관심사와 고민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참조하였다.

그림 3-1 중국인 유학생 대상 설문 개발 절차



연구진은 설문지 문항을 1차 작성한 후 한국 유학 및 직장 경험이 있는 2인의 중국인 유학생을 본 연구의 설문조사 진행을 위한 코디네이터로 선발하여 이들과 함께 설문 문항 검토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자

신의 직접적인 경험과 주변 유학생들에게 들은 경험을 반영하여 문항별 선택지의 수정 및 보완 작업과 각 설문문항 내용의 명료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설문문항 수정 및 보완 작업을 하고 중국어 전문 번역 업체를 통해 번역 및 감수를 의뢰하였다. 번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이 있는지 2명의 코디네이터들에게 중국어로 번역된 설문지의 2차 감수를 각각 의뢰하여 추가 수정 및 보완 작업을 하였다.

이를 토대로 FGI에 참석했던 11인의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메일을 통해 예비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이들 중 총 5명이 설문지 응답과 설문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보내왔다. 이들이 설문지 응답에 걸린 소요 시간은 평균 35분으로 조사되었으며, 1(매우 어려움)에서 7(매우 쉬움)의 7점 척도로 제시된 중국어로 번역된 설문지 문항의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4명이 7점(매우 쉬움)을 나머지 한 명이 6점을 주어 설문지 내용의 명료성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중국어의 번역과정에서 발생한 오타와 이해가 명확히 되지 않은 질문이나 어휘를 기재하여 보내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과 코디네이터가 함께 모여 설문지 최종본을 작성하였다.

전국의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국인 유학생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연구자가 제시한 링크에 접속하여 온라인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소정의 기프티콘을 제공하였다. 기프티콘 발송과 이중 응답자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설문지에 응답자의 소속 학교, 성명,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하였다.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이루어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인 유학생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연구진은 교육부에서 제공한 2016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집계된 지역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 비율(수도권:비수도권 = 57%:43%) 과 중국인 유학생의 학부와 대학원 과정별 비율(학부:대학원 = 71%:29%)을 고려한 할당 표집(quota sampling)을 하여 총 694명의 응답자를 SPSS의 케이스 선택 기능을 활용하여 무작위 표집하였다. 그 결과, 본 조사에 활용된 694명의 수도권 대 비수도권 그리고 학부 대 대학원 비율은 각각 60% 대 40% 그리고 61% 대 39%이다.

2) 중국인 유학생 대상 조사 내용의 구성 및 문항

주요 조사 영역은 교육 및 유학생생활, 일과 노동, 진로, 사회적 관계 및 적응, 매체 이용, 개인적 특성 및 정책제안 등의 영역이며, 주요 조사 항목은 <표 3-5>과 같다.

<표 3-5>에서 제시한 설문 영역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 문항 개발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중국인 유학생의 배경변인

배경변인을 살펴보기 위한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성별, 출생년도, 출신 지역(성), 체류자격, 현재 소속 학교명 및 지역, 한국 처음 입국 년도, 한국 거주 기간 등으로 중국인 유학생의 환경에 맞춰 구성하였다.

② 교육 및 유학생생활

교육 및 유학생생활에 경우 설문 문항 1~15번에 그 내용을 포함하였다. 처음 유학 당시 입학/편입한 학위, 현재 학년, 현재 한국에서의 전공 등을 질문하였는데, 현재 휴학 중인 유학생들을 고려하여 휴학 직전 학년,

휴학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휴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묻는 문항은 김지경·정연순·이계백(2015) 연구에서 한국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문항을 중국인 유학생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표 3-5 설문조사 영역 구성 및 영역별 주요 조사 항목

설문 영역 및 주요 항목	
배경변인	• 성별, 출생년도, 출신지역(성), 체류자격, 현재 소속 학교 명 및 지역, 한국 처음 입국년도, 한국 거주기간
교육 및 유학생생활	• 처음 유학 당시 입학/편입한 학위, 현재 학년, 휴학여부, 휴학하게 된 이유, 현재 전공, 유학생생활의 어려움, 유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 TOPIK/어학당 언어 급수, 한국어 강의 수업 이해정도, 영어 강의 수업 이해정도, 학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 학교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재학 중인 대학 교육서비스 평가, 대학 생활 적응, 장학금 수혜여부, 장학금액, 부모님(보호자)의 경제적인 지원여부, 한 달 평균 생활비
일과 노동	• 직장/아르바이트 경험여부, 주당 평균 근로 시간, 근로 이유, 근로하지 않는 이유
진로	• 졸업 이후 한국 체류 의향, 체류하지 않으려는 이유, 진로 정보제공 경로
사회적 관계 및 적응	• 다문화 친구 수용성,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 문화적응스트레스
매체이용	• 하루 평균 매체 이용/소비 여부 및 시간, 온라인 공동체의 연결적/결속적 속성
개인적 특성 및 정책제안	• 한국 유학 전 부모/가족과의 소통 시 사용한 주된 언어, 개인적인 큰 고민, 삶의 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온라인/오프라인 사회적 참여 및 활동 경험, 유학생 관련 지원정책 및 서비스 필요성 평가

연구진은 중국인 유학생들과의 FGI 결과를 토대로 유학생생활 어려움을 문항 4번에서 측정하였고, 유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한 문항 5번의 경우 김영란 외(2015)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내용을 참고하였다. 그 밖에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한류스타나 K-pop을 좋아해서’ 문항을 추가하였다.

한국어 언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TOPIK 급수 및 어학당의 한국어 레벨을 질문하였고, 한국어 강의 수업 및 영어 강의 수업 이해도도는 서영인 외(2012) 연구를 참고하였다. 학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과 학교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묻는 질문은 서영인 외(2012) 연구를 참고하였

고, 학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에 ‘수업 방식에 대한 어려움(토론, 팀 프로젝트 등)’, ‘학술정보 이용의 어려움(도서관 자료 검색 등)’을 묻는 문항은 연구진이 추가하였다.

재학 중인 대학 교육서비스 평가는 문항 11번에서 허재준 외(2011) 연구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수정·보완하였고, 대학 생활 적응 문항은 문항 12번으로 Baker & Siryk(1984)가 제작한 67개 문항 중 학업적 적응과 대학만족도 영역에 해당하는 8개 문항을 추출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유학생들 중 장학금 수혜여부, 장학금액, 부모님(보호자)의 경제적인 지원여부, 한 달 평균 생활비 등에 대해 측정하였다.

③ 일과 노동

중국인 유학생의 노동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문항 16번부터 19번까지는 한국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황여정 외(2015) 연구를 참고하였고, 이를 중국인 유학생 실정에 맞춰 수정·보완하였다.

④ 진로

중국인 유학생들의 향후 진로에 대한 문항은 20번부터 21번까지로 졸업 이후 한국 체류 의향과 체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 진로선택의 정보 제공 경로에 대하여 연구진이 개발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⑤ 사회적 관계 및 적응

중국인 유학생들의 사회적 관계 및 적응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문항 22 ~ 24번을 구성하였다. 다문화 친구 수용성은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현철 외(2015)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중국인 유학생에 맞춰 수정하였다.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의 수는 한국인과 한국거주 중국인, 한국 거주 이외 중국인으로 나누어 문항 23번에서 각

각 측정하였고,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문항 24번에서 Sandhu & Asrabadi(1994)가 외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 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ASSIS)를 이승중(1995)이 한국어로 번역한 것에서 두려움, 지각된 적대감,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에 대해 각각 문항을 추출하여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⑥ 매체 이용

하루 평균 매체 이용/소비 여부 및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문항 25번은 배상률 외(2013)의 청소년 매체이용실태 조사 문항을 수정·보완하였고, 문항 26번은 사이버 상에서의 사회적 자본을 알아보기 위해 Willams(2006)의 연구에서 측정한 온라인 공동체의 연결적(bridging), 결속적(bonding) 속성을 금희조(2011)가 번역한 척도로 사용하였다.

⑦ 개인적 특성 및 정책 제언

마지막으로 문항 27번 ~ 31번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 전 부모/가족과의 소통 시 사용한 주된 언어와 개인적인 고민에 대한 FGI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직접 개발하였으며, 이들의 심리·정서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김지경 외(2010)에서 한국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삶의 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문항 30번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온라인/오프라인 사회적 참여 및 활동 경험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배상률(2016) 연구의 설문조사를 수정·보완하였다. 유학생 관련 지원정책 및 서비스 필요성 평가에 대한 문항 31번은 FGI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직접 개발하였다.

4. 국제교류담당직원 및 전문가 대상 인터뷰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이 대학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들의 원활한 한국사회문화적응을 위한 정책적인 방안들을 도출하기 위해 대학의 국제교류담당직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참가자는 총 10명으로 대학직원 5명, 전문가 5명이다. 참가자들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이름은 편의상 익명처리하였다. 인터뷰는 2017년 8월초부터 9월초까지 한달여간 진행됐으며 대학직원들의 경우 대부분 이메일로 진행되었고 전문가들의 경우 포커스그룹인터뷰가 주로 활용되었다. FGI에 참석한 2명의 대학교수와 1명의 연구원은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다. 직접 방문 인터뷰를 한 교수의 경우 학과 내에 대학원생중 중국인 유학생이 많아 이들과 상호작용한 경험이 많다.

표 3-6 인터뷰참여자의 특성

연번	성별	소속	인터뷰방법
1	남	000 대학교 국제교류팀 (지방)	이메일
2	남	000 대학교 국제협력팀 (지방)	이메일
3	남	000 대학교 국제협력팀 (서울수도권)	이메일
4	여	000 대학교 국제협력팀 (서울수도권)	방문인터뷰
5	남	000 대학교 국제협력팀 (서울수도권)	이메일
6	남	000 국제교류재단	이메일
7	남	000 대학 000 교수	FGI
8	남	000 대학 000 교수	FGI
9	남	000 발전연구원 연구위원	FGI
10	남	000 대학 000 교수	방문인터뷰

먼저, 대학의 국제협력팀에 근무하는 5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국인유학생들의 학교생활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 현재 귀 학교에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숫자와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생활지원(한국어수업개설, 장학금지원, 기숙사배정, 아르바이트 알선, 신입생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취업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공부도우미, 멘토링 제도 등)를 운영하고 있나요?
-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 어떤 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까요?

이 밖에 5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정책적 제언에 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논의하는 방식을 택했다.

인터뷰에 앞서 인터뷰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미리 인터뷰참가자들에게 공지하고 승낙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소속기관과 인터뷰참가자의 이름은 익명처리할 것을 강조하였다. 인터뷰시간은 방문인터뷰의 경우 1시간 가량 소요되었으며 FGI의 경우 2시간 가량 걸렸다.

제4장 연구 결과

1. 중국인 유학생 및 한국인 학생 FGI 분석결과
2. 설문조사 분석결과
3. 국제교류담당직원 및 전문가 인터뷰 분석결과



1. 중국인 유학생 및 한국인 학생 FGI 분석결과

1) 한국어 적응의 어려움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 중의 다수는 한국 사회문화적응의 어려움으로 유학 초기 한국어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 중 조선족 출신을 제외하고는 유학 초기에 한국어 적응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 교수님 말의 속도가 빨라서 이해가 어렵기도 했고, 같은 학과 친구들과 교류하기도 힘들었으며, 아르바이트 할 때 한국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혼나기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한국인들과의 교류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의 한국어 적응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었다. 어떤 학교는 어학원에서부터 한국인 학생들을 배정해서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의 한국어 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학교가 있었다. 반면, 다른 학교는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의 한국어 적응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 중의 일부도 한국 사회문화적응의 어려움으로 유학 초기 한국어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한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도 유학초기 한국어를 잘 못 알아듣고 과제작성도 못해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제도적인 지원이 전혀 없어 혼자서 드라마나 교재를 보면서 한국어 공부를 했다고 말하였다.

중국인 학부유학생 B : 저는 처음에 대학교에 가고 언어문제 때문에...
교수님 말의 속도가 빠르니까 조금 힘들었어요. 시험은 괜찮은데 말하면 조금 힘들어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B : 같은 학과 친구 교류하기가 힘들어요. 언어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중국말 한국말 순서가 다르니까 좀 힘들어요. 알 바할 때 한국사람 교류 하는 거...한국사람 말하는데 너무 빨라요. 따라가기 힘들어요. 이해하지 못하면 사장님한테 혼났어요...그리고 한국인들 만나서 교류하기가 좀 힘들어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D : 저는 조선족이어서요. 괜찮은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해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D : 저희 어학원이 있으니까요. 봄쯤에 어학원 친구 3-4명이랑...신청을 하면...한국인 학생 한명에 어학원 학생 3-4명을 같이 배정을 해줘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A : 저희 학교같은 경우는 외국인 학생이랑 한국인 학생이랑 똑같이 받아요. 처음에 입학해서 도와주지도 않고 유학지원센터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B : 많이 외웠어요. 외우고 혼자서 계속 말하고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F : 한국어를 잘 못해서 알아들을 수 없고 과제 작성할 때도 잘 못해서 첫 학기 끝나고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휴학하고 싶은데...교수님이 휴학하면 바로 중국에 돌아가야 한다고 그래서...제가 그냥 연구실에서 혼자 공부했어요. 드라마나 교재보고요.

2) 강의방식 적응의 문제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 중의 일부는 한국 사회문화적응의 어려움으로 초기 강의방식 적응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호소하였다. 중국에서는 발표 수업이 많지 않았는데 한국 학부에서는 발표수업이 많아 준비하고 발표

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국 학부에서는 한국어 강의 외에 영어 강의를 많이 영어 강의에 적응하는데도 어려움을 느꼈다는 것이었다. 한국인 학부생도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이 영어 강의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 주었다.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 중의 일부도 영어 강의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호소하였다.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하는데 교수님이 영어로 강의를 해서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중국인 학부유학생 D : 한국에 오면 발표가 많잖아요. 근데 중국같은 경우는 발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전통방식으로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 듣고 받고 듣고 받고만 하는데 이제 한국 오니까...발표랑 이렇게 있으니...발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그런게 힘들었어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D : 그런데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반 한국어 반이에요. 보통 3학년, 4학년 올라가면 영어 강의가 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잘 안 되는 저 같은 경우에는 50프로 알아듣고, 50프로 못 알아들으니깐 영어로 할 때는 좀 힘들어요. 영어가 안돼서...

한국인 학부생 A : 제가 봤을 때에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이-연구자 주) 학교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은 제일 큰 것은 언어라고 생각해요. 얘기를 많이 안 하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영어 강의를 하는데...중국인 유학생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니까 영어를 공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C : 수업할 때 어느 교수님이...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영어 못하시는 분도 계시요. 그런데 저희는 한국에 유학을 왔으니까 한국어를 잘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어느 교수님이 강제로 영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한국어처럼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잖아요. 제 생각엔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어로 가르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왔으니 한국어를 배우길 원하죠.

3) 학점 취득의 어려움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 중의 일부는 한국 사회문화적응의 어려움으로 학점 취득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의 학점 취득과정은 학교마다 상이하게 나타났다. 어떤 학교는 아예 제도적으로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과 한국인 학부생들을 분리 평가하여 학점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학교는 제도적으로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과 한국인 학부생들을 분리평가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교수님들이 학점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과 한국인 학부생들을 분리평가하여 학점을 부여하고 있었다. 반면, 어떤 학교는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과 한국인 학부생들을 분리평가하지 않고 함께 평가하여 한국어가 부족한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이 좋은 학점을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중국인 학부유학생 D : 학점은 따로 해요. 우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학생하고 중국인학생 따로 해요. 그래서 경쟁 이런 건 없어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C : 저희 학교는 (제도적으로-연구자 주) 따로 하

고 그렇지 않지만 교수님 보는 눈이 외국인하고 한국인 이렇게...한국어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서 (따로-연구자 주) 학점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 같은 건 없어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A : 한국인이랑 유학생이랑 똑같이 성적경쟁을 해요. 원래 유학생이 언어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적이 한국인보다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한국인 학부생 B : 저희는 중국인이랑 한국인이랑 똑같이 줘요.

4) 학교공부 도우미 제도의 부재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 중의 일부는 한국 사회문화적응의 어려움으로 학교공부 도우미 제도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어떤 학교는 같은 전공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이 도우미가 되어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의 학교공부를 도와주는 제도가 있었다. 반면, 다른 학교는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공부 도우미 제도는 있었지만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공부 도우미 제도는 없어 혼자서 개인적으로 학과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과친구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적도 떨어지기도 했다는 것이었다.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 중의 일부도 한국 사회문화적응의 어려움으로 학교공부 도우미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였다. 어떤 학교들은 대학원 신입생 때 한 학기동안 지원하는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다른 학교에서는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도우미 제도가 없어 동아리 등 다른 곳에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도 문법 등을 봐주는 프로그램은 있지만

멘토링 제도는 없어 전공지식 관련 같은 경우에는 연구실의 선배 등에게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중국인 학부유학생 E : 저희 학교는 사립대잖아요. 학교는 서비스가 되게 좋아요. 국제교류센터는 너무 잘되어 있어서 대학원생들이 도우미가 되어서...학업에 대해서도 도와주고, 생활도 도와주고, 거의 학교나 개인생활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한국인 학부생 A : 과 자체적으로요. 근로장학생 형식으로 튜터에게는 근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는데...튜터는 한학기 단위로 운영되고요. 일주일에 두 세번 만나서 주로 과제를 같이 해결하거나 아니면 튜터가 먼저 그 과목을 선수강한 선배로서 팁을 주는 식으로 운영이 돼요. 열심히 하는 튜터 친구들은 잘하는데..요즘은 시작할 때보다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C : 저희 학과는...도움을 못 받아요. 대학 다니는 4년 동안 쪽 혼자 해야 해요. 혹시나 운이 좋으면 학과 친구들 도움을 받는데, 그냥 가끔씩 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러면 성적도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수님 말하는 걸 못 알아들을 수 있죠.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성적이 좋게 안 나오죠. 학교에 교환학생은 도우미를 줘요. 도우미를 해줘요. 반드시. 그런데 유학생들은 도우미가 없어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C : 어학원 말고 신입생들이 처음 올 때 한명씩 매칭해줘요. 한 학기만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E : 저희 학교도 한 학기만 해줘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D : 저희 학교도 신입생은 한 학기만 해줘요. 우

리 학교는 멘토링 제도라고 하는데...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F : 동아리에서 아니면 다른 학원에서 도움을 받아요.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A : 멘토링 경우는 없어요. 대신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문법 등 보고서 수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신청하고 수정해 주고요. 외국인 대상으로요. 팀페이퍼까지는 되고 논문은 안돼요. 전문적인 지식이나...그런 건 연구실의 친한 언니가 도와줘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제도가 있어서 도와 주는 건 아니에요.

5) 장학금 취득의 어려움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 중의 일부는 한국 사회문화적응의 어려움으로 장학금 취득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제도는 학교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어떤 학교는 중국인 학부 유학생 장학금을 한국인 학부생 장학금과 분리 운영하여 중국인 유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어떤 학교는 중국인 학부 유학생 장학금과 한국인 학부생 장학금을 분리하지 않고 장학금 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언어 등에서 불리한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이 성적경쟁에서 뒤쳐져서 장학금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었다.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의 경우에도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 장학금과 한국인 대학원생 장학금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학교도 있었고,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 장학금과 한국인 대학원생 장학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학부유학생 D : 저희 학교는 유학생장학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성적대로 3.0에 토픽 몇 급, 몇 급 있는데 그제 장학금 제도가 많거든요. 1급부터 5급까지 있어요. 이제 그 성적에 따라서 장학금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냥 아예 학비면제가 되고 2.0안되고 그러면 전액을 내는 학생도 있어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E : 저희는 거의 유학생들이 장학금 다 받을 수 있는데 성적이 너무 나쁘면 못 받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받을 수 있어요. 보통은 50퍼센트 받을 수 있는데 성적이 너무 좋아서 A플러스, A 이라면 최고 60프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A : 다른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 ○○대학교는 장학금 제도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입학할 때 정말 성적이 좋고 영어성적이 좋으면 입학장학금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없어요. 보통 유학생 별도장학금은 없고 공통장학금인데...한국인과 유학생이 똑같이 성적경쟁을 해서...유학생들은 언어문제가 있기 때문에...한국인만 있고 거의 유학생들이 못 받아요. 학비는 100프로 자기가 부담해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F : 우리 학과에서는 장학금제도가 잘 안되어 있는데, 우리 중국학생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저랑 다른 한국인 친구랑 똑같이 경쟁을 해서 받아야 돼요.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못 받았어요. 처음에 편입해서 왔을 때 한국어 4급 토픽이 있기 때문에 40퍼센트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후에는 계속 없어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D : (장학금을 못 받으면-연구자 주) 아르바이트... 아니면...부모님한테 받아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E : ○○대는 외국인 학생 따로만 50프로 줘요. △△대는 외국인을 한국어검정시험되면 급수에 따라서 차별해서 주는데...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C : 장학금이 있는데...한국인, 외국인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평균 2.0넘으면 30프로 정도 받을 수 있어요.

6) 기숙사 방 배정의 문제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 중의 일부는 한국 사회문화적응의 어려움으로 기숙사 방 배정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어떤 학교에서는 중국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중국인 학부 유학생을 한국인 학부생과 같은 기숙사 방에 배정을 해서 생활습관과 문화가 맞지 않아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중국인 학부 유학생은 중국인 유학생끼리 기숙사 방 배정을 하는 것이 적응하기 쉽고, 한국인 학생들과는 유학온 지 오래 되어 이미 한국문화에 적응한 중국인 유학생들과 방 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한편 외국인 기숙사가 따로 되어 있는 다른 학교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없다고 했다.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의 경우에도 한국 사회문화적응의 어려움으로 기숙사 방 배정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방학 때마다 그리고 개강할 때마다 많은 짐들 들고 방을 계속 옮겨 다녀야 하고 방학 때마다 기숙사비를 더 부담해야 해서 불편하다고 했다.

중국인 학부유학생 C : 학생들이 기숙사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배정을 해주잖아요. 배정을 해주면 한국인이랑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친구는 중국에서 온지 얼마 안 된 친구라서 문화가 맞지 않고 생활습관이 맞지 않아서 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저는 학교에서 좀 어떻게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해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C : 중국인 학생들끼리 같이 있는 것도 좋고, 아니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온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국문화에 대해서 인식이 좀 있고 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같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온지 얼마 안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학부유학생 E : 저희는 외국인 기숙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E : 학교 기숙사는 외국인 사는 데가 방학 때 계속 옮기고 개강하면 또 옮기고...외국인 학생이 집이 많으니까 불편해요. 여름에도 두 번해서 일년에 여섯 번 정도 옮겨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C : 우리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학교도 비슷할걸요. 방학 때마다 다 옮겨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F : 저희도 방학 때마다 다 옮겨요. 2013년, 2014년 교환학생으로 공부했었는데, 그때는 방학 때마다 학기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옮겨요. 방학 때 다 1층으로 내려가고 방학 끝나고 학기 때는 5층으로 옮기고요. 그리고 기숙사비 2만원을 더 받아요. 방학 때마다요.

7) 한국 음식에 대한 부적응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 중의 다수는 한국 사회문화적응의 어려움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부적응의 문제를 호소하였다.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의 다수는 한국음식이 입에 잘 안 맞아서 식사하는데 애로를 많이 겪고 있었다. 특히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에 유학와서 위가 안 좋아진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엠티 등에서 먹는 소주에 대한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 중의 다수도 한국 사회문화적응의 어려움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부적응의 문제를 호소하였다. 한국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한국 음식에 대한 부적응을 해소하기 위해 저녁은 중국식으로 직접 해 먹거나 중국음식점 거리를 찾아가서 중국음식을 먹는다고 했다.

중국인 학부유학생 C : 한국음식이 잘 안 맞아요. 너무 맵거나...중국 학생들이 유학을 오잖아요. 한국에 오면 아침을 먹는다는 게...안 먹는다고 할까...못 먹는다고 할까...입에 안 맞아서 밥을 먹기가 좀 그래요. 한국에 와서 위가 안 좋아졌어요. 아침을 못 먹으니까...김밥나라 가서...일주일에 한 5-6번 가요...아침에 일어나서 김밥나라 가려면 좀 짜증나요. '또 김밥나라? 안 먹어'

중국인 학부유학생 A : 가게들이 보통 오전 11시 오픈하잖아요. 그래서 아침 먹을 것도 없고 아침에는 김밥밖에 없는데 맨날 먹는 게 싫어요. 그리고 술 문화 이런 것도 좀 그래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C : 소주가 먹기가 좀 그래요. 엠티 가서 술을 먹어야하는데 교수님이랑 술 마시는 건 괜찮은데, 술 맛이.. 소주가 먹기가 좀 그랬어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F : 아침은 안 먹어요. 점심은 먹어요. 시간 있으면 집에서 만들어서 먹고요. 저녁은 그냥 먹고 싶으면 집에서 만들어서 먹어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E : 아침에는 간단히 먹고 점심은 학교식당에서 먹고 저녁은 집에서 먹어요. 아침은 죽 끓여서 먹거나 빵, 후라이 이런 거요. 네. 저녁은 중국요리해서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B : 여기 2년 동안 살았는데 한국음식이 적응이 안 되요. 보통 아침은 안 먹고 점심은 해먹어요. 저녁은 해먹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중국거리 가서 중국음식만 먹어요. 전통적인 중국음식만 먹어요. 한국음식 중에 불고기, 삼겹살이 좋아요. 토마토와 계란 볶음을 좋아하는데 비싸져서 못 먹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야채종류가 너무 없어서 혼자 해먹으려 해도 뭘 해먹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박이 비싸서 못 먹어요, 한국에서는 못 먹는데 중국 가서는 하루에 한 통 먹어요.

8) 병원 보험비 처리과정에서의 어려움

중국인 학부 및 대학원 유학생들은 한국 사회문화적응의 어려움으로 병원 보험비 처리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인 학부 및 대학원생들이 의료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미 보험처리가 되어서 자부담 비용 부분만 지급하면 되는 것과 달리, 주로 학교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중국인 학부 및 대학원 유학생들은 의료비 정산과정에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한 후 사후에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금을 돌려받는 방식이어서, 생활비가 넉넉지 않은 유학생들이 한꺼번에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중국인 학부 및 대학원 유학생들도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감된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실제 납부해야 될 보험료가 비싸고 부담되어서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로 학교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중국인 학부 및 대학원 유학생들의 의료비 처리과정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인 학부 및 대학원생들과 마찬가지로 의료비 정산과정에서 이미 보험처리가 되어 자부담 비용 부분만을 지급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중국인 학부유학생 C : 저기 혹시 유학생들이...학교생활을 하면서 다칠 데 있잖아요. 다치면 병원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원비가 엄청 많이 나와요. 보통 저희학교는...○○대학교 병원이 있는데 의사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보험을 가입했는지... 학교에서 가입해준 보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보험으로 치료를 못 받아요. 치료를 먼저 일단 저희 돈으로 받고 다시 그걸 보험회사에 줘야만 보험금이 와요. 그런데 학생 같은 경우에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건 그냥 그 당장에 보험을 처리해가지고 자그마한 병원비로 병을 치료하게끔 하는데 그걸 좀 어떻게 해야 할지...제가 다리를 다쳐서 200만원이 나오면 제가 200만원이 없어서 치료가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 방식이 좀...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C : 작년에 장염 걸려서 응급실에 갔어요. 갔는데 그날에 치료비가 60만원 나왔어요. 일반 학교에서 단체로 하는 상해보험이 있어요. 그거는 입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25만원만 처리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반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보험 처리하는 게 되게 복잡해요. 일단 자기 돈으로 지급하는 거고 나중에 처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 받아야 해요. 서류 제출해서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C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는데 비싸서 못해요. 단체상해보험이 일 년에 13만원인데 국민건강보험은 한 달에 5만원 정도예요. 그리고 외국인이 가입하려면 제한이 많아요. 신청하면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계산을 해야 해요. 만약에 제가 올해 가입하려고 하면 작년 것까지 다 해야 해요.

9) 휴대폰 할부구입의 문제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 중의 다수는 휴대폰 할부구입이 되지 않아 힘들다는 얘기도 했다. 이전에 일부 중국 유학생들이 휴대폰 구입을 계약해 놓고 중국에 그냥 돌아가 버려서 2014년 이후부터는 휴대폰 할부구입이 되지 않아 한 번에 구입하려니 부담스럽고 힘들다는 것이었다.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D : 2014년 이후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핸드폰 살 때 기계 할부가 안돼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F : 왜냐면 이 제도가 나오기 전에 중국학생들이 그냥 계약해놓고 중국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나왔어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D : 그래서 지금 불편해요. 한 번에 돈 내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10) 아르바이트 과정에서의 문제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은 한국 사회문화적응의 어려움으로 아르바이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호소하였다.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은 학비, 주거비, 생활비 등의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많이 참여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우선 언어 때문에 중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를 많이 쓰지 않아 아르바이트 일자리 찾기가 많이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인과 중국인간의 시급에도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부모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학비, 주거비, 생활비 등을 직접 벌기 위해 서빙 아르바이트를 장시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아르바이트 하는 도중에 손님들이 중국인 아르바이트생을 가리켜 짱깨라는

차별적인 언사를 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했다. 중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련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도 한국 사회문화적응의 어려움으로 아르바이트 문제를 호소하였다. 한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은 치킨 집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수당을 6개월이나 지나서 그것도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다른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도 친구가 핏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핏집이 문을 닫으면서 아르바이트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하였다. 또 다른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은 학교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거쳐야 하는 아르바이트 허가과정이 번거롭고 귀찮아서 아예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중국인 학부유학생 A : 유학생들이 알바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언어 때문에 유학생 알바를 안 쓰는 게 많아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B : 외국인은 한국사람 이랑 월급정도...시급이 달라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A : 한국인은 시급이 팔천원인데 중국인은 육천원이에요. 서빙 같은 거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E : 외국인 학생들이 저렴하니까...가장 저렴한 6300원..

중국인 학부유학생 D :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알바해요. 그래서 과제 같은 게 있으면 밤새면서...알바하면 거의 보통 다섯시, 여섯시부터 하니까 이게 끝나면 열시, 열한시 그렇게 되

요. 보통 그냥 다 서빙이에요. 음식점 서빙 같은 거.

중국인 학부유학생 C : 보통 가끔씩 중국인이 알바를 하면 보통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 욕 하는 게 짱깨라고 그렇게 내뱉기도 해요. 손님들이요. 네. 직접 말하지는 않는데 지인들과 같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C : 유학생들이 알바를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법이 있어요. 알바를 마음대로 하면 불법이라고 벌금이 나와요. 알바하려면 학교에서 허가를 말아야 해요. 그런데 그 규정이 있어요. 규정에 어긋나면 벌금을 내야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간을 좀 늘려주든지 혹은 알바생이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주에 몇 시간씩 알바를 할 수 있게요. 왜냐하면 알바생이 허가를 받으려면 일단 학점을 봐요. 학점이 되게 우수한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교수님들이랑 사이가 좋은 학생들만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학생마다 알바를 합법적으로 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여서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E : 치킨 집에서 3개월 하다가 그만뒀는데 사장님이 돈이 없다고...50만원밖에 안 되는데 6개월 지나서 줬어요. 돈이 없다고 해서 찾아다녔는데...100프로는 안줬어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D : 친구 중에 돈 못 받은 사람 많아요. 횡집에서 알바 했는데 그 횡집이 장사 잘 안 되서 문 닫았어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C : 학생이 아르바이트 하려면 신청 받아야 하잖아요. 학교에 신청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게 정말 귀찮아서 안 해요.

11) 범죄피해에의 두려움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 중의 일부는 한국 사회문화적응의 어려움으로 범죄피해에의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어떤 유학생은 다단계 판매하는 사람들이 중국어 배움을 운운하며 접근해 물품을 강매하는 경험을 했다고 했다. 그리고 다른 유학생은 여러 명이 자취방에 계속 찾아와서 범죄피해에의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다.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E : 다단계 판매 하는 것이 있어요. 말을 걸면서 자기가 중국어도 배우고 있다고 친하게 지내면 안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연락처도 남기고 며칠 후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얘기하다가 제 품나왔어요라고 말하면서 포인트 나오고...제가 딱 들어도 다단계인거 같아서 연락처 지웠어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B : 혼자 자취하고 있는데 한명이 오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와서 매일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안 열었는데 맨날 계속 찾아와서 문을 열고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얘기했더니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면서... 중국인이냐고 중국어 할 수 있는 사람 있다고 해서 제가 태국사람이라고 했어요. 태국말은 할 수 있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갔어요.

12) 법적 보호의 문제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 중의 일부는 한국 사회문화적응의 어려움으로 법적 보호의 문제를 얘기하기도 했다. 친구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혹시 중국인 유학생이라서 그런 것

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의 경우에도 법적 보호의 문제를 얘기했다. 친구와 같이 사는 중국인이 보증금을 안내고 도망갔는데, 집 주인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친구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 등으로부터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다가 아르바이트 수당을 일부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한 경우에도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국인 학부유학생 C : 그리고 한국에 보이스피싱이 심하잖아요. 친구가 당해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소식이 없더라고요. 지방이라서 그런지 유학생이라 그런지... 친구가 사기를 당했는데 소식이 없더라고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D : 그리고 방 구할 때 어떤 방 주인이 이상해요. 친구 중에 같은 건물에 사는 중국인이 도망갔어요. 보증금을 안내고...그런데 제 친구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했는데도 방법이 없어요. 그럼 보증금을 못 받아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방에 물건을 다 뺐어요. 보증금을 안주고...이상한 집주인이 많아요. 특히 유학생 같은 경우는 경찰에 신고도 잘 못하고 방학 때 바로 중국에 가야 하니까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E : 치킨 집에서 3개월 하다가 그만뒀는데 사장님이 돈이 없다고...50만원밖에 안 되는데 6개월 지나서 줬어요. 돈이 없다고 해서 찾아다녔는데...100프로는 안줬어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D : 친구 중에 돈 못 받은 사람 많아요. 횡집에서 알바 했는데 그 횡집이 장사 잘 안 되서 문 닫았어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13) 한국인 친구 사귀기의 어려움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은 한국 사회문화적응의 어려움으로 한국인 친구 사귀기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은 한국인 학부생들과 상호간에 언어도 통하기 쉽지 않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다르고 공유할 수 있는 화제도 없고 해서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교류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게다가 한국인 학부생들이 중국인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과 같이 엮이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유학 생활 중에 한국인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반면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은 한국인 친구 사귀에 어려움이 크지 않다고 했다. 한국인 학부생들이 다수인 상태에 있는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과 달리, 중국인 유학생들을 비롯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고 한국인 대학원생이 소수인 상태에 있는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은 한국인 대학원생들이 중국인 대학원생들과 같이 엮이기 싫어하는 등의 현상이 거의 없어서 한국인 친구 사귀에 어려움이 크지 않다는 것이었다.

중국인 학부유학생 E : 저는 한국친구 같이 교류하고 사귀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말도 어렵고 생각 하는 것도 사고방식도 다르고요. 그래서 같이 교류를 하고 싶어도 공유할 수 있는 화제가 없어요. 인사도 안 해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D : 먼저 다가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하는데 이제 중국학생은 언어가 어렵잖아요. 한국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어...어려우니까...말을 먼저 꺼내야 하는데 둘 다 이게 어려우니까 마음을 안 열어요. 그리고 인사를 해도 어떤 친구들은 인사를 받고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중국인 학부유학생 C : 기본적으로 다 그래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D :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어떤 학생들은 그냥 이유 없이 중국 학생들이랑 잘 안 어울리려 해요. 그냥 저는 중국이 뭐 어땠다...이상하게 그렇게 자주 들려와요. 그냥 중국 사람이 안 좋다 이런 거...왜냐면 여행을 많이 오잖아요. 여행을 많이 오는데 보통 보면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거 막 투입하고 하니까 이런 게...

중국인 학부유학생 C : 중국인에 대한 인상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보통 중국이라면 어떤 곳 가면 좀 더럽잖아요. 쓰레기 같은 거 막 버리고 하는 게...무시한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엮이기 싫어한다는...

한국인 학부생 A : 유학생 친구가 얘기하는 외로움 문제는 그냥 중국 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한국 학생들이 유학생에 대한 시선이나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질적으로 이야기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한국인들 내에서도 그냥 수업같이 들었는지 하는 인식이 있잖아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C : 저희는 그런 거 없었어요...우리 과는 중국인이 7명 있고, 한국인 4명, 몽골,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터키도 있고요. 20명이 외국유학생이고 한국인이 4명 정도 됩니다. 학부생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학원생은 거의 외국인이라서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F : 저희도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 과는 유학생이 많아요. 중국인, 몽골, 카자흐스탄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E : 대학원생은 한국인이 없어서 그렇고 학부때는 한국인 학생이 많으니까 그런 거 같아요.

14) 사회적 관계의 특성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은 중국에 있는 가족 및 친구, 한국에 유학 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 친구, 한국에 있는 한국인 친구 및 선생님, 한국에 유학 와 있는 제3국 유학생 친구의 순으로 가깝게 지내고 있다고 하였다. 제일 가깝고 오래되어 익숙한 관계이지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중국에 있는 가족 및 친구들과는 위챗, 큐큐와 같은 SNS를 통해 가끔 연락을 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에 있는 가족 및 친구들에 대한 타국 유학생생활에서의 그리움을 모국의 SNS를 통해 달래고 있는 것이었다. 중국에 있는 가족 및 친구 다음으로 가깝게 지내고 있는 한국에 유학 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 친구들과는 전화연락을 통해서 주로 저녁을 같이 먹고 가끔은 진로에 대한 고민도 같이 나누는다고 했다. 타국 유학생생활에서의 외로움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끼리 음식을 나눠먹으며 달래고 있는 것이었다. 한국인 학생, 선생님들과는 전반적으로 친해지기가 많이 힘들어서 사회적 관계가 많지 않았지만 한국인 기숙사 룸메이트 친구, 어학원 선생님 등 특별한 경우에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있었다. 카톡으로 연락해서 한달에 한번씩 밥도 먹고 도움도 받고 있었다. 제3국 유학생 친구들과는 사회적 관계맺음이 거의 없다고 했다.

중국인 학부유학생 C : 그냥 뭐 중국에 있는 가족, 친구 같은 경우는 위챗, 큐큐로 연락을 해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D : 저는 심심할 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연락해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A : 한 달에 두 번씩이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C : 한 달에 한번 정도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C : 중국인 유학생 친구는 자주 만나요. 만약 제가 오늘 저녁에 밥 먹어야 하는데 뭐 먹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친구한테 전화해요. '오늘 저녁 뭐먹지?' 하면 '집에서 바비큐나 해먹자' 그럼 같이 고기사서 집에서 해먹어요. 둘이 먹기가 좀 그렇다 하면 다른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다섯명, 여섯명씩 먹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같이 놀기 위해서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F : 이제 4학년이니까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돼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어떻게 할지...같이 찾아보고 해요. 혹은 선배들이랑 같이 만나서 어떤 교수님이 더 좋으신지 중국인한테 잘해주는지 그런 정보도 얻고...앞으로 대학원 진학하려고 해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D : 한국인 학생 친구와는 카톡으로 해요. 가끔씩 저 예전에 기숙사 룸메이트 친구가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밥먹어요. 그 친구는 중어중문학과인데 저희 학과를 복수전공해서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C : 친구라기보다는 선생님. 어학원에 다녔을 때 선생님이랑 친해요. 한국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한번은 제가 이가 좀 아팠는데 일요일이에요. 문 닫았잖아요. 아파서 선생님한테 연락했더니 어디어디가라해서 치료를 했어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C : 다른 나라에서 유학 온 친구랑은 상호작용이 거의 없어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E : 같은 수업을 들으면 그냥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이고 거의 교류가 없어요.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도 대체로 중국에 있는 가족 및 친구, 한국에 유학 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 친구, 한국에 있는 한국인 친구 및 선생님,

한국에 유학 와 있는 제3국 유학생 친구의 순으로 가깝게 지내고 있다고 하였다.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과는 다르게 한국에 유학 와 있는 제3국 유학생 친구들과도 가깝게 지내는 유학생들이 많았다. 가장 가까운 관계인 중국에 있는 가족 및 친구들과는 전화, 위챗 등으로 자주 연락을 하며 그리움을 달래고 있었다. 같은 학교 안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과도 자주 만나 밥 먹고 술 마시고 당구치면서 타국 유학생생활에서의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다. 그 외 중국인 교회, 온라인 사이트, 같은 학교 유학인 학생회 등을 통해서도 교류하며 타국 유학생생활에서의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다. 한국인 친구들과는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실험실에서 연구하며 친해졌는데, 지금도 계속 교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과는 다르게 필리핀,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의 제3국 유학생들과도 교류하며 지내고 있었다.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F : 중국에 있는 가족 및 친구들이랑은 전화하고 위챗으로 영상통화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아프셔서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E : 저도 똑같아요. 일주일에 두 번씩이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D : 저는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하는데 지금 여자친구 생겨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해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A : 저는 엄마한테 거의 매일해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C : 저는 원래 많이 연락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안 맞아요. 왜냐면 연구실에 매일 있으니까 새벽까지 하는데 중국에서는 열시 넘으면 다 자버리니까...두 달에 한 번 정도했어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B : 저도 친구하고 메일을 주고받아요. 가족하고도 매일 해요. 어머니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문자를 보내요. 점심때는 점심 먹었냐고 물어보고 영상채팅을 하고 저녁에도 영상통화를 하고요. 어머니랑 성격이 같아서 급한 편이 있어서 싸우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해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C : 학교 안에 중국인 유학생끼리 친한 친구들끼리만요. 저는 그냥 시간되면 다 봐요.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요. 밥 먹고 술마시고요. 당구치고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F : 일주일에 한번정도요. 만나면 술먹고 밥먹고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D : 제 친구들은 바로 옆에 살아서 매일 보고 같이 놀고 그랬어요. 밥먹고 술먹고 당구치고요. 여학당 친구들 아니고 중국에서 같이 온 친구들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중국에 가서 지금은 여자친구랑만 같이 놀아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F : 제가 교회도 다녔어요. 왜냐하면 제 여차친구가 기독교예요. 중국인 교회가 있어서 거의 다 중국 사람인데 돈도 주고 아니면 한국어를 배웠어요. 목사님은 한국 사람이예요. 저는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요. 많이 받아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B : 온라인 사이트요. 사이트 통해서 받아요. 네. 한국에서 개설 된거예요. 이름이 분투. 한국에서 분투하자, 한국에서 생활하자예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D : 어울려요. 저희 학교에서는 같은 학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인 직원들이 큐큐를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어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C : 저희 학교도 그런 게 있어요. 국제교류본부에서 중국인 학생들 대상으로 큐큐라는 단체방 만들어서 학부생, 대학

원생 따로 이런 거 다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보 교환해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F : 학교 유학인 학생회도 있어요. 친한 친구들은 자주 봐요. 학생회가 자치회인데 학교에 계획서 쓰고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원금을 받으면 활동 조직해서 학생들이 모이기도 해요. 그리고 국제교류센터에서 문화 체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가고 그런 걸 해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D : 한국인 친구 중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 있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에 9월에 코스모스라서 처음에 1학기 활동은 아예 참석 못했어요. 2학기 때 같이 수업 다니는 친구들이랑 한국인이랑 이야기도 잘 안하고 그랬는데 종강총회에서 친해져서 2학년 1학기부터 학교 행사도 많이 가고 친해졌어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E : 같이 실험실에 있는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중국어 가르치는 학생들이랑 친하게 지내요. 다른 과도 있어요. 밖에서 놀면서 술도 먹고요. 저희 과는 중국인은 저 혼자 빼고 없어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C : 저는 친한 한국인 친구가 두 세명 있어요. 가장 오래된 친구는 나이가 두 세살 많은 선배가 있어요. 학부때 안 친근데 그냥 밥먹고 이런 친구 아니고, 어려울 때 도움 받는 친구이고 집에 초대도 해주고요. 또 국제교류본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후배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랑도 친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밥만 먹는 사이 아니고 같이 교류해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F : 제가 러시아 친구들이랑 영어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잘 지냈어요. 그런데 러시아로 돌아갔어요. 약속했어요. 결혼할 때 찾아오기로.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D : 저희 과는 다 외국사람이었는데 필리핀, 카

자흐스탄, 러시아 있는데 요즘은 페이스북 통해서 다 연락해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E : 저는 다른 외국인 친구 없어요.

15) 조교 선생님과의 관계의 어려움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의 일부는 한국 사회문화적응의 어려움으로 조교와의 관계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의 일부는 학교 조교 선생님들이 특히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에게 잘 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조교 선생님들이 평소에 대학원생보다는 학부생들에게 잘 안 대해주는데,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과 같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더 심하게 잘 대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E : 제가 학부 때 조교랑 소통할 때 불편했어요. 모든 거.. 강의에 대한 거.. 통보같은 게 있을 때 소통이 좀 어렵고요. (언어 때문이에요?-연구자 주) 네. 그 뒤로는 아예 얘기 안했어요. 못 알아 듣는 건 제가 잘못된 거지만 그분이 말을 아예 하지 않은 건 그분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언어 못하더라도 잘하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 아예 얘기하지 않았어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C : 보통 조교 선생님이 학부생한테는 잘 안 해 줘요. 예를 들어 저희 과 조교선생님은 학부생한테 하는 태도하고 대학원생한테 하는 태도가 달라요. 대학원생한테는 잘하고요. 외국인학생한테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저희 과 학부생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도 조교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하는데...특히 학부생들이 한국말을 잘하지 않잖아요.

16) 교수님과의 관계의 어려움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의 일부는 한국 사회문화적응의 어려움으로 교수님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중간시험 기말시험 때 정당한 수당지급 없이 많은 수의 학생들의 시험을 감독하고 채점하는데, 그런 부당한 지시를 하는 교수님이 논문심사위원이라 항의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C : 저희 대학원생들이 기말시험 중간시험 때는 교수님 대신 시험 감독을 하잖아요. 시험 끝나고 채점해야 해요. 그럼 학생수가 200명이 넘는데 그걸 저희가 다해요. 원래 안 해도 되는데 그걸 거절하면 심사받을 때 심사위원이시니까 만약에 거절하면...그런 걱정이 있어요. 지난달에 심사 받을 때는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때 막 논문 쓰고 있잖아요. 쓰다가 아침에 전화 왔어요. 어디서 시험감독해라...(지도교수님이요?-연구자 주) 아니요, 심사 들어오시는 분이요. 지도교수님은 오히려 안 시키세요.

17) 한국사회 일반인들의 차별적인 인식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의 다수는 한국 사회문화적응의 어려움으로 한국사회 일반인들의 차별적인 인식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의 다수는 한국사회 일반인들이 이전에 중국에서 한국에 돈 벌기 위해 들어왔던 일부 중국인들의 행태를 중국인 전체로 일반화해서 중국 및 중국인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유학생들을 대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시장에 물건 사러 갈 때도 판매원의 태도가

좋지 않고,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에도 자기들끼리 짱깨라고 차별적인 언사를 늘어놓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중국인 학부유학생 E : 일반 사람들 만나잖아요. 보통 중국이나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로 인해 주로 유학생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원인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옛날부터 중국에서 와서 일을 하고...그런 분들이 일 위주로 돈만 보고...그런 사람들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아서...‘아 중국사람들은 다 그러나봐’ 그렇게 고정관념이 있어서...‘아 유학생도 마찬가지겠지...똑같이 중국인이니까’ 이런 생각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F : 부산 서면 있잖아요. 서면에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도 지하1층에 할인 판매되는 제품이 많은데 거길 찾아가서 뭐 사려고 하면 판매원이 태도가 안 좋고 경계하는 그런 눈빛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갈치 그쪽에 국제시장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얼마냐고 물어볼 때 분명히 그 사장님이랑 직원이..가격표시가 없어요. 사장님이랑 직원이 분명히 원래 가격이 어떻게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럼 유학생은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일부러 가격을 막 붙이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만 오천원 정도로..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C : 보통 가끔씩 중국인이 알바를 하면 보통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 욕 하는 게 짱깨라고 그렇게 내뱉기도 해요. 손님들이요. 네. 직접 말하지는 않는데 지인들과 같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한국인 대학원생 B : 제가 만났던 중국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어른들이 무시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비하하는 얘기라던가 태도 자체도 중국인 학생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18) 진로지원의 부족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의 다수는 한국 사회문화적응의 어려움으로 취업 등 진로지원의 부족을 호소하였다. 한 유학생은 한국에서 관련 분야의 경력을 쌓은 후 중국에 가서 취업을 하기를 원하는 데, 한국에서 관련 분야 인턴 등의 기회를 중국인들에게 잘 주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유학생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회사생활 체험 후에 중국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회사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창업을 원하는 유학생은 현재 한국의 창업지원제도가 중국인 유학생에게도 허용되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창업지원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다른 중국인 유학생은 중국인 유학생에게 허용되는 창업투자 제한 금액을 현실적으로 낮춰주기를 희망한다고 하기도 하였다.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의 경우는 대부분 박사학위를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가 대학교 교수로 취업할 예정이어서 한국에서의 진로지원에 대한 요구 같은 것은 많지 않았다. 대학교수를 희망하는 대부분의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은 한국의 대학에서는 중국인 박사가 취업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 기대하지 않지만,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의 대학에서 교수자리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리고 일부지만 대학원을 마치고 한국에서 취업을 한 후 중국에 들어가기 원하는 유학생은 한국에서의 취업시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대학원을 마치고 중국과 한국에서 창업을 하기를 원하는 유학생은 한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

로 한 창업지원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중국인 학부유학생 D : 저는 딱히 대학원에 갈 생각이 없어요. 저는 이제 4학년이 되면 실습을 원해요. 나가서 현장에 가서 인턴 같은 걸.. 사실 저는 관광이니까 그 분야에서 많이 일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졸업한 후에도 일단 제 계획은 한국에서 3년이나 4년 있다가 직장을 찾고 나오면 중국에 다시 들어가서 중국에 있는 여행사나 아니면 다른 관광분야에 들어가서 다시 직장을 찾을 계획인데요. 저는 알바 같은 거를 이런 분야에 들어가서 인턴을 많이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국인들도 많이 뽑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C : 저는...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할 것 같아요. 보통 중국인 유학생들은 다시...중국 가서 취직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회사생활을 체험을 해보았으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F : 저는 특별한 케이스인데 창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4학년이잖아요. 앞으로도 대학원 진학하려고 하고 대학원 공부하면서 창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과하고 모여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부산 쪽은 창업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심사를 통과를 하면 사무실이나 이런 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유학생도 가능해요. 사무실 지원도 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중국인 학부유학생 C :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유학생이 한국에서 가게를 하나 차리고자 한다면 무조건 1억이상 투자를 해야 돼요. 1억 미만이라면 불법투자로 봐요. 그런데 사실 제가 만약 강원도 춘천에서 양꼬치집을 차리자고 한다면 사실 1억까지 필요없어요. 5천만원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1억이상을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니 못하는 거죠. 생각 있는 학생들은 하려고 하는데 1억이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한국 인들은 가게 차린다고 한다면 상관없죠. 그런데 유학생들은 딱 1억 이상이 돼야 해요. 학생이 1억 이상을 들일수가 없잖아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D : 우리 학교는 중국인 박사는 중국어 강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취직하기가 어려워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E : (한국의 대학에서 교수되기가-연구자 주) 가 능하면 하다가...중국에서는 더 좋은 학교에 취업하기가 쉬워져요. 중 국가면 학교도 보지만 실적도 많이 봐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A : 저는 한국에서 2-3년 정도 일하다가 중국 들어가고 싶어요. 여기서 경력 좀 쌓다가 가고 싶어요. 여기서 환경 쪽에 취업한 다음에 중국에서 연구소 가서 일하고 싶어요. 여기서 회 사에 지원할 때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그런거 외국사람하고 차별 없 이 같은 직을 지원할 수 있게 그런 거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B : 저는 창업을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중국에 서 다르게 창업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택시. 카카오택시 있는데 중국인을 대상으로 카카오택시 같은걸 만들려고 해요. 언제나 부를 수 있고 택시가격을 세이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 게 택시회사랑 연결해야 할 지..고민이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피부 관리를 하려고 해요. 피부관리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중매체 회사를 차리고 온라인 컬렉션 쇼를 하려고 해요. 외국인 대상의 창업지원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19) 비자연장 과정에서의 어려움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의 다수는 한국 사회문화적응의 어려움으로 비자연장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비자연장 신청방법을 단체로 하는 학교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학교도 있는데 단체로 신청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비자연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태도가 권위주의적이고 많이 불친절하다는 불만도 토로하였다. 비자연장신청할 때 드는 보증금이 너무 많아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있었다.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의 다수도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문화적응의 어려움으로 비자연장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비자 연장할 때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고 절차가 너무 복잡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의 태도가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불친절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영어권 학생한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중국인 유학생들한테는 동남아 유학생들과 함께 차별대우 당하는 느낌을 받는 것 같다고도 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의 업무처리가 일관되지 못하고 잘못된 일처리 때문에 불편을 겪은 일도 있다고 했다.

중국인 학부유학생 C : 서울 쪽에...유학생들이 비자를 연장하려고 하면 심사하고 해야 하는데 학생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해요. 네. 단체로 가서 받던 지요. 저희 학교는 단체로 되는데 ○○대나 ○○대는 이렇게 안돼요. 지방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떨어져 단체로 가서 해요. 그리고 유학생들사이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태도가 많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C : 저희 비자 연장하고 신청할 때 보증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처음에 제가 했을 때는 보증금이 1200만원이었어요.

지금은 2000만원이에요. 1000만원을 갑자기 어떻게 입금을 해달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중국인 학부유학생 F : 옛날에는 어학원 학생들이 중국 통장에 잔액증명서가 있으면 비자연장을 해줬는데 지금은 무조건 한국통장에 1000만원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C : 비자 연장할 때 너무 어려워요.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요. 제가 한번 겪은 일인데요. 제가 가지고 온 서류가 의심이 된다고, 위조 하는 거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서 만들어 주신건데 어떻게 위조하냐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반말로 하는 거예요. 약간 좀 욱도 나오고 그렇게 되고나서 기분이 너무 나빠서 핸드폰을 놓고 녹음을 하길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태도가 좀 변하더라고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C : 제가 아는 친구가 연장하러 갔다 왔는데 세 번, 네 번 왔다 갔다 했어요. 한 번에 안 된다고 해서요. 제가 저번 주에 친구랑 갔다 왔는데 그 친구가 한국말을 잘 못했는데 그 친구 순서가 끝나고 나서 욱을 하는 거예요. 친구에 대해서...그게 기분이 나빠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해도 되게 되어있는데, 학생들이 잘 모르니까 직접 가서 해요. 태도가 진짜 몇 년 동안...제가 갈 때마다 싸워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D : 저희 학교는 보통 비자 연장할 때 학교에서 단체로 가는데 문제는 그쪽에서 저희 선생님한테도 태도가 안 좋아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C : 동남아쪽이랑 그쪽한테는 더 그런거 같아요. 영어권 학생한테는 안 그런거 같아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E : 2009년도에 연장할 때 도장찍을 때 날짜를 찍어야 하는데 날짜가 안 찍혔어요. 직원이 그냥 펜으로 대충 썼어요.

그런데 나갈 때 걸렸어요. 인천공항에서요. 날씨는 도장 찍히게 아니고 펜으로 쓴 거라서 안 된대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한국을 때 또 걸렸어요. 베이징에서요. 한국으로 전화해도 안되니깐...겨우 비행기타고...인천 귀국할 때도 걸렸어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D : 출입국사무소 사람들이 1년마다 자리를 이동해요. 그래서 업무 이해도 잘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B : 친구랑 같이 갔는데 서류는 똑같았는데 처리하는 직원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운이 좋게 좋은 직원을 만나서 도장 찍고 통과가 바로 되었어요. 근데 친구는 어떤 여사분이 걸려서 2주 동안 기다리라고 그랬대요. 똑같은 서류인데도 한명은 바로 되고, 한명은 기다리라고요. 판단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20) 유학생할 안내 및 내실화 부족의 문제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은 한국 사회문화적응의 어려움으로 유학생할 안내 및 내실화 부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무부에서 유학생할 안내를 실시하는 프로그램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학교에서는 알면서도 귀찮아서 신청하지 않거나 법무부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법무부 유학생할 안내 프로그램은 신청하지 않는 대신, 학교 자체적으로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도 있었다.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E : 학생이 비자연장 방법 등에 대해 모를 때는 학교가 법무부에 신청하면 법무부에서 강사를 보내요. 그런데 학교는 대부분 신청하지 않아요. 학교가 신입생 대상으로 한 번 교육을 시켜

야 해요. 대학생 신입생 받아야 하는데 법무부 교육 같은 거 신청하지 않아요. 학교도 알긴 알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건. 그런데 귀찮아서 안하는 거 같아요. 강사비도 법무부에서 다 부담하는 거라서 학교가 부담하는 건 없는데, 나라마다 언어별 강사 다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C : 저희학교는 거의 다 해요. 강사를 불러서 해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F : 저희 학교는 몰라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A : 저희 학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학교 자체 프로그램으로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중국인 대학원유학생 D : 우리 학교도 법무부 프로그램은 없어요. 학교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학당 졸업하기 전에 정보제공을 받거나요.

21) 소결

중국인 학부 및 대학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 결과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사회문화적응과 관련해서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우선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과 대학원 유학생들 중의 일부는 유학 초기 한국어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한국어 적응이 어려워 강의, 한국 친구들과의 교류, 아르바이트 등 생활전반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었다.

강의방식 적응의 문제도 호소하였다. 중국과 달리 한국의 학부에서는 발표수업이 많아 준비에 어려움을 느꼈고, 학부 및 대학원 수업에 영어강의가 많아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는 것이었다.

학점취득의 어려움도 얘기하였다. 일부 학교에서 중국인 유학생들과

한국인 학생들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평가하여 한국어에 약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학점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

학교공부 도우미 제도의 부재도 어려움 중의 하나로 얘기하였다. 일부 학교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교공부를 도와주는 도우미 제도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한국 사회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

장학금 취득의 어려움도 호소하였다. 일부 학교에서 중국인 유학생 장학금과 한국인 학부생 장학금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언어 등에서 불리한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이 장학금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

기숙사 방 배정의 문제도 한국 사회문화 적응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였다. 한국인 학생들과 중국인 학생들을 함께 배정하여 사회문화가 맞지 않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했다.

한국 음식에 대한 부적응도 어려움 가운데 하나였다. 한국 음식에 대한 부적응으로 아침식사를 거르는 등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

병원 보험비 처리과정에서의 어려움도 호소하였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인 학생들과는 달리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우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정산과정에서 의료비 전액지급 후 사후 환불받는 방식이 생활비가 넉넉지 않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의료비 부담의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었다.

휴대폰 할부구입의 문제도 호소하였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휴대폰 할부구입이 되지 않아 힘들다는 것이었다.

다음 어려움으로는 아르바이트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언어 때문에 아르바이트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고, 차별적 언사, 수당미지급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범죄피해에의 두려움도 호소하였다.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물품강매 등의 일로 피해의 두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었다.

법적 보호의 문제도 호소하였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사기나 어려운 일을 겪어 신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유학생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경험들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한국인 친구 사귀기의 어려움도 호소하였다. 한국인 학부생들이 중국인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아 중국인 학부 유학생들과 같이 사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한국이 친구 사귀기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었다.

사회적 관계의 특성으로는 중국에 있는 가족 및 친구, 한국에 유학 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 친구, 한국에 있는 한국인 친구, 한국에 유학 와있는 제3국 유학생 친구의 순으로 가깝게 지내고 있다고 얘기하였다.

조교 선생님과과의 관계의 어려움도 호소하였다. 중국인 유학생들 중의 일부는 조교 선생님이 한국 학생들과는 달리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잘 대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교수님과의 관계의 어려움도 호소하였다. 일부 교수님들이 부당한 지시를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었다.

한국사회 일반인들의 차별적인 인식도 중국인 유학생들에게는 한국 사회문화 적응의 어려움 중의 하나였다. 일부 중국인들의 잘못된 행태를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일반화해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바람에 차별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었다.

진로지원의 부족도 어려움 중의 하나로 호소하였다. 한국에서 관련 분야의 경험을 쌓고 중국에 가서 취업하기를 원하는데 인턴 등의 기회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잘 주어지지 않고, 한국의 창업지원도 중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비자연장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호소하였다. 비자연장 과정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의 태도가 권위주의적이고 불친절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었다.

유학생할 안내 부족의 문제도 얘기하였다. 일부 학교에서 법무부 유학생할 안내 프로그램을 알면서도 귀찮아서 신청하지 않거나 아예 법무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중국인 학부 및 대학원 유학생들 대상의 FGI에서는 한국어 적응의 어려움, 강의방식 적응의 문제, 학점취득의 어려움, 학교공부 도우미 제도의 부재, 장학금 취득의 어려움, 기숙사 방 배정의 문제, 한국 음식에 대한 부적응, 병원 보험비 처리과정에서의 어려움, 휴대폰 할부구입의 문제, 아르바이트 과정에서의 어려움, 범죄피해에의 두려움, 법적 보호의 문제, 한국인 친구 사귀기의 어려움, 조교 선생님과과의 관계의 어려움, 교수님과과의 관계의 어려움, 한국사회 일반인들의 차별적인 인식, 진로지원의 부족, 비자연장 과정에서의 어려움, 유학생할 안내 부족의 문제 등 여러 다양한 문제를 한국 사회문화 적응의 어려움으로 호소하였다.

2. 설문조사 분석결과

1) 응답자 특성

(1)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전체 694명 중 남성은 158명으로 22.8%를 차지하였다. 여성은 536명으로 77.2%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 성별

(단위: 명, %)

		계	
		사례수	%
전 체		694	100
성별	남성	158	22.8
	여성	536	77.2

(2) 연령

연령별로 살펴보면, ‘22세~24세미만’이라는 응답이 25.9%으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의 최소 연령은 17세이고 최대연령은 51세로 평균 연령은 23.8세로 조사되었다.

표 4-2 연령

(단위: 명, %)

		계				
		사례수	%	평균	최소값	최대값
전 체		694	100	23.8	17	51
연령별	19세미만~19세	49	7.1			
	20세~22세미만	150	21.6			
	22세~24세미만	180	25.9			
	24세~26세미만	143	20.6			
	26세~30세미만	123	17.7			
	30세 이상	49	7.1			

(3) 중국의 출신지역

출신지역(중국)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694명 중 화동지역이 268명으로 38.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이어서 중남지역 116명(16.7%), 동북지역 147명(21.2%), 화북지역 86명(12.4%), 서남지역 47명(6.8%), 서북지역 28명(4.0%), 기타 2명(0.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 중국의 출신지역

		계	
		사례수	%
전 체		694	100
중국의 출신지역	화북지역	86	12.4
	동북지역	147	21.2
	화동지역	268	38.6
	중남지역	116	16.7
	서남지역	47	6.8
	서북지역	28	4.0
	기타(홍콩, 마카오 등)	2	0.2

주: 중국의 6대 지역

화북지역: 북경시, 천진시, 허북성, 산시성, 내몽골자치구

동북지역: 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

화동지역: 상해, 절강성, 강소성, 안휘성, 복건성, 강서성, 산둥성

중남지역: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해남성

서남지역: 중경시, 사천성, 귀주성, 운남성, 저장성(티베트)

서북지역: 섬(陝)서성, 감숙성, 청해성, 닝샤후이족자치구, 신장웨이우얼자치구

그림 4-1 중국의 6대 지역



- | | |
|---|---|
|  North China |  South Central China |
|  Northeast China |  Southwest China |
|  East China |  Northwest China |

자료: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regions_of_the_People%27s_Republic_of_China (검색일: 2017.11. 01.)

(4) 체류자격

체류자격을 살펴보면, 응답자 694명 중 'D-2'가 519명(7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D-4'와 'F-4'라는 응답이 각각 11.2%, 5.3%로 나타났다.

표 4-4 체류자격

(단위: 명, %)

		계	
		사례수	%
전 체		694	100
체류자격	D-2	519	74.8
	D-4	78	11.2
	D-10	20	2.9
	C-3	6	0.9
	F-4	37	5.3
	기타	34	4.9

(5) 소속 학교 지역

소속 학교 지역을 살펴보면 '수도권'이라는 응답이 59.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비수도권'이라는 응답이 40.3%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5 소속 학교 지역

(단위: 명, %)

		계	
		사례수	%
전 체		694	100
소속 학교 지역	수도권	414	59.7
	비수도권	280	40.3

(6) 한국에 처음 입국 년도

한국에 처음 입국년도를 살펴보면, 응답자 694명 중 '2016년'에 입국한 유학생이 151명(2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2014년', '2015년'이 각각 19.3%, 18.2%로 나타났다.

표 4-6 한국에 처음 입국 년도

(단위: 명, %)

		계	
		사례수	%
전체		694	100
처음 입국년도	2011년 및 이전	90	13.0
	2012년	59	8.5
	2013년	81	11.7
	2014년	134	19.3
	2015년	126	18.2
	2016년	151	21.8
	2017 9월초까지	53	7.6

(7) 한국에 거주한 기간

한국에 거주한 기간을 살펴보면, 응답자 694명 중 '6개월 미만' 거주하였다는 응답이 44명(6.3%)으로 가장 낮은 반면 '3년~5년 미만' 159명(22.9%)으로 가장 많았다.

표 4-7 한국에 거주한 기간

(단위: 명, %)

		계	
		사례수	%
전 체		694	100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	6개월 미만	44	6.3
	6개월~1년 미만	99	14.3
	1년~2년 미만	156	22.5
	2년~3년 미만	145	20.9
	3년~5년 미만	159	22.9
	5년 이상	91	13.0

2) 교육 및 유학생할

처음 한국에 입학 및 편입한 과정에 대해 조사 응답자들은 학부과정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언어연수가 34.7%, 대학원 석사과정이 13.8%로 나타났다. 대학원 박사과정과 기타(언어연수 제외)는 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8 처음 한국에 입학 및 편입한 과정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유학기간이 끝나면 중국으로 바로 돌아가고 싶다
전 체		694	100
처음 한국에 입학 및 편입 과정	고등학교 이하	47	6.8
	학부과정	286	41.2
	대학원 석사과정	96	13.8
	대학원 박사과정	12	1.7
	언어 연수	241	34.7
	기타(언어 연수 제외)	12	1.7

현재 학년을 살펴본 결과 ‘대학원 석사과정’이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대학교 3학년’(17.9%), ‘대학교 4학년’(16.4%)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외에 휴학 중인 학생이 6명으로 나타났다. 휴학한 시기는 ‘언어연수, 어학당 시기’가 많았고, 휴학 이유로는 ‘학비와 생활비 충당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위해’, ‘취업 관련 시험,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기 위해’, ‘진로를 고민하기 위해’, ‘심리·정서적 재충전을 위해’ 등으로 나타났다.

표 4-9 현재 재학 중인 학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백분율
전체		694	100
현재 재학 중인 학년	대학교 1학년	55	7.9
	대학교 2학년	77	11.1
	대학교 3학년	124	17.9
	대학교 4학년	114	16.4
	대학원 석사과정	168	24.2
	대학원 박사과정	69	9.9
	기타(언어연수 등)	81	11.7
	휴학 중	6	0.9

응답자들의 현재 대학 전공을 살펴본 결과, ‘상경계열(경영, 마케팅)’이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인문계열(어문계, 인문계)’이 25.9%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상경계열’이 23.4%, ‘인문계열’이 22.7%로 응답하였고, 비수도권의 경우 ‘상경계열’과 ‘인문계열’ 모두 30.7%로 조사되었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학부과정은 동일하게 ‘상경계열’이 33%로 가장 많았고, 석·박사과정은 ‘인문계열’이 27.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4-10 현재 전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예·체능	의학	상경	
전체	694	25.9	12.4	4.2	9.5	4.8	5.5	0.7	26.4	
지역	수도권	414	22.7	15.5	5.6	9.2	4.6	6	0.7	23.4
	비수도권	280	30.7	7.9	2.1	10	5	4.6	0.7	30.7
교급	학부과정	370	26.8	12.7	0.8	11.1	3.8	4.9	0.3	33
	석·박사 과정	237	27.4	13.5	10.1	8.9	7.2	4.6	0.8	21.1
	기타(어학연수 등)	87	18.4	8	2.3	4.6	2.3	10.3	2.3	12.6

유학생할 중 느끼는 어려움을 묻는 문항 중 ‘학교 공부’는 전체 43.1%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들 간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교공부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부 과정이 4.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석·박사 과정이 4.2%, 기타(어학연수 등) 학생 2.3%로 교급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11 유학생할 중 어려움 - 학교 공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	…………〉		매우 어렵다	
전체	694	4.3	2.9	5.9	43.1	30	9.5	4.3	
지역	수도권	414	3.4	3.4	5.6	43.5	29.7	10.6	3.9
	비수도권	280	5.7	2.1	6.4	42.5	30.4	7.9	5.0
교급	학부과정	370	3.5	1.1	7.0	41.9	31.4	10.3	4.9
	석·박사과정	237	4.6	5.5	5.1	38.8	32.1	9.7	4.2
	기타(어학연수 등)	87	6.9	3.4	3.4	59.8	18.4	5.7	2.3

유학생활 중 느끼는 어려움을 묻는 문항 중 ‘한국인 동료/ 선후배와의 관계’는 전체 37.9%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한국인 동료 및 선후배와의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수도권외의 경우 7.7%가 ‘매우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비수도권의 경우 5.7%가 응답하였다. 반면, ‘전혀 어렵지 않음’의 경우 수도권이 5.3%, 비수도권이 7.5%로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학부 과정의 경우 ‘한국인 동료/ 선후배와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에 ‘매우 어렵다’가 8.4%로 나타난 반면, 석박사 과정의 경우 6.8%, 기타(어학연수 등) 학생의 경우 1.1%로 ‘한국인 동료 및 선후배와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교급별 차이를 보였다.

표 4-12 유학생활 중 어려움 - 한국인 동료/ 선후배와의 관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		매우 어렵다
전체		694	6.2	7.1	9.5	37.9	20.2	12.2	6.9
지역	수도권	414	5.3	6.3	9.7	37.7	21.3	12.1	7.7
	비수도권	280	7.5	8.2	9.3	38.2	18.6	12.5	5.7
교급	학부과정	370	5.4	4.3	8.6	40	20	13.2	8.4
	석·박사과정	237	7.2	10.5	8.9	35	20.3	11.4	6.8
	기타(어학연수 등)	87	6.9	9.2	14.9	36.8	20.7	10.3	1.1

유학생활 중 느끼는 어려움을 묻는 문항 중 ‘중국인 동료/ 선후배와의 관계’에 29.8%가 ‘전혀 어렵지 않음’이라고 응답함. 지역별 및 교급별 간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4-13 유학생할 중 어려움 - 중국인 동료/ 선후배와의 관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	……………〉		매우 어렵다	
전체	694	29.8	17.1	15.6	26.1	8.1	2	1.3	
지역	수도권	414	27.8	17.1	16.7	26.6	8.7	1.9	1.2
	비수도권	280	32.9	17.1	13.9	25.4	7.1	2.1	1.4
교급	학부과정	370	31.1	16.8	14.3	25.4	7.8	2.7	1.9
	석·박사과정	237	28.3	21.9	16	22.8	9.3	0.8	0.8
	기타(어학연수 등)	87	28.7	5.7	19.5	37.9	5.7	2.3	0

유학생할 중 느끼는 어려움을 묻는 문항 중 ‘조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46.8%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혀 어렵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1.8%로 수도권의 8.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부과정과 기타(어학연수 등) 학생들은 ‘보통’에 응답한 비율이 51.1%, 58.6%인 반면, 석·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보통’에 응답한 비율이 35.9%로 나타났다.

표 4-14 유학생할 중 어려움 - 조교와의 관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	……………〉		매우 어렵다	
전체	694	9.8	11.5	12.4	46.8	12	4.9	2.6	
지역	수도권	414	8.5	10.1	13	49	12.1	4.3	2.9
	비수도권	280	11.8	13.6	11.4	43.6	11.8	5.7	2.1
교급	학부과정	370	8.6	9.5	11.4	51.1	11.9	4.9	2.7
	석·박사과정	237	11	14.3	15.2	35.9	14.3	6.3	3
	기타(어학연수 등)	87	11.5	12.6	9.2	58.6	5.7	1.1	1.1

유학생할 중 느끼는 어려움을 묻는 문항 중 ‘교수/강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39.9%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수도권 경우 ‘전혀 어렵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5%로 비수도권의 12.1%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학부과정과 기타(어학연수 등) 학생들은 ‘보통’에 응답한 비율이 47%, 41.4%인 반면, 석·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보통’에 응답한 비율이 28.3%, ‘매우 어려움’에 석·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4.2%가 응답하였지만, 학부과정과 기타(어학연수 등)은 각각 2.7%, 1.1%로 교급별 응답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 4-15 유학생할 중 어려움 - 교수/강사와의 관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	……………〉		매우 어렵다
전체		694	9.4	9.9	14.6	39.9	17.3	5.9	3.0
지역	수도권	414	7.5	9.2	15.5	38.9	19.8	5.6	3.6
	비수도권	280	12.1	11.1	13.2	41.4	13.6	6.4	2.1
교급	학부과정	370	7.0	5.9	13.2	47	17	7.0	2.7
	석·박사과정	237	8.9	16.0	16.9	28.3	21.1	4.6	4.2
	기타(어학연수 등)	87	20.7	10.3	13.8	41.4	8.0	4.6	1.1

유학생할 중 느끼는 어려움을 묻는 문항 중 ‘교내 유학생 담당직원과의 관계’에 48.4%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지역별 및 교급별 간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4-16 유학생할 중 어려움 - 교내 유학생 담당직원과의 관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	……………〉		매우 어렵다	
전체	694	14	10.5	11.8	48.4	11	2.9	1.4	
지역	수도권	414	11.6	9.2	12.3	51.2	12.1	2.7	1
	비수도권	280	17.5	12.5	11.1	44.3	9.3	3.2	2.1
교급	학부과정	370	13.8	10	10.3	50.8	9.7	3.8	1.6
	석·박사과정	237	13.1	12.2	15.2	41.8	13.9	2.1	1.7
	기타(어학연수 등)	87	17.2	8	9.2	56.3	8	1.1	0

유학생할 중 느끼는 어려움을 묻는 문항 중 '학비 조달 문제'에 29.3%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수도권의 경우 '매우 어려움'에 응답한 비율이 11.6%로 비수도권의 7.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석·박사과정의 경우 '매우 어려움'에 응답한 비율이 11.8%로 나타났고, 학부과정과 기타(어학연수 등)의 경우 각각 9.2%로 조사되었다.

표 4-17 유학생할 중 어려움 - 학비 조달 문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	……………〉		매우 어렵다	
전체	694	9.5	4.9	7.3	29.3	22.9	16	10.1	
지역	수도권	414	8.5	4.1	7.7	27.3	25.6	15.2	11.6
	비수도권	280	11.1	6.1	6.8	32.1	18.9	17.1	7.9
교급	학부과정	370	10.3	4.3	6.2	30	23.2	16.8	9.2
	석·박사과정	237	8	4.6	8.9	28.3	22.4	16	11.8
	기타(어학연수 등)	87	10.3	8	8	28.7	23	12.6	9.2

유학생할 중 느끼는 어려움을 묻는 문항 중 '생활비 또는 주거비'에 29.5%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수도권의 경우 '매우 어려움'에 응답

한 비율이 10.6%로 비수도권의 9.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석·박사과정의 경우 '매우 어려움'에 응답한 비율이 11.8%로 나타났고, 학부과정과 기타(어학연수 등)의 경우 각각 9.2%와 10.3%로 조사되었다.

표 4-18 유학생할 중 어려움 - 생활비 또는 주거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	……………〉		매우 어렵다	
			4.2	6.9		26.1	15.7		
전체	694	7.3	4.2	6.9	29.5	26.1	15.7	10.2	
지역	수도권	414	6.3	3.1	6.8	28.3	28	16.9	10.6
	비수도권	280	8.9	5.7	7.1	31.4	23.2	13.9	9.6
교급	학부과정	370	7.6	3.8	6.8	29.7	28.6	14.3	9.2
	석·박사과정	237	6.3	4.2	7.2	30.8	22.8	16.9	11.8
	기타(어학연수 등)	87	9.2	5.7	6.9	25.3	24.1	18.4	10.3

유학생할 중 느끼는 어려움을 묻는 문항 중 '한국어'에 31.7%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수도권은 경우 '매우 어려움'에 응답한 비율이 2.4%이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3.6%로 나타났다. 유학생할시 한국어가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응답에 석·박사과정의 경우 18.6%로 나타난 반면, 학부과정의 경우 9.2%, 기타(어학연수 등)의 경우 8.0%로 응답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9 유학생생활 중 어려움 - 한국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	……………〉		매우 어렵다	
전체	694	12.2	12.2	13.1	31.7	19.6	8.2	2.9	
지역	수도권	414	13.8	12.8	11.4	28.5	23.4	7.7	2.4
	비수도권	280	10	11.4	15.7	36.4	13.9	8.9	3.6
교급	학부과정	370	9.2	9.5	13.5	36.8	19.7	8.1	3.2
	석·박사과정	237	18.6	17.3	14.3	21.9	18.6	6.8	2.5
	기타(어학연수 등)	87	8	10.3	8	36.8	21.8	12.6	2.3

유학생생활 중 느끼는 어려움을 묻는 문항 중 '영어'에 34.1%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수도권의 경우 '매우 어려움'에 응답한 비율이 9.4%이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13.2%로 높게 나타났다. 유학생생활 시 영어가 '매우 어렵다'라는 응답에 석·박사과정의 경우 8.9%로 나타난 반면, 학부과정의 경우 12.4%, 기타(어학연수 등)의 경우 10.3%로 조사되었다.

표 4-20 유학생생활 중 어려움 - 영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	……………〉		매우 어렵다	
전체	694	5.9	6.5	11.5	34.1	19.3	11.7	11	
지역	수도권	414	7	7.2	10.9	31.9	21	12.6	9.4
	비수도권	280	4.3	5.4	12.5	37.5	16.8	10.4	13.2
교급	학부과정	370	5.7	4.6	11.4	35.4	19.2	11.4	12.4
	석·박사과정	237	5.5	9.7	12.2	31.2	20.3	12.2	8.9
	기타(어학연수 등)	87	8	5.7	10.3	36.8	17.2	11.5	10.3

유학생활 중 느끼는 어려움을 묻는 문항 중 ‘음식’에 32.3%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전혀 어렵지 않다’가 21.6%로 나타났다. 지역별, 교급별 간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1 유학생활 중 어려움 - 음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	……………〉		매우 어렵다	
			11.1	12		13.1	6.8		
전체	694	21.6	11.1	12	32.3	13.1	6.8	3.2	
지역	수도권	414	22.2	10.6	13	32.4	13.5	5.3	2.9
	비수도권	280	20.7	11.8	10.4	32.1	12.5	8.9	3.6
교급	학부과정	370	17.8	12.2	11.4	36.2	12.7	6.2	3.5
	석·박사과정	237	27.4	10.5	12.7	24.9	13.9	8.4	2.1
	기타(어학연수 등)	87	21.8	8	12.6	35.6	12.6	4.6	4.6

유학생활 중 느끼는 어려움을 묻는 문항 중 ‘외로움’에 33%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지역별, 교급별 간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22 유학생활 중 어려움 - 외로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	……………〉		매우 어렵다	
			11.2	12.7		16.7	8.5		
전체	694	12.8	11.2	12.7	33	16.7	8.5	5	
지역	수도권	414	12.6	11.4	12.6	33.1	16.4	9.2	4.8
	비수도권	280	13.2	11.1	12.9	32.9	17.1	7.5	5.4
교급	학부과정	370	13.8	11.6	13.8	33.5	15.7	5.7	5.9
	석·박사과정	237	10.5	10.1	13.5	31.6	16.5	13.1	4.6
	기타(어학연수 등)	87	14.9	12.6	5.7	34.5	21.8	8	2.3

유학생할 중 느끼는 어려움을 묻는 문항 중 ‘가족, 연인, 친구에 대한 그리움’에 33.4%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수도권외의 경우 ‘매우 어려움’에 응답한 비율이 5.6%이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7.9%로 높게 나타났다. 유학생할 시 가족, 연인,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응답에 학부과정의 경우 10.3%인 반면, 석·박사과정의 경우 7.2%로 나타났다.

표 4-23 유학생할 중 어려움 - 가족, 연인, 친구에 대한 그리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	……………〉		매우 어렵다
전 체		694	8.9	11.5	12.1	33.4	18	9.5	6.5
지역	수도권	414	8.5	12.1	10.9	35.5	17.9	9.7	5.6
	비수도권	280	9.6	10.7	13.9	30.4	18.2	9.3	7.9
교급	학부과정	370	10.3	11.4	12.7	35.1	15.4	8.4	6.8
	석·박사과정	237	7.2	11.4	13.9	28.3	19.8	12.7	6.8
	기타(어학연수 등)	87	8	12.6	4.6	40.2	24.1	5.7	4.6

유학생할 중 느끼는 어려움을 묻는 문항 중 ‘신체적 건강’에 30%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들 간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신체적 건강에 대한 어려움이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응답에 학부과정의 경우 23.5%, 기타(어학연수 등)의 경우 21.8%인 반면, 석·박사과정의 경우 16.5%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4 유학생할 중 어려움 - 신체적 건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	……………〉		매우 어렵다	
전체	694	20.9	16.3	13	30	9.8	6.9	3.2	
지역	수도권	414	18.1	16.2	13	29.2	13	6.8	3.6
	비수도권	280	15	16.4	12.9	31.1	5	7.1	2.5
교급	학부과정	370	23.5	15.4	15.1	27.8	8.6	6.2	3.2
	석·박사과정	237	16.5	17.7	11	32.1	10.5	9.3	3
	기타(어학연수 등)	87	21.8	16.1	9.2	33.3	12.6	3.4	3.4

유학생할 중 느끼는 어려움을 묻는 문항 중 '한국사회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 35.9%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들 간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부과정의 경우 '매우 어렵다'라는 응답률이 6.8%, 석·박사과정의 경우 4.2%, 기타(어학연수 등)의 경우 0%로 응답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 4-25 유학생할 중 어려움 - 한국사회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	……………〉		매우 어렵다	
전체	694	7.2	11.7	12.8	35.9	20	7.3	5	
지역	수도권	414	6.3	10.9	13	38.2	20.5	7	4.1
	비수도권	280	8.6	12.9	12.5	32.5	19.3	7.9	6.4
교급	학부과정	370	6.8	11.4	11.9	34.1	20.5	8.6	6.8
	석·박사과정	237	6.3	11.4	15.6	35	20.7	6.8	4.2
	기타(어학연수 등)	87	11.5	13.8	9.2	46	16.1	3.4	0

유학생할 중 느끼는 어려움을 묻는 문항 중 '취업/창업 관련 정보의 제약'에 대해 33.4%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수도권의 경우 '매우 어렵

다'는 응답이 13.3%, 비수도권의 경우 16.8%로 비수도권 학생들이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학부과정의 경우 '매우 어렵다'라는 응답률이 17%로 가장 높고, 석·박사과정의 경우 12.2%, 기타(어학연수 등)의 경우 11.5%로 응답 차이가 나타났다.

표 4-26 유학생할 중 어려움 - 취업/창업 관련 정보의 제약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	……………〉		매우 어렵다	
			3.7	5.5		22.8	17.3		
전체	694	2.6	3.7	5.5	33.4	22.8	17.3	14.7	
지역	수도권	414	2.4	3.4	6.5	34.5	22.9	16.9	13.3
	비수도권	280	2.9	4.3	3.9	31.8	22.5	17.9	16.8
교급	학부과정	370	2.4	2.7	5.4	35.7	23	13.8	17
	석·박사과정	237	2.5	5.9	5.5	24.1	25.3	24.5	12.2
	기타(어학연수 등)	87	3.4	2.3	5.7	49.4	14.9	12.6	11.5

유학생할 중 느끼는 어려움을 묻는 문항 중 '진학 관련 정보의 제약'에 대해 40.3%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수도권은 '매우 어렵다'는 응답이 8.2%, 비수도권의 경우 8.6%로 비수도권 학생들이 '진학 관련 정보의 제약'에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학부과정의 경우 '매우 어렵다'라는 응답률이 1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석·박사과정의 경우 5.1%, 기타(어학연수 등)의 경우 4.6%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4-27 유학생할 중 어려움 - 진학 관련 정보의 제약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	……………〉		매우 어렵다	
전체	694	5	6.6	7.3	40.3	20.2	12.1	8.4	
지역	수도권	414	4.8	6.5	7	43	19.1	11.4	8.2
	비수도권	280	5.4	6.8	7.9	36.4	21.8	13.2	8.6
교급	학부과정	370	3.2	4.6	7.3	41.6	21.6	10.3	11.4
	석·박사과정	237	7.6	10.5	7.6	36.3	18.1	14.8	5.1
	기타(어학연수 등)	87	5.7	4.6	6.9	46	19.5	12.6	4.6

유학생할 중 느끼는 어려움을 묻는 문항 중 ‘한국 일상생활 관련 정보의 제약’에 대해 37.9%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수도권의 경우 ‘매우 어렵다’는 응답이 5.3%, 비수도권의 경우 6.8%로 비수도권 학생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학부과정의 경우 ‘매우 어렵다’라는 응답률이 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석·박사과정의 경우 4.2%, 기타(어학연수 등)의 경우 2.3%로 응답 차이가 나타났다.

표 4-28 유학생할 중 어려움 - 한국 일상생활 관련 정보의 제약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	……………〉		매우 어렵다	
전체	694	5.6	9.4	9.9	37.9	21.2	10.1	5.9	
지역	수도권	414	6	9.4	10.6	34.8	23.9	9.9	5.3
	비수도권	280	5	9.3	8.9	42.5	17.1	10.4	6.8
교급	학부과정	370	5.4	8.4	9.7	40	18.6	10	7.8
	석·박사과정	237	5.9	12.7	10.1	30	25.3	11.8	4.2
	기타(어학연수 등)	87	5.7	4.6	10.3	50.6	20.7	5.7	2.3

유학생할 중 느끼는 어려움을 묻는 문항 중 ‘학업 관련 정보의 제약’에 대해 36%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수도권외의 경우 ‘매우 어렵다’는 응답이 4.1%, 비수도권의 경우 6.1%로 비수도권 학생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학부과정의 경우 ‘매우 어렵다’라는 응답률이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석·박사과정의 경우 3.8%, 기타(어학연수 등)의 경우 2.3%로 조사되었다.

표 4-29 유학생할 중 어려움 - 학업 관련 정보의 제약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	……………〉		매우 어렵다
전 체		694	8.6	9.8	12.2	36	19.6	8.8	4.9
지역	수도권	414	9.4	8.7	12.8	34.5	20.8	9.7	4.1
	비수도권	280	7.5	11.4	11.4	38.2	17.9	7.5	6.1
교급	학부과정	370	7.3	8.6	10	39.5	18.1	10.3	6.2
	석·박사과정	237	11	12.2	15.2	28.7	21.9	7.2	3.8
	기타(어학연수 등)	87	8	8	13.8	41.4	19.5	6.9	2.3

유학생할 중 느끼는 어려움을 묻는 문항 중 ‘아르바이트 구하기’에 대해 35.6%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수도권외의 경우 ‘매우 어렵다’는 응답이 6.8%인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10.7%로 비수도권 학생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학부과정의 경우 ‘매우 어렵다’라는 응답률이 1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석·박사과정의 경우 5.9%, 기타(어학연수 등)의 경우 4.6%로 응답 차이가 나타났다.

표 4-30 유학생할 중 어려움 - 아르바이트 구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	……………〉		매우 어렵다	
전체	694	5	7.1	12.1	35.6	20.3	11.5	8.4	
지역	수도권	414	5.6	5.8	12.6	34.8	22.7	11.8	6.8
	비수도권	280	4.3	8.9	11.4	36.8	16.8	11.1	10.7
교급	학부과정	370	4.9	5.9	12.2	31.6	21.1	13.5	10.8
	석·박사과정	237	5.1	9.7	11.8	40.5	19.4	7.6	5.9
	기타(어학연수 등)	87	5.7	4.6	12.6	39.1	19.5	13.8	4.6

유학생할 중 느끼는 어려움을 묻는 문항 중 ‘비자발급 및 갱신’에 대해 38.9%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지역 및 교급별 학생들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1 유학생할 중 어려움 - 비자발급 및 갱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	……………〉		매우 어렵다	
전체	694	11.2	8.2	12.2	38.9	16	7.5	5.9	
지역	수도권	414	10.1	8	11.4	39.9	15	9.4	6.3
	비수도권	280	12.9	8.6	13.6	37.5	17.5	4.6	5.4
교급	학부과정	370	12.4	6.5	13.2	40	16.8	4.6	6.5
	석·박사과정	237	10.1	11.8	13.1	35	13.9	10.1	5.9
	기타(어학연수 등)	87	9.2	5.7	5.7	44.8	18.4	12.6	3.4

유학생할 중 느끼는 어려움을 묻는 문항 중 ‘취업/창업 지원의 부족’에 대해 36%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교급별로는 학부과정의 경우 ‘매우 어렵다’라는 응답률이 1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석·박사과정의 경우 11%, 기타(어학연수 등)의 경우 10.3%로 응답 차이가 나타났다.

표 4-32 유학생할 중 어려움 - 취업/창업 자원의 부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	……………〉		매우 어렵다	
			3.9	6.9		21.9	14.8		
전체	694	2.9	3.9	6.9	36	21.9	14.8	13.5	
지역	수도권	414	2.4	4.1	6.8	36	22.9	15.6	12.3
	비수도권	280	3.6	3.6	7.1	36.1	20.4	13.9	15.4
교급	학부과정	370	2.7	2.7	7.0	39.2	20.3	12.2	15.9
	석·박사과정	237	3.0	5.1	6.3	30.4	26.2	18.1	11.0
	기타(어학연수 등)	87	3.4	5.7	8.0	37.9	17.2	17.2	10.3

‘유학생할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7점 만점 기준 전체 평균은 3.98점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평균치가 4점으로 비수도권의 3.93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부학생 및 석·박사 학생의 경우 평균치 각각 4.03점 와 3.93점으로 기타 어학생의 3.87점에 비해 더 높았다.

표 4-33 한국의 유학생할에서 느끼는 어려움 (전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어려움 느끼는 정도	전체	694	3.98	0.85	
	지역	수도권	414	4.00	0.83
		비수도권	280	3.93	0.87
	교급	학부과정	370	4.03	0.84
		석·박사과정	237	3.93	0.86
		기타(어학연수 등)	87	3.87	0.85

한국에서 유학생할에 있어서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취업/창업 관련 정보의 제약’이 7점 만점 기준 4.81점으로 유학생할에서 느끼는 가

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취업/창업 지원의 부족’과 ‘생활비 또는 주거비’가 각각 7점 만점 기준 4.69점, 4.51점이며 2순위, 3순위로 나타났다. ‘중국인 동료/선후배와의 관계’가 7점 만점 기준 2.77점으로 마지막 22순위로 조사되었다.

표 4-34 한국에서 유학생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 (순위)

문항	평균	표준편차	(단위: 명, %)
			순위
취업/창업 관련 정보의 제약	4.81	1.43	1순위
취업/창업 지원의 부족	4.69	1.43	2순위
생활비 또는 주거비	4.51	1.57	3순위
학비 조달 문제	4.39	1.66	4순위
학교공부	4.37	1.22	5순위
진학 관련 정보의 제약	4.34	1.46	6순위
영어	4.33	1.56	7순위
아르바이트구하기	4.27	1.48	8순위
한국인 동료/선후배와의 관계	4.23	1.48	9순위
한국 일상생활 관련 정보의 제약	4.14	1.45	10순위
가족, 언어, 친구에 대한 그리움	3.95	1.59	11순위
학업 관련 정보의 제약	3.94	1.51	12순위
한국사회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	3.92	1.48	13순위
비자발급 및 갱신	3.86	1.56	14순위
교수/강사와의 관계	3.76	1.42	15순위
외로움	3.75	1.62	16순위
한국어	3.70	1.56	17순위
조교와의 관계	3.65	1.38	18순위
교내 유학생 담당직원과의 관계	3.46	1.37	19순위
음식	3.37	1.68	20순위
신체적 건강	3.25	1.66	21순위
중국인 동료/선후배와의 관계	2.77	1.51	22순위

한국 유학을 결심한 이유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1+2순위 16.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1+2순위 14.5%), ‘한국유학이 중국에서의 취업/창업에 유리해서’(1+2순위 10.8%)가 높게 나타났다. 1순위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가 18.0%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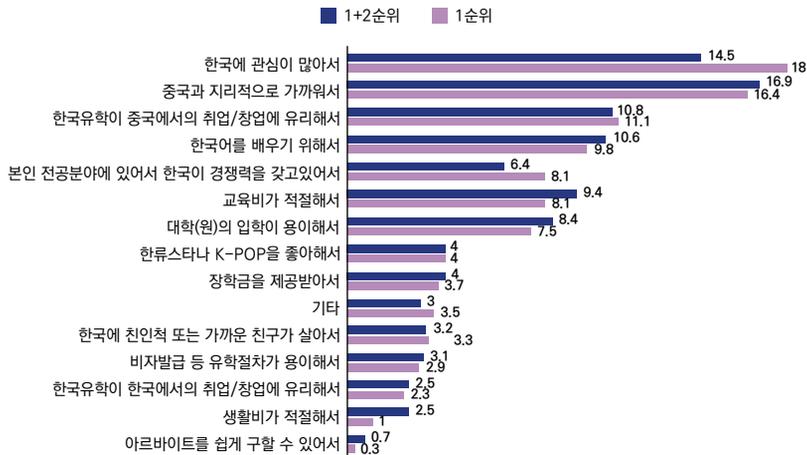
표 4-35 한국 유학을 결심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1순위		1+2순위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694	100.0	1385	100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125	18	201	14.5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114	16.4	234	16.9
한국유학이 중국에서의 취업/창업에 유리해서	77	11.1	150	10.8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68	9.8	147	10.6
교육비가 적절해서	56	8.1	130	9.4
본인 전공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56	8.1	89	6.4
대학(원)의 입학이 용이 해서	52	7.5	116	8.4
한류스타나 K-POP을 좋아해서	28	4	55	4
장학금을 제공 받아서	26	3.7	56	4
기타	24	3.5	41	3
한국에 친인척 또는 가까운 친구가 살아서	23	3.3	45	3.2
비자발급 등 유학절차가 용이해서	20	2.9	43	3.1
한국유학이 한국에서의 취업/창업에 유리해서	16	2.3	34	2.5
생활비가 적절해서	7	1	34	2.5
아르바이트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2	0.3	10	0.7

* 1+2순위는 복수응답으로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그림 4-2 한국 유학을 결심한 이유



TOPIK 급수 혹은 어학당에서 받은 레벨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TOPIK 급수 있다는 학생이 83.9%로 높게 나타났다. TOPIK 급수 혹은 어학당에서 받은 레벨이 다 없는 학생은 5.0%만 나타났다. 이어서 수도권 TOPIK 있는 학생은 87.0%로 비수도권 TOPIK 있는 학생 79.3%에 비해 높았다.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수도권 학생(4.3%)이 가장 낮았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TOPIK 급수 혹은 어학당에서 받은 레벨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 석·박사 학생이 3.8%로 가장 낮았다.

표 4-36 TOPIK 급수 및 어학당 한국어 레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TOPIK		없는 경우>	어학당 레벨		
		예 (%)	아님 (%)		예 (%)	아님 (%)	
전체	694	582 (83.9)	112 (16.1)>	77 (11.1)	35 (5.0)	
지역	수도권	414	360 (87.0)	54 (13.0)>	36 (8.7)	18 (4.3)
	비수도권	280	222 (79.3)	58 (20.7)>	41 (14.6)	17 (6.1)
교급	학부과정	370	307 (83.0)	63 (17.0)>	41 (11.1)	22 (5.9)
	석·박사과정	237	222 (93.7)	15 (6.3)>	6 (2.5)	9 (3.8)
	기타(어학연수 등)	87	53 (60.9)	34 (39.1)>	30 (34.5)	4 (4.6)

한국어강의 수업이해정도를 살펴본 결과 ‘60~80% 미만’이라는 의견이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수도권 학생은 ‘60~80% 미만’인 32.9%에 비해 수도권 학생은 ‘80% 이상’(33.8%) 가장 높았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석·박사 학생은 ‘80% 이상’은 43.9%로 가장 높았다.

표 4-37 한국어 강의 수업 이해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 이상	한국어 강의 수강 경험 없음	
		(%)	(%)	(%)	(%)	(%)		
전체	694	20	67	171	221	203	12	
지역	수도권	414	2.4	7.5	23.2	31.2	33.8	1.9
	비수도권	280	3.6	12.9	26.8	32.9	22.5	1.4
교급	학부과정	370	3.0	14.1	31.9	31.6	19.2	0.3
	석·박사과정	237	3.4	5.5	14.8	30.4	43.9	2.1
	기타(어학연수 등)	87	1.1	2.3	20.7	36.8	32.2	6.9

영어강의 수업 이해정도를 살펴본 결과 ‘40~60% 미만’라는 의견이 22.2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학생에 비해 비수도권 학생은 60% 이하(20%미만+20%~40%미만+0~60% 미만)가 61.1%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석·박사 학생과 기타학생에 비해 학부학생은 60% 이하(20%미만+20%~40%미만+40~60% 미만)가 65.9%로 높았다.

표 4-38 영어 강의 수업 이해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20% 미만	20-40 %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 이상	영어강의 수강경험 없음	
전체	694	17.3	19.0	22.2	15.1	11.0	15.4	
지역	수도권	414	15.2	18.4	23.2	16.7	12.8	13.8
	비수도권	280	20.4	20.0	20.7	12.9	8.2	17.9
교급	학부과정	370	20.5	23.2	22.2	11.4	9.2	13.5
	석·박사과정	237	12.7	15.2	23.6	20.7	14.3	13.5
	기타(어학연수 등)	87	16.1	11.5	18.4	16.1	9.2	28.7

한국에서 학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나의 한국어 능력 부족’ (1+2순위 31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나의선행/기초학습부족’(1+2순위 19.1%), ‘전공특성상 수업내용이 너무 어려워서’(1+2순위 12.7%)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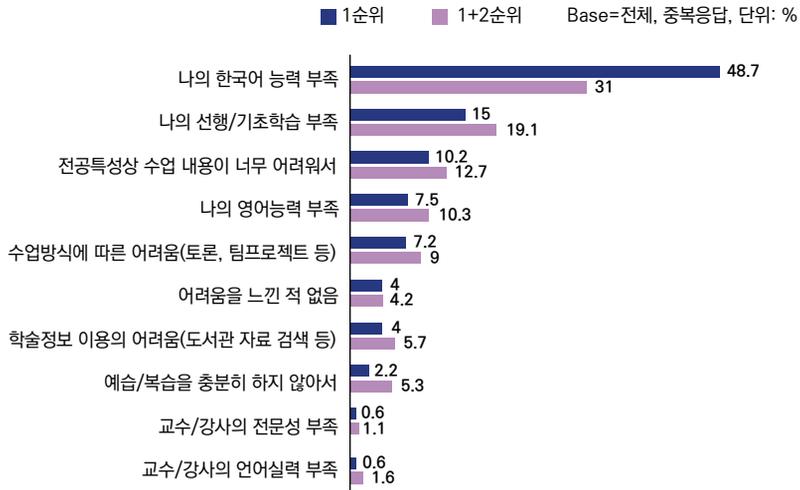
표 4-39 한국에서 학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

(단위: 명, %)

구분	1순위		1+2순위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694	100.0	1385	100
교수/강사의 언어실력 부족	4	0.6	22	1.6
교수/강사의 전문성 부족	4	0.6	15	1.1
예습/복습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15	2.2	74	5.3
학술 정보이용의 어려움(도서관 자료 검색 등)	28	4	79	5.7
어려움을 느낀적 없음	28	4	58	4.2
수업방식에 따른 어려움(토론, 팀프로젝트 등)	50	7.2	124	9
나의 영어 능력 부족	52	7.5	143	10.3
전공 특성 상 수업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71	10.2	176	12.7
나의 선행/기초학습 부족	104	15	264	19.1
나의 한국어 능력 부족	338	48.7	430	31

* 1+2순위는 복수응답으로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그림 4-3 한국에서 학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



‘같은 학교의 교수/강사’와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보통이다’가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과 교급별 학생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40 학교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같은 학교의 교수/강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자주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자주하는 편이다	매우 자주하는 편이다	
전체	694	14.7	26.1	47.3	10.5	1.4	
지역	수도권	414	13.8	28.0	45.9	11.4	1.0
	비수도권	280	16.1	23.2	49.3	9.3	2.1
교급	학부과정	370	19.5	29.2	44.3	5.9	1.1
	석·박사과정	237	7.6	23.6	48.1	18.6	2.1
	기타(어학연수 등)	87	13.8	19.5	57.5	8.0	1.1

‘같은 학교의 한국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면 ‘보통이다’와 ‘자주 하지 않는 편이다’가 각각 42.9%, 25.2%로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 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석·박사과정의 경우 ‘매우 자주하는 편이다’가 5.1%로 나타났으나, 학부과정과 기타(어학연수 등)은 각각 1.9%, 0%로 나타났다.

표 4-41 학교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같은 학교의 한국 학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자주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자주하는 편이다	매우 자주하는 편이다
전체		694	17.0	25.2	42.9	12.1	2.7
지역	수도권	414	16.9	24.9	43.7	12.3	2.2
	비수도권	280	17.1	25.7	41.8	11.8	3.6
교급	학부과정	370	16.5	27.8	43.0	10.8	1.9
	석·박사과정	237	15.6	22.4	40.5	16.5	5.1
	기타(어학연수 등)	87	23.0	21.8	49.4	5.7	0.0

‘같은 학교의 중국인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면 ‘자주하는 편이다’가 41.4 %로 조사되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 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부과정의 경우 ‘매우 자주하는 편이다’가 23.8%로 나타났으나, 석·박사과정과 기타(어학연수 등)은 각각 18.6%, 17.2%로 조사되었다.

표 4-42 학교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같은 학교의 중국인 학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자주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자주하는 편이다	매우 자주하는 편이다
전체		694	2.0	4.9	30.5	41.4	21.2
지역	수도권	414	1.7	4.8	30.4	42.0	21.0
	비수도권	280	2.5	5.0	30.7	40.4	21.4
교급	학부과정	370	1.6	4.1	30.8	39.7	23.8
	석·박사과정	237	3.0	6.3	29.5	42.6	18.6
	기타(어학연수 등)	87	1.1	4.6	32.2	44.8	17.2

‘같은 학교의 타국 유학생’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면 ‘보통이다’가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 및 교급별 학생 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

표 4-43 학교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같은 학교의 타국 유학생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자주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자주하는 편이다	매우 자주하는 편이다
전 체		694	16.0	22.6	45.8	13.7	1.9
지역	수도권	414	13.3	22.9	48.1	13.8	1.9
	비수도권	280	20.0	22.1	42.5	13.6	1.8
교급	학부과정	370	16.8	21.9	46.5	12.4	2.4
	석·박사과정	237	18.1	25.3	39.7	15.2	1.7
	기타(어학연수 등)	87	6.9	18.4	59.8	14.9	0.0

‘행정 및 국제업무 담당직원’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면 ‘보통이다’가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경우 ‘매우 자주하는 편이다’의 응답이 2.5%로 나타났으나, 수도권은 0.5%로 조사되었다. 교급별 학생 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4-44 학교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행정 및 국제 업무 담당직원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자주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자주하는 편이다	매우 자주하는 편이다
전 체		694	22.3	27.5	41.1	7.8	1.3
지역	수도권	414	24.2	28.3	40.3	6.8	0.5
	비수도권	280	19.6	26.4	42.1	9.3	2.5
교급	학부과정	370	23.2	25.1	42.2	7.8	1.6
	석·박사과정	237	20.7	35.4	35.4	7.2	1.3
	기타(어학연수 등)	87	23.0	16.1	51.7	9.2	0.0

‘학교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의 평균값은 5점 만점 기준 2.78점으로 ‘보통’ 이하로 나타남났다. 지역별과 교급별 학생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45 학교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전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학교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정도	전체	694	2.78	0.59	
	지역	수도권	414	2.78	0.57
		비수도권	280	2.79	0.62
	교급	학부과정	370	2.75	0.59
		석·박사과정	237	2.83	0.62
		기타(어학연수 등)	87	2.81	0.52

대학의 전반적인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만족한다(만족+매우만족)’라는 의견이 37.7%로 나타났고, ‘보통’이라는 의견이 54.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평균값은 5점 만점 기준 3.34점, 표준편차 0.74로 조사되었다.

표 4-46 학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대학의 전반적인 커리큘럼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표준편차
전체		694	1.6	6.1	54.6	32.1	5.6	3.34	0.74
지역	수도권	414	1.4	6.3	52.7	34.5	5.1	3.36	0.74
	비수도권	280	1.8	5.7	57.5	28.6	6.4	3.32	0.76
교급	학부과정	370	1.6	7.6	56.8	29.2	4.9	3.28	0.74
	석·박사과정	237	1.7	4.6	48.9	38.0	6.8	3.43	0.76
	기타(어학연수 등)	87	1.1	3.4	60.9	28.7	5.7	3.34	0.70

(단위: %, 점)

유학생에 대한 학사행정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만족한다(만족+매우만족)’라는 의견이 32.5%이다. ‘보통’이라는 의견이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남. 평균값은 5점 만점 기준 3.17점, 표준편차 0.85로 나타났다.

표 4-47 학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유학생에 대한 학사행정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표준 편차	
전체	694	3.9	12.4	51.2	27.5	5.0	3.17	0.85	
지역	수도권	414	4.6	14.7	53.4	22.9	4.3	3.08	0.85
	비수도권	280	2.9	8.9	47.9	34.3	6.1	3.32	0.83
교급	학부과정	370	4.9	13.2	47.6	28.9	5.4	3.17	0.90
	석·박사과정	237	3.0	12.2	53.6	26.6	4.6	3.18	0.81
	기타(어학연수 등)	87	2.3	9.2	59.8	24.1	4.6	3.20	0.76

유학생을 위한 비자 및 국제 업무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만족한다(만족+매우만족)’라는 의견이 37.4%로 나타남. ‘보통’이라는 의견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48 학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유학생을 위한 비자 및 국제 업무 지원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표준 편차	
전체	694	4.0	9.7	48.8	30.8	6.6	3.26	0.87	
지역	수도권	414	3.9	11.8	51.9	27.8	4.6	3.17	0.84
	비수도권	280	4.3	6.4	44.3	35.4	9.6	3.40	0.91
교급	학부과정	370	4.1	8.4	47.6	31.9	8.1	3.32	0.89
	석·박사과정	237	3.8	12.2	46.0	32.9	5.1	3.23	0.87
	기타(어학연수 등)	87	4.6	8.0	62.1	20.7	4.6	3.13	0.80

외국 학생을 위한 상담 및 고충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만족한다(만족+매우만족)’라는 의견이 36.4%, ‘보통’이라는 의견이 5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균값은 5점 만점 기준 3.26점, 표준편차 0.85로 나타났다.

표 4-49 학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외국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고충처리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표준 편차	
전체	694	3.5	9.9	50.1	30.1	6.3	3.26	0.85	
지역	수도권	414	3.1	12.8	53.6	25.8	4.6	3.16	0.82
	비수도권	280	3.9	5.7	45.0	36.4	8.9	3.41	0.88
교급	학부과정	370	4.1	8.9	45.9	34.1	7.0	3.31	0.88
	석·박사과정	237	3.4	10.5	54.0	26.6	5.5	3.20	0.83
	기타(어학연수 등)	87	1.1	12.6	57.5	23.0	5.7	3.20	0.78

교수의 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만족한다(만족+매우만족)’라는 의견이 49.1%로 높게 나타남. 평균값은 5점 만점 기준 3.51점, 표준편차 0.82로 나타났다.

표 4-50 학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교수의 강의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표준 편차	
전체	694	1.7	5.3	43.8	38.9	10.2	3.51	0.82	
지역	수도권	414	1.7	6.8	44.2	37.4	9.9	3.47	0.83
	비수도권	280	1.8	3.2	43.2	41.1	10.7	3.56	0.80
교급	학부과정	370	1.4	6.2	47.0	37.0	8.4	3.45	0.79
	석·박사과정	237	1.7	5.1	37.6	43.5	12.2	3.59	0.83
	기타(어학연수 등)	87	3.4	2.3	47.1	34.5	12.6	3.51	0.87

교수의 학생 지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만족한다(만족+매우 만족)’라는 의견이 47.1%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값은 5점 만점 기준 3.47점, 표준편차 0.84로 나타났다.

표 4-51 학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교수의 학생 지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표준 편차	
전체	694	2.3	5.9	44.7	37.0	10.1	3.47	0.84	
지역	수도권	414	2.9	6.3	45.9	35.7	9.2	3.42	0.85
	비수도권	280	1.4	5.4	42.9	38.9	11.4	3.54	0.82
교급	학부과정	370	1.1	6.5	48.4	35.4	8.6	3.44	0.79
	석·박사과정	237	4.2	4.6	36.3	40.9	13.9	3.56	0.94
	기타(어학연수 등)	87	2.3	6.9	51.7	33.3	5.7	3.33	0.79

학교의 기숙사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만족한다(만족+매우만족)’라는 의견이 36.3%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의견이 50.0%로 가장 높았다.

표 4-52 학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학교의 기숙사 운영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표준 편차	
전체	694	5.0	8.6	50.0	28.8	7.5	3.25	0.90	
지역	수도권	414	6.0	11.1	51.4	23.7	7.7	3.16	0.94
	비수도권	280	3.6	5.0	47.9	36.4	7.1	3.39	0.84
교급	학부과정	370	5.1	7.0	51.4	30.5	5.9	3.25	0.87
	석·박사과정	237	5.9	10.5	43.5	30.0	10.1	3.28	0.99
	기타(어학연수 등)	87	2.3	10.3	62.1	18.4	6.9	3.17	0.80

학교의 취업/창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만족한다(만족+매우만족)’라는 의견이 18.3%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의견이 59.1%로 가장 높았다.

표 4-53 학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학교의 취업/창업 지원 서비스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표준 편차
전체		694	6.5	16.1	59.1	15.1	3.2	2.92	0.83
지역	수도권	414	5.1	17.9	58.9	15.2	2.9	2.93	0.80
	비수도권	280	8.6	13.6	59.3	15.0	3.6	2.91	0.88
교급	학부과정	370	7.3	14.6	58.4	17.0	2.7	2.93	0.85
	석·박사과정	237	5.1	19.8	58.2	12.7	4.2	2.91	0.83
	기타(어학연수 등)	87	6.9	12.6	64.4	13.8	2.3	2.92	0.80

교내 한국어지원 서비스(리포트/논문 수정 등)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만족한다(만족+매우만족)’라는 의견이 20.9%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의견이 51.9%로 가장 높았다.

표 4-54 학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교내 한국어지원 서비스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표준 편차
전체		694	8.1	19.2	51.9	15.9	5.0	2.91	0.93
지역	수도권	414	7.5	21.0	53.9	13.0	4.6	2.86	0.90
	비수도권	280	8.9	16.4	48.9	20.0	5.7	2.97	0.98
교급	학부과정	370	8.9	17.3	50.8	17.8	5.1	2.93	0.95
	석·박사과정	237	8.0	24.5	48.5	13.9	5.1	2.84	0.94
	기타(어학연수 등)	87	4.6	12.6	65.5	12.6	4.6	3.00	0.79

교내 영어지원 서비스(리포트/논문수정 등)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만족한다(만족+매우만족)'라는 의견이 18.4%로 조사되었다. '보통'이라는 의견이 5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55 학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교내 영어지원 서비스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표준 편차
전체		694	5.9	18.4	57.2	14.7	3.7	2.92	0.84
지역	수도권	414	4.8	18.6	57.2	15.7	3.6	2.95	0.83
	비수도권	280	7.5	18.2	57.1	13.2	3.9	2.88	0.87
교급	학부과정	370	5.7	18.1	57.0	15.9	3.2	2.93	0.83
	석·박사과정	237	6.3	22.4	55.3	12.2	3.8	2.85	0.86
	기타(어학연수 등)	87	5.7	9.2	63.2	16.1	5.7	3.07	0.85

도서관(중국 DB구축 등) 및 사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만족한다(만족+매우만족)'라는 의견이 24.5%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의견이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과 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56 학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도서관(중국 DB구축 등) 및 사서 서비스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표준 편차
전체		694	7.2	18.0	50.3	18.3	6.2	2.98	0.95
지역	수도권	414	4.1	20.5	51.9	18.6	4.8	3.00	0.87
	비수도권	280	11.8	14.3	47.9	17.9	8.2	2.96	1.06
교급	학부과정	370	6.8	19.2	50.8	17.3	5.9	2.96	0.94
	석·박사과정	237	7.6	19.0	44.7	22.8	5.9	3.00	0.98
	기타(어학연수 등)	87	8.0	10.3	63.2	10.3	8.0	3.00	0.93

학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평균값은 5점 만점 기준 3.18점, 표준편차 0.60로 나타났다.

표 4-57 학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전체)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학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전 체	694	3.18	0.60	
	지역	수도권	414	3.14	0.57
		비수도권	280	3.24	0.64
	교급	학부과정	370	3.18	0.62
		석·박사과정	237	3.19	0.57
		기타(어학연수 등)	87	3.17	0.60

‘나는 공부를 밀리지 않고 잘해나가고 있다’에 대해 살펴본 결과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58 학업적 적응 -나는 공부를 밀리지 않고 잘해나가고 있다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전 체	694	3.0	3.2	6.8	50.0	23.1	10.8	3.2	
지역	수도권	414	1.9	3.9	6.8	50.2	21.3	12.3	3.6
	비수도권	280	4.6	2.1	6.8	49.6	29.7	8.6	2.5
교급	학부과정	370	4.3	3.5	7.6	54.9	19.5	7.8	2.4
	석·박사과정	237	0.4	3.4	4.2	42.2	28.3	17.3	4.2
	기타(어학연수 등)	87	4.6	1.1	10.3	50.6	24.1	5.7	3.4

‘나는 노력에 비해서는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에 대해 살펴본 결과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59 학업적 적응 -나는 노력에 비해서는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전체	694	7.8	9.7	14.1	41.5	18.4	5.2	3.3	
지역	수도권	414	6.0	9.7	14.3	43.0	18.1	5.3	3.6
	비수도권	280	10.4	9.6	13.9	39.3	18.9	5.0	2.9
교급	학부과정	370	5.7	5.9	13.8	41.4	22.7	6.2	4.3
	석·박사과정	237	11.0	15.2	15.2	39.2	13.9	4.2	1.3
	기타(어학연수 등)	87	8.0	10.3	12.6	48.3	12.6	3.4	4.6

‘나는 대학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의 질이나 양에 만족한다’에 대해 살펴본 결과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60 학업적 적응 -나는 대학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의 질이나 양에 만족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전체	694	1.0	3.2	5.8	40.9	25.6	14.6	8.9	
지역	수도권	414	1.2	3.9	5.6	42.3	24.6	15.0	7.5
	비수도권	280	0.7	2.1	6.1	38.9	27.1	13.9	11.1
교급	학부과정	370	1.6	2.7	6.8	44.3	24.9	11.4	8.4
	석·박사과정	237	0.4	3.8	4.2	32.9	28.7	19.4	10.5
	기타(어학연수 등)	87	0.0	3.4	5.7	48.3	20.7	14.9	6.9

‘나는 규칙적으로 강의에 출석한다’에 대해 살펴본 결과 ‘매우 그렇다’라는 의견이 4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61 학업적 적응 -나는 규칙적으로 강의에 출석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전체	694	0.1	0.6	2.0	16.0	12.8	18.7	49.7	
지역	수도권	414	0.2	0.2	1.7	15.5	12.6	20.5	49.3
	비수도권	280	0.0	1.1	2.5	16.8	13.2	16.1	50.4
교급	학부과정	370	0.0	1.1	2.4	17.6	12.7	18.4	47.8
	석·박사과정	237	0.0	0.0	0.8	11.4	11.0	18.1	58.6
	기타(어학연수 등)	87	1.1	0.0	3.4	21.8	18.4	21.8	33.3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대학에 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집에 있는 편이 낫겠다’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62 대학만족도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대학에 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집에 있는 편이 낫겠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전체	694	41.6	19.7	9.9	21.5	5.5	2.0	1.6	
지역	수도권	414	42.8	18.8	9.2	20.3	6.5	1.2	1.2
	비수도권	280	40.0	16.4	11.1	23.2	3.9	3.2	2.1
교급	학부과정	370	37.0	20.8	9.7	24.1	4.3	2.2	1.9
	석·박사과정	237	48.1	17.7	8.4	16.0	6.8	1.7	1.3
	기타(어학연수 등)	87	43.7	5.7	14.9	25.3	6.9	2.3	1.1

‘최근에 나는 대학을 옮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63 대학만족도 -최근에 나는 대학을 옮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전체	694	37.9	14.3	8.1	24.9	8.2	3.9	2.7	
지역	수도권	414	41.3	15.5	6.8	23.9	7.0	3.6	1.9
	비수도권	280	32.9	12.5	10.0	26.4	10.0	4.3	3.9
교급	학부과정	370	35.1	13.5	8.6	27.3	8.4	4.6	2.4
	석·박사과정	237	43.5	13.9	8.4	19.4	8.9	3.0	3.0
	기타(어학연수 등)	87	34.5	18.4	4.6	29.9	5.7	3.4	3.4

‘나는 휴학을 했다가 나중에 공부를 마칠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64 대학만족도 -나는 휴학을 했다가 나중에 공부를 마칠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전체	694	42.2	12.2	7.6	20.9	9.5	4.0	3.3	
지역	수도권	414	40.3	13.0	7.0	22.7	9.4	4.6	2.9
	비수도권	280	45.4	11.1	8.6	18.2	9.6	3.2	3.9
교급	학부과정	370	40.3	14.3	7.3	22.4	8.4	3.5	3.8
	석·박사과정	237	46.0	9.7	8.4	15.6	11.8	5.9	2.5
	기타(어학연수 등)	87	41.4	10.3	6.9	28.7	8.0	1.1	3.4

‘나는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에 대해 살펴본 결과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65 대학만족도 -나는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2.3	4.9		20.5	18.0		
전체	694	1.9	2.3	4.9	34.3	20.5	18.0	18.2	
지역	수도권	414	1.9	2.7	5.8	35.0	21.0	17.1	16.4
	비수도권	280	1.8	1.8	3.6	33.2	19.6	19.3	20.7
교급	학부과정	370	1.9	2.4	5.9	34.9	19.5	18.9	16.5
	석·박사과정	237	0.8	2.1	3.0	28.3	24.1	20.3	21.5
	기타(어학연수 등)	87	4.6	2.3	5.7	48.3	14.9	8.0	16.1

‘학업적 적응’에 대해 응답이 7점 만점 기준 평균 4.78점(0.82점)으로 ‘보통 이하’라고 응답하였다. ‘대학만족도’에 대해 응답이 7점 만점 기준 평균 5.27점(1.24점)으로 ‘보통 이상’이라 응답하였다.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유학생들은 학업적 적응과 대학만족도를 합한 전체 ‘대학생활적응’에 대하여 7점 만점 기준 평균 5.03점(0.90점)으로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4-66 대학생 생활 적응: 학업적 적응 및 대학만족도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학업적 적응	전체	694	4.78	0.82	
	지역	수도권	414	4.77	0.80
		비수도권	280	4.80	0.84
	교급	학부과정	370	4.63	0.78
		석·박사과정	237	5.06	0.79
		기타(어학연수 등)	87	4.64	0.85
대학 만족도	전체	694	5.27	1.24	
	지역	수도권	414	5.30	1.24
		비수도권	280	5.24	1.24
	교급	학부과정	370	5.21	1.24
		석·박사과정	237	5.43	1.26
		기타(어학연수 등)	87	5.13	1.18
전체 대학생활 적응	전체	694	5.03	0.90	
	지역	수도권	414	5.03	0.89
		비수도권	280	5.02	0.90
	교급	학부과정	370	4.92	0.87
		석·박사과정	237	5.24	0.89
		기타(어학연수 등)	87	4.89	0.90

한국 유학생들의 최근 1년 동안 정부, 기관, 기업,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694명 학생 중 52.3%가 장학금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응답자 중 비수도권(58.9%) 학생들이 수도권(47.8%) 학생에 비해 장학금을 많이 받았고, 석·박사 학생 64.1%로 학부 학생(53.0%)과 기타(어학연수 등)학생(17.2%)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4-67 최근 1년 간 정부, 기업, 학교 등으로부터의 장학금 수혜여부

(단위: 명, %)

		계		
		사례수	%	
			예	아니오
전 체		694	356(52.3)	338(47.7)
지역	수도권	414	195(47.8)	219(52.2)
	비수도권	280	161(58.9)	119(41.1)
교급	학부과정	370	192(53.0)	178(47.0)
	석·박사과정	237	149(64.1)	88(35.9)
	기타(어학연수 등)	87	15(17.2)	72(82.8)

한국 유학생들의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보호자)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694명 학생 중 79.1%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응답자 중 비수도권(82.1%) 학생들이 수도권(77.1%) 학생에 비해 경제적 지원을 받은 적이 높았고, 석·박사 학생 64.1%로 학부 학생(53.0%)과 기타(어학연수 등)학생(17.2%)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4-68 최근 1년 간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여부

(단위: 명, %)

		계		
		사례수	%	
			예	아니오
전 체		694	534(79.1)	160(20.9)
지역	수도권	414	311(77.1)	103(22.9)
	비수도권	280	223(82.1)	57(17.9)
교급	학부과정	370	317(53.0)	53(47.0)
	석·박사과정	237	148(64.1)	89(35.9)
	기타(어학연수 등)	87	69(17.2)	18(82.8)

3) 일/노동

최근 1년 간 직장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49.1%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47.1%)에 비해 비수도권(52.1%)의 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학부생(49.5%)과 기타학생(32.2%)에 비해 석·박사학생이 54.9%로 조사되었다.

표 4-69 최근 1년 간 직장 및 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명, %)

		계		
		사례수	%	
			예	아니오
전체		694	341(49.1)	353(50.9)
지역	수도권	414	195(47.1)	219(52.9)
	비수도권	280	146(52.1)	134(47.9)
교급	학부과정	370	183(49.5)	187(50.5)
	석·박사과정	237	130(54.9)	107(45.1)
	기타(어학연수 등)	75	28(32.2)	59(67.8)

가장 최근의 직장생활 또는 아르바이트에서 주당 평균 일한 시간에 대해 살펴본 결과 20.12시간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학부생(19.32시간)과 석·박사학생(20.36시간)에 비해 기타(어학연수 등)학생의 평균은 24.19시간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70 최근의 직장 또는 아르바이트에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48	20.12	14.16
지역	수도권	199	20.19	15.08
	비수도권	149	20.03	12.88
교급	학부과정	187	19.32	13.23
	석·박사과정	132	20.36	13.17
	기타(어학연수 등)	29	24.19	22.15

최근 1년 동안 직장생활 또는 아르바이트를 한 주된 이유는 ‘나의 생활비(용돈)를 벌기 위해’ (1+2순위 43.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1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등록금을 벌기 위하여’(61.0%), ‘나의 생활비(용돈)를 벌기 위해’가 14.5%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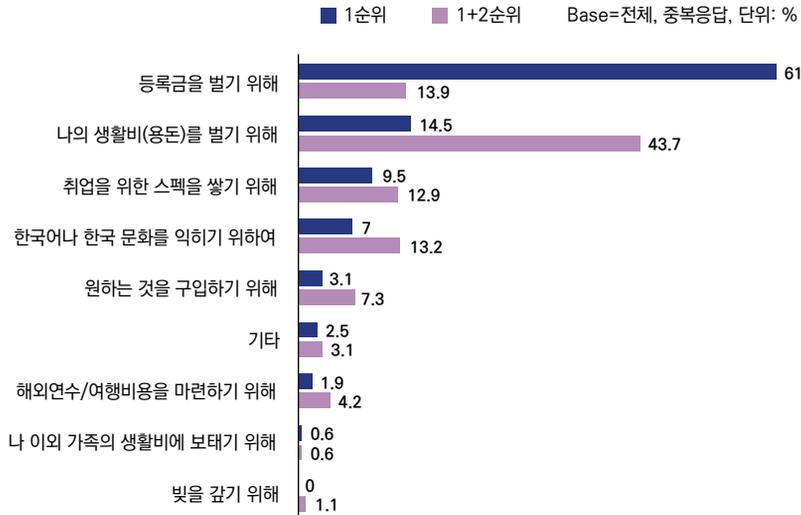
표 4-71 최근 1년 동안 직장생활 또는 아르바이트를 한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1순위		1+2순위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359	100	712	100
등록금을 벌기위해	52	61.0	99	13.9
나의 생활비(용돈)를 벌기 위해	219	14.5	311	43.7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34	9.5	92	12.9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익히기 위하여	25	7.0	94	13.2
원하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	11	3.1	52	7.3
기타	9	2.5	22	3.1
해외연수/여행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7	1.9	30	4.2
나 이외 가족의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2	0.6	4	0.6
빚을 갚기위해	0	0	8	1.1

* 1+2순위는 복수응답으로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그림 4-4 최근 1년 동안 직장생활 또는 아르바이트를 한 주된 이유



4) 진로

졸업 이후 한국 체류의향을 살펴보면 아직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유학기간이 끝나면 중국으로 바로 돌아가고 싶다고 답한 비율이 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한국에서 취업이나 사업을 하고 싶다고 답한 비율이 18.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수도권의 경우 유학기간이 끝나면 중국으로 바로 돌아가고 싶다고 답한 비율이 25.7%로 수도권의 19.8%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유학기간이 끝나면 중국으로 바로 돌아가고 싶다고 답한 비율이 석·박사과정, 학부과정, 기타(어학연수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72 졸업 이후 한국 체류 의향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유학기간이 끝나면 중국으로 바로 돌아가고 싶다	중국이나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가고 싶다	한국에서 취업이나 사업을 하고 싶다	한국에서 교육을 더 받고 싶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기타
전 체		694	22.2	9.1	18.9	10.5	38.0	1.3
지역	수도권	414	19.8	10.9	19.6	7.5	40.6	1.7
	비수도권	280	25.7	6.4	17.9	15.0	34.3	0.7
교급	학부과정	370	20.3	10.0	16.0	13.8	38.1	1.9
	석·박사과정	237	27.9	7.2	21.9	6.3	36.3	0.4
	기타(여학연수 등)	87	14.9	10.3	23.0	8.1	42.5	1.2

한국에 더 머물지 않으려는 이유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살고 싶어서’ (1+2순위 22.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한국보다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1+2순위 15.1%), ‘한국보다 용이한 취업/창업 환경 때문에’(1+2순위 13.2%)가 높게 나타났다. 1순위 역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살고 싶어서’가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73 한국에 더 머물지 않으려는 주요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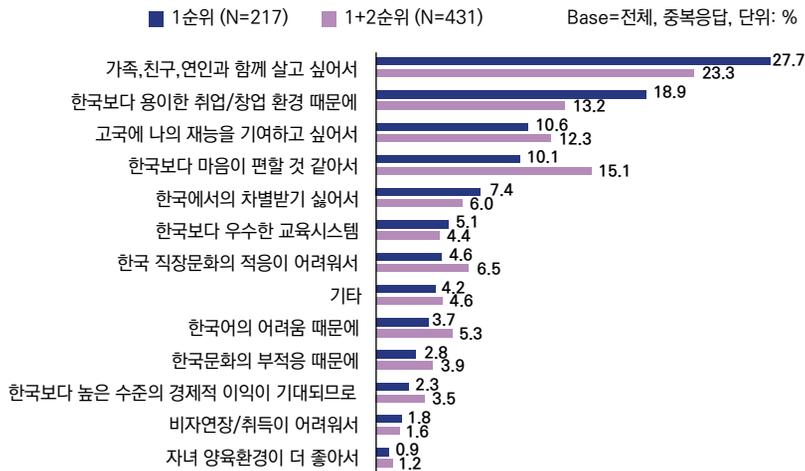
구 분	1순위		1+2순위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217	100.0	431	100.0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살고 싶어서	60	27.7	96	22.3
한국보다 용이한 취업/창업 환경 때문에	41	18.9	57	13.2
고국에 나의 재능을 기여하고 싶어서	23	10.6	53	12.3
한국보다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22	10.1	65	15.1
한국에서의 차별받기 싫어서	16	7.4	26	6.0
한국보다 우수한 교육시스템	11	5.1	19	4.4
한국 직장문화의 적응이 어려워서	10	4.6	28	6.5

표 4-73 계속

구분	1순위		1+2순위	
	사례수	%	사례수	%
기타	9	4.2	20	4.6
한국어의 어려움 때문에	8	3.7	23	5.3
한국문화의 부적응 때문에	6	2.8	17	3.9
한국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적 이익이 기대되므로	5	2.3	15	3.5
비자연장/취득이 어려워서	4	1.8	7	1.6
자녀 양육환경이 더 좋아서	2	0.9	5	1.2

* 1+2순위는 복수응답으로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그림 4-5 한국에 더 머물지 않으려는 주요 이유(%)



진로선택 시, 부모(보호자) 및 가족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정도를 살펴 보면 ‘보통이다’ 라고 답한 비율이 33.3%로 가장 높으며 ‘많이 얻는 편이다’와 ‘매우 많이 얻는다’가 29.7%, 15.7%로 그 뒤를 이었다. 대학원 학생의 경우 ‘전혀 얻지 않는다’가 10.1%로 학부 및 기타 학생의 각각 4.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74 진로선택 시, 부모(보호자)/가족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얻지 않는다	거의 얻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많이 얻는 편이다	매우 많이 얻는다	
전체	694	6.5	14.8	33.3	29.7	15.7	
지역	수도권	414	6.5	15.5	32.4	30.7	15.0
	비수도권	280	6.4	13.9	34.6	28.2	16.8
교급	학부과정	370	4.6	13.5	33.8	31.1	17.0
	석·박사과정	237	10.1	15.2	29.5	29.1	16.0
	기타(어학연수 등)	87	4.6	19.5	41.4	25.3	9.2

진로선택 시, 한국인 친구 및 선후배로부터 정보를 얻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41.4%, ‘많이 얻는 편이다’가 21.8%, ‘거의 얻지 않는다’가 19.7%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학생의 경우 ‘매우 많이 얻는다’라고 답한 비율이 5.1%이나 비수도권 학생의 경우 3.2%에 그쳤다. 대학원 학생의 경우 ‘전혀 얻지 않는다’라고 답한 비율이 9.3%로 학부 및 기타 학생의 14.6%와 14.9%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4-75 진로선택 시, 한국인친구/선후배로부터 정보를 얻는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얻지 않는다	거의 얻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많이 얻는 편이다	매우 많이 얻는다	
전체	694	12.8	19.7	41.4	21.8	4.3	
지역	수도권	414	12.8	18.6	43.5	20.1	5.1
	비수도권	280	12.9	21.4	38.2	24.3	3.2
교급	학부과정	370	14.6	21.4	39.7	20.8	3.5
	석·박사과정	237	9.3	19.8	40.1	24.5	6.3
	기타(어학연수 등)	87	14.9	12.6	51.7	18.4	2.3

진로선택 시, 한국인 교수/강사로부터 정보를 얻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보통이다'와 '많이 얻는 편이다'가 각각 41.1%, 23.9%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학생의 경우 '많이 얻는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26.8%로 수도권 학생의 22.0%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 학생의 경우 '매우 많이 얻는다'라고 답한 비율이 11.0%로 학부 및 기타 학생의 3.5%와 1.2%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76 진로선택 시, 한국인 교수/강사로부터 정보를 얻는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얻지 않는다	거의 얻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많이 얻는 편이다	매우 많이 얻는다
전체		694	10.7	18.6	41.1	23.9	5.8
지역	수도권	414	10.6	20.5	41.3	22.0	5.6
	비수도권	280	10.7	15.7	40.7	26.8	6.1
교급	학부과정	370	12.4	19.7	40.8	23.5	3.5
	석·박사과정	237	7.2	16.9	38.4	26.6	11.0
	기타(어학연수 등)	87	12.6	18.4	49.4	18.4	1.2

진로선택 시, 한국거주 중국인 친구/선후배/지인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정도는 '보통이다'와 '많이 얻는 편이다'가 각각 35.7%와 37%로 나타났다. 수도권 학생의 경우 '거의 얻지 않는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8.0%이나 비수도권 학생의 경우 13.2%로 나타났다. 대학원 학생의 경우 '많이 얻는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41.4%로 학부 및 기타 학생의 36.8%와 26.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77 진로선택 시, 한국거주 중국인 친구/선후배/지인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얻지 않는다	거의 얻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많이 얻는 편이다	매우 많이 얻는다	
전체	694	7.2	10.1	35.7	37.0	9.9	
지역	수도권	414	7.7	8.0	35.3	39.1	9.9
	비수도권	280	6.4	13.2	36.4	33.9	10.0
교급	학부과정	370	7.0	10.5	35.1	36.8	10.5
	석·박사과정	237	8.0	8.4	31.7	41.4	10.6
	기타(어학연수 등)	87	5.8	12.6	49.4	26.4	5.8

진로선택 시, 중국거주 중국인 친구/선후배/지인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정도는 ‘보통이다’가 38.5%, ‘많이 얻는 편이다’가 36.2%, ‘거의 얻지 않는다’가 10.7%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 학생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타(어학연수 등)과정의 경우 ‘매우 많이 얻는다’와 ‘많이 얻는 편이다’가 각각 2.3%, 29.9%로 전체 평균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표 4-78 진로선택 시, 중국거주 중국인 친구/선후배/지인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얻지 않는다	거의 얻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많이 얻는 편이다	매우 많이 얻는다	
전체	694	5.3	10.7	38.5	36.2	9.4	
지역	수도권	414	6.0	10.1	39.4	35.3	9.2
	비수도권	280	4.3	11.4	37.1	37.5	9.6
교급	학부과정	370	5.1	11.1	36.8	36.2	10.8
	석·박사과정	237	5.5	10.6	35.9	38.4	9.7
	기타(어학연수 등)	87	5.8	9.2	52.9	29.9	2.3

진로선택 시, 재학 중인 학교 행정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정도로는 '보통이다'가 42.9%, '거의 얻지 않는 편이다'가 22.2%, '전혀 얻지 않는다'가 19.5%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 학생은 '전혀 얻지 않는다'와 '거의 얻지 않는 편이다'가 21.7%, 24.4%로 비수도권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 학생의 경우 '전혀 얻지 않는다'와 '거의 얻지 않는 편이다'가 각각 25.7%, 27.4%로 학부 및 기타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79 진로선택 시, 재학 중인 학교 행정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얻지 않는다	거의 얻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많이 얻는 편이다	매우 많이 얻는다
전체		694	19.5	22.2	42.9	12.5	2.9
지역	수도권	414	21.7	24.4	39.6	11.8	2.4
	비수도권	280	16.1	18.9	47.9	13.6	3.6
교급	학부과정	370	16.0	19.5	45.4	16.0	3.2
	석·박사과정	237	25.7	27.4	35.0	8.4	3.4
	기타(어학연수 등)	87	17.2	19.5	54.0	9.2	0.0

진로선택 시, 한국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정보를 얻는 정도는 '보통이다'가 42.9%, '거의 얻지 않는 편이다'가 23.1%, '전혀 얻지 않는다'가 17%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학생은 '전혀 얻지 않는다'라고 답한 비율이 18.8%인 반면 비수도권 학생은 14.3%에 그쳤다. 학부 학생은 '많이 얻는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16.2%로 대학원 및 기타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80 진로선택 시, 한국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정보를 얻는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얻지 않는다	거의 얻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많이 얻는 편이다	매우 많이 얻는다
전체		694	17.0	23.1	42.9	14.8	2.2
지역	수도권	414	18.8	22.7	42.5	14.5	1.5
	비수도권	280	14.3	23.6	43.6	15.4	3.2
교급	학부과정	370	16.2	20.5	44.3	16.2	2.7
	석·박사과정	237	19.8	27.4	37.1	13.9	1.7
	기타(어학연수 등)	87	12.6	21.8	52.9	11.5	1.2

진로선택 시, 중국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정보를 얻는 정도는 ‘보통이다’가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남. 뒤이어 ‘많이 얻는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21.5%, ‘거의 얻지 않는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17.6%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 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대학원 학생의 경우 ‘전혀 얻지 않는다’라고 답한 비율이 16.5%로 학부 및 기타 학생의 13.8%와 12.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81 진로선택 시, 중국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정보를 얻는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얻지 않는다	거의 얻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많이 얻는 편이다	매우 많이 얻는다
전체		694	14.6	17.6	42.2	21.5	4.2
지역	수도권	414	14.5	18.8	43.0	20.3	3.4
	비수도권	280	14.6	15.7	41.1	23.2	5.4
교급	학부과정	370	13.8	14.1	44.6	23.0	4.6
	석·박사과정	237	16.5	21.5	35.0	21.9	5.1
	기타(어학연수 등)	87	12.6	21.8	51.7	13.8	0.0

진로선택 시, 한국 SNS로부터 정보를 얻는 정도는 ‘보통이다’라고答한 비율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뒤이어 ‘거의 얻지 않는 편이다’와 ‘많이 얻는 편이다’가 동일하게 19.5%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 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부과정 응답자들은 ‘많이 얻는 편이다’라고答한 비율이 21.1%로 석박사과정의 17.3%와 기타과정의 18.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82 진로선택 시, 한국 SNS로부터 정보를 얻는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얻지 않는다	거의 얻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많이 얻는 편이다	매우 많이 얻는다
전체		694	15.1	19.5	43.5	19.5	2.5
지역	수도권	414	15.7	18.1	44.0	20.1	2.2
	비수도권	280	14.3	21.4	42.9	18.6	2.9
교급	학부과정	370	14.9	16.5	45.4	21.1	2.2
	석·박사과정	237	16.0	24.5	40.1	17.3	2.1
	기타(어학연수 등)	87	13.8	18.4	44.8	18.4	4.6

진로선택 시, 중국 SNS로부터 정보를 얻는 정도는 ‘보통이다’라고答한 비율이 41.5%, ‘많이 얻는다’라고答한 비율이 29.5%로 조사되었다. 뒤이어 ‘거의 얻지 않는다’, ‘전혀 얻지 않는다’, ‘매우 많이 얻는다’가 각각 13.7%, 9.2%, 6.1%로 나타났다. 기타과정 학생의 경우 ‘많이 얻는다’라고答한 비율이 21.8%로 학부 및 대학원 학생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4-83 진로선택 시, 중국 SNS로부터 정보를 얻는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얻지 않는다	거의 얻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많이 얻는 편이다	매우 많이 얻는다
전체		694	9.2	13.7	41.5	29.5	6.1
지역	수도권	414	8.9	13.8	39.6	31.9	5.8
	비수도권	280	9.6	13.6	44.3	26.1	6.4
교급	학부과정	370	8.6	12.4	43.5	29.2	6.2
	석·박사과정	237	10.1	14.8	35.4	32.9	6.8
	기타(어학연수 등)	87	9.2	16.1	49.4	21.8	3.4

5) 사회적 관계 및 적응

다문화 친구 수용성과 관련하여 ‘타 국적의 유학생과 친한 단짝이 될 의향이 있다’를 살펴보면 ‘그런 편이다’라고 답한 학생이 47.7%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매우 그렇다’가 34.7%, ‘보통이다’가 16.0%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응답자의 경우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40.4%로 수도권 응답자의 30.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부과정 응답자의 경우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37.6%로 석·박사과정의 30.0%와 기타과정의 35.6%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84 다문화 친구 수용성-타 국적의 유학생과 친한 단짝이 될 의향이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94	0.3	1.3	16.0	47.7	34.7
지역	수도권	414	0.2	1.4	17.6	49.8	30.9
	비수도권	280	0.4	1.1	13.6	44.6	40.4
교급	학부과정	370	0.5	1.1	14.9	45.9	37.6
	석·박사과정	237	0.0	2.1	15.6	52.3	30.0
	기타(어학연수 등)	87	0.0	0.0	21.8	42.5	35.6

다문화 친구 수용성과 관련하여 ‘한국인 학생과 친한 단짝이 될 의향이 있다’를 살펴보면 ‘그런 편이다’라고 답한 학생이 47.4%,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이 33.6%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응답자의 경우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38.6%로 수도권의 30.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석박사과정 응답자의 경우 ‘그런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53.2%로 학부과정과 기타과정의 45.1%, 41.4%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85 다문화 친구 수용성-한국인 학생과 친한 단짝이 될 의향이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94	0.7	2.7	15.6	47.4	33.6
지역	수도권	414	0.7	3.6	17.4	48.1	30.2
	비수도권	280	0.7	1.4	12.9	46.4	38.6
교급	학부과정	370	1.1	2.7	15.1	45.1	35.9
	석·박사과정	237	0.4	2.5	14.8	53.2	29.1
	기타(어학연수 등)	87	0.0	3.4	19.5	41.4	35.6

다문화 친구 수용성과 관련하여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국가(한국 제외)의 사람을 애인으로 사귄 의향이 있다’를 살펴보면 ‘그런 편이다’라고 답한 학생이 39.5%,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이 26.4%, ‘보통이다’가 23.9%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응답자의 경우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이 32.1%로 수도권의 22.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86 다문화 친구 수용성-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국가(한국 제외)의 사람을 애인으로 사귄 의향이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94	3.9	6.3	23.9	39.5	26.4	
지역	수도권	414	3.4	6.5	26.6	41.1	22.5
	비수도권	280	4.6	6.1	20.0	37.1	32.1
교급	학부과정	370	4.3	5.4	21.6	40.3	28.4
	석·박사과정	237	4.2	8.0	24.9	40.1	22.8
	기타(어학연수 등)	87	1.1	5.7	31.0	34.5	27.6

다문화 친구 수용성과 관련하여 ‘한국 사람을 가까이 애인으로 사귄 의향이 있다’라는 질문에 ‘그런 편이다’ 라고 답한 비율이 31.4%, ‘보통이다’는 25.9%, ‘매우 그렇다’가 21.5% 순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경우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26.8%로 수도권의 17.9%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부과정의 경우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23.5%로 대학원 학생의 18.6%와 기타과정의 20.7%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87 다문화 친구 수용성-한국 사람을 가까이 애인으로 사귄 의향이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94	9.2	12.0	25.9	31.4	21.5	
지역	수도권	414	9.9	12.8	27.5	31.9	17.9
	비수도권	280	8.2	10.7	23.6	30.7	26.8
교급	학부과정	370	9.7	10.0	25.4	31.4	23.5
	석·박사과정	237	9.3	15.6	24.5	32.1	18.6
	기타(어학연수 등)	87	6.9	10.3	32.2	29.9	20.7

다문화 친구 수용성의 평균값은 3.87점이며 표준편차는 0.75점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학생의 평균값은 3.80점이며 비 수도권 학생의 평균값은 3.97점으로 조사되었다. 학부학생의 평균값은 3.91점, 대학원 학생은 3.81점, 기타 학생은 3.88점으로 나타났다.

표 4-88 다문화 친구 수용성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다문화 친구 수용성	전체	694	3.87	0.75	
	지역	수도권	414	3.80	0.74
		비수도권	280	3.97	0.76
	교급	학부과정	370	3.91	0.76
		석·박사과정	237	3.81	0.73
		기타(어학연수 등)	87	3.88	0.74

사적 고민이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한국인의 수를 살펴보면, '1~2명'이라고 답한 비율이 38.3%로 가장 높고 '없음'이 29.0%, '3~4명'이 18.6%순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학생의 경우 '없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32.5%로 수도권의 26.6%보다 높았다. 대학원 학생의 경우 '1~2명' 또는 '3~4명'이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45.1%, 23.2%로 학부 및 기타과정 학생들에 비해 높았다.

표 4-89 사적 고민이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지인-한국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음	1명-2명	3명-4명	5명-9명	10명-14명	15명-19명	20명 이상
전체	694	29.0	38.3	18.6	9.5	2.5	0.7	1.4
지역	수도권	414	26.6	40.6	19.6	8.5	2.4	0.7
	비수도권	280	32.5	35.0	17.1	11.1	2.5	0.7
교급	학부과정	370	35.4	34.6	16.2	10.0	2.2	0.5
	석·박사과정	237	17.7	45.1	23.2	8.0	2.5	1.3
	기타(어학연수 등)	87	32.2	35.6	16.1	11.5	3.4	0.0

사적 고민이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한국 거주 중국인의 수를 살펴보면 '3~4명'이 34.4%, '1~2명'이 26.5%, '5~9명'이 24.4%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학생의 경우 '없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5.7%로 수도권의 2.7%에 비해 높았다. 학부 과정의 경우 '없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5.1%로 대학원과정의 3.0%와 기타 학생의 1.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90 사적 고민이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지인-중국인(한국 거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음	1명-2명	3명-4명	5명-9명	10명-14명	15명-19명	20명 이상
전체	694	3.9	26.5	34.4	24.4	5.3	2.3	3.2
지역	수도권	414	2.7	25.1	36.2	25.6	6.0	1.9
	비수도권	280	5.7	28.6	31.8	22.5	4.3	2.9
교급	학부과정	370	5.1	26.2	31.6	26.2	4.1	2.7
	석·박사과정	237	3.0	24.1	40.5	21.9	5.9	2.5
	기타(어학연수 등)	87	1.1	34.5	29.9	23.0	9.2	0.0

한국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적 고민이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중국인 지인 수를 살펴보면 '5~9명'이라고 답한 비율이 32.3%로 가장 높

으며 '3~4명'이라고 답한 비율이 26.7%, '1~2명'이 17.9%로 조사되었다. 수도권 거주 학생의 경우 '3~4명'이라고 답한 비율이 31.6%로 비수도권의 19.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부과정의 경우 '3~4명'이라고 답한 비율이 23.0%로 대학원 및 기타 학생의 30.4%, 32.2%에 비해 낮았다.

표 4-91 사적 고민이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지인-중국인(한국 이외 지역 거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음	1명~2명	3명~4명	5명~9명	10명~14명	15명~19명	20명 이상	
전체	694	5.5	17.9	26.7	32.3	8.8	2.3	6.6	
지역	수도권	414	3.1	16.7	31.6	30.9	7.7	1.9	8.0
	비수도권	280	8.9	19.6	19.3	34.3	10.4	2.9	4.6
교급	학부과정	370	7.0	19.2	23.0	32.4	8.6	2.4	7.3
	석·박사과정	237	4.2	16.5	30.4	32.1	8.9	3.0	5.1
	기타(어학연수 등)	87	2.3	16.1	32.2	32.2	9.2	0.0	8.0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중 '내가 가진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라는 질문에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38.2%,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30.7%, '그런 편이다'가 19.6%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학생의 경우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4.1%로 비수도권의 2.1%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원 학생과 기타 학생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10.1%, 13.8%로 학부 학생의 5.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92 두려움-내가 가진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94	8.2	30.7	38.2	19.6	3.3	
지역	수도권	414	9.4	30.0	37.2	19.3	4.1
	비수도권	280	6.4	31.8	39.6	20.0	2.1
교급	학부과정	370	5.7	32.2	38.9	19.2	4.1
	석·박사과정	237	10.1	30.0	35.9	21.1	3.0
	기타(어학연수 등)	87	13.8	26.4	41.4	17.2	1.1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중 ‘한국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으로 인해 자주 혼자 있다’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36.7%, ‘보통이다’가 33.7%, ‘그런 편이다’가 15.3%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학생의 경우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4.6%로 비수도권 학생의 3.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부 학생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8.4%에 불과해 대학원 학생과 기타학생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93 두려움-나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으로 인해 자주 혼자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94	10.1	36.7	33.7	15.3	4.2	
지역	수도권	414	9.7	35.7	34.3	15.7	4.6
	비수도권	280	10.7	38.2	32.9	14.6	3.6
교급	학부과정	370	8.4	38.1	31.9	16.8	4.9
	석·박사과정	237	11.4	35.4	35.0	14.8	3.4
	기타(어학연수 등)	87	13.8	34.5	37.9	10.3	3.4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중 ‘한국은 안전하지 못한 것 같다’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42.8%이며 ‘보통이다’가 30.0%, ‘전혀 그렇지 않다’가 20.5%순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학생의 경우 ‘그런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7.1%로 수도권 학생의 4.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부과정의 경우 ‘그런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6.5%로 대학원 및 기타 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94 두려움-한국은 안전하지 못한 것 같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94	20.5	42.8	30.0	5.6	1.2
지역	수도권	414	21.3	44.0	29.0	4.6	1.2
	비수도권	280	19.3	41.1	31.4	7.1	1.1
교급	학부과정	370	17.0	45.1	30.3	6.5	1.1
	석·박사과정	237	23.6	41.4	28.3	5.1	1.7
	기타(어학연수 등)	87	26.4	36.8	33.3	3.4	0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중 ‘한국 사람들이 나를 외국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와 사귀지 않는다고 느낀다’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36.2%,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28.7%, ‘그런 편이다’가 20.3% 순으로 조사되었다. 비수도권 학생의 경우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5.7%로 수도권 학생의 4.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부 학생의 경우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7.6%로 대학원 및 기타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95 두려움-나는 한국 사람들이 나를 외국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와 사귀지 않는다고 느낀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94	9.8	28.7	36.2	20.3	5.0
지역	수도권	414	10.9	29.7	35.7	19.1	4.6
	비수도권	280	8.2	27.1	36.8	22.1	5.7
교급	학부과정	370	6.8	25.1	35.7	24.9	7.6
	석·박사과정	237	11.0	35.9	33.8	16.9	2.5
	기타(어학연수 등)	87	19.5	24.1	44.8	10.3	1.1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중 ‘한국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나를 미워하고 있다’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36.5%,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35.0%, ‘전혀 그렇지 않다’가 14.1%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학생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이 16.2%로 비수도권의 11.1%보다 높았다. 학부 학생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이 9.5%로 대학원 및 기타 학생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표 4-96 지각된 적대감-한국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나를 미워하고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94	14.1	35.0	36.5	10.2	4.2
지역	수도권	414	16.2	34.3	35.3	9.7	4.6
	비수도권	280	11.1	36.1	38.2	11.1	3.6
교급	학부과정	370	9.5	34.3	37.8	13.0	5.4
	석·박사과정	237	18.6	38.4	31.6	8.4	3.0
	기타(어학연수 등)	87	21.8	28.7	43.7	3.4	2.3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중 ‘한국 사람들은 나의 문화적 가치를 바르게 평가하지 않는다’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36.5%, ‘보통이다’가 33.7%, ‘그런 편이다’가 14.1%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41.8%로 수도권 32.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런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수도권 15.7%에 비해 비수도권 학생의 경우 11.8%로 낮았다. 학부학생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이 10.8%로 대학원 및 기타 학생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4-97 지각된 적대감-한국 사람들은 나의 문화적 가치를 바르게 평가하지 않는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94	12.7	36.5	33.7	14.1	3.0
지역	수도권	414	13.0	32.9	36.0	15.7	2.4
	비수도권	280	12.1	41.8	30.4	11.8	3.9
교급	학부과정	370	10.8	38.4	32.2	15.1	3.5
	석·박사과정	237	13.5	35.9	34.2	14.3	2.1
	기타(어학연수 등)	87	18.4	29.9	39.1	9.2	3.4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중 ‘한국 사람들은 행동으로 나를 미워함을 나타낸다’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43.1%,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28.0%,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19.6%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부 및 대학원 학생에 비해 기타 학생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이 24.1%로 높게 나타났다.

표 4-98 지각된 적대감-한국 사람들은 행동으로 나를 미워함을 나타낸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94	19.6	43.1	28.0	7.9	1.4	
지역	수도권	414	19.6	42.8	29.0	7.5	1.2
	비수도권	280	19.6	43.6	26.4	8.6	1.8
교급	학부과정	370	18.1	42.7	27.8	9.7	1.6
	석·박사과정	237	20.3	43.9	27.0	7.2	1.7
	기타(어학연수 등)	87	24.1	42.5	31.0	2.3	0.0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중 ‘한국 사람들은 언어(말)로 나를 미워하고 있음을 드러낸다’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각각 25.5%와 20.2%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들 간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대학원 학생의 경우 ‘그런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11.4%로 학부학생의 8.6%와 기타 학생의 6.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99 지각된 적대감-한국 사람들은 언어(말)로 나를 미워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94	20.2	43.8	25.5	9.4	1.2	
지역	수도권	414	19.8	43.2	26.6	9.2	1.2
	비수도권	280	20.7	44.6	23.9	9.6	1.1
교급	학부과정	370	18.6	44.1	26.5	8.6	2.2
	석·박사과정	237	21.9	43.0	23.6	11.4	0.0
	기타(어학연수 등)	87	21.8	44.8	26.4	6.9	0.0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중 ‘나는 한국 사회에서 다르게 취급된다’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42.1%, ‘보통이다’가 25.9%, ‘전혀 그렇지 않다’가 24.4% 순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학생의 경우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2.5%로 비수도권의 1.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 학생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이 27.4%로 학부 및 기타 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00 지각된 차별감-나는 한국 사회에서 다르게 취급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94	24.4	42.1	25.9	5.8	1.9
지역	수도권	414	24.9	41.5	25.8	6.3	1.4
	비수도권	280	23.6	42.9	26.1	5.0	2.5
교급	학부과정	370	22.2	41.9	27.3	6.5	2.2
	석·박사과정	237	27.4	40.9	24.1	5.5	2.1
	기타(어학연수 등)	87	25.3	46.0	25.3	3.4	0.0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중 ‘한국 사람은 나에게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41.2%, ‘보통이다’가 27.4%, ‘전혀 그렇지 않다’가 20.3%로 조사되었다. 비수도권 학생의 경우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3.2%로 수도권의 1.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부 학생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이 17.0%로 대학원 및 기타 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01 지각된 차별감-한국 사람은 나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94	20.3	41.2	27.4	8.7	2.5	
지역	수도권	414	21.0	40.6	27.5	8.9	1.9
	비수도권	280	19.3	42.1	27.1	8.2	3.2
교급	학부과정	370	17.0	41.6	29.7	8.9	2.7
	석·박사과정	237	24.1	38.8	25.7	9.3	2.1
	기타(어학연수 등)	87	24.1	46.0	21.8	5.7	2.3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중 ‘한국에는 많은 기회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41.4%,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26.8%, ‘그런 편이다’가 21.8%로 나타났다. 수도권 학생의 경우 ‘그런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22.9%, 3.1%로 비수도권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부 및 대학원 학생의 경우 ‘그런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23.0%와 23.6%로 기타 학생의 11.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102 지각된 차별감-한국에는 많은 기회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94	7.2	26.8	41.4	21.8	2.9	
지역	수도권	414	7.0	29.0	37.9	22.9	3.1
	비수도권	280	7.5	23.6	46.4	20.0	2.5
교급	학부과정	370	5.1	25.7	43.2	23.0	3.0
	석·박사과정	237	9.7	27.8	36.3	23.6	2.5
	기타(어학연수 등)	87	9.2	28.7	47.1	11.5	3.4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중 ‘나는 한국에서 불공평한 취급을 받고 있는 듯 하다’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36.5%, ‘보통이다’가 33.6%, ‘그런편이다’가 14.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원 학생의 경우 ‘그런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19.0%로 학부 및 기타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103 지각된 차별감-나는 한국에서 불공평한 취급을 받고 있는 듯 하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94	13.3	36.5	33.6	14.3	2.5
지역	수도권	414	13.3	36.0	33.6	14.5	2.7
	비수도권	280	13.2	37.1	33.6	13.9	2.1
교급	학부과정	370	12.7	36.2	34.6	13.8	2.7
	석·박사과정	237	13.9	33.3	32.1	19.0	1.7
	기타(어학연수 등)	87	13.8	46.0	33.3	3.4	3.4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중 ‘집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괴롭힌다’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34.6%, ‘보통이다’가 31.8%, ‘전혀 그렇지 않다’가 18.6%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학생들이 ‘그런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15.0%로 수도권의 8.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기타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은 2.3%로 학부 및 대학원 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04 향수병-집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괴롭힌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94	18.6	34.6	31.8	11.1	3.9	
지역	수도권	414	17.1	38.2	31.9	8.5	4.3
	비수도권	280	20.7	29.3	31.8	15.0	3.2
교급	학부과정	370	19.2	34.6	30.8	11.4	4.1
	석·박사과정	237	18.1	34.6	32.1	11.0	4.2
	기타(어학연수 등)	87	17.2	34.5	35.6	10.3	2.3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중 ‘나는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슬프다’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38.9%, ‘보통이다’가 29.8%, ‘전혀 그렇지 않다’가 20.3% 순으로 조사되었다. 수도권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40.1%로 비수도권 학생의 37.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기타 학생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이 17.2%로 학부 및 대학원 학생의 20.3%, 21.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4-105 향수병-나는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슬프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94	20.3	38.9	29.8	7.8	3.2	
지역	수도권	414	20.3	40.1	29.2	7.0	3.4
	비수도권	280	20.4	37.1	30.7	8.9	2.9
교급	학부과정	370	20.3	39.2	29.7	7.6	3.2
	석·박사과정	237	21.5	37.1	29.5	8.0	3.8
	기타(어학연수 등)	87	17.2	42.5	31.0	8.0	1.1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중 '나는 내 고향과 중국에 있는 지인들을 그리워한다'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41.6%, '그런 편이다'가 24.6%,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16.6%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학생의 경우 '그런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27.9%로 수도권의 22.5%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 학생의 경우 '매우 그렇다' 라고 답한 비율이 9.7%, '그런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28.3%로 나타났다.

표 4-106 향수병-나는 내 고향과 중국에 있는 지인들을 그리워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94	5.6	16.6	41.6	24.6	11.5
지역	수도권	414	5.6	18.6	41.8	22.5	11.6
	비수도권	280	5.7	13.6	41.4	27.9	11.4
교급	학부과정	370	6.2	17.8	40.5	23.2	12.2
	석·박사과정	237	4.6	15.2	42.2	28.3	9.7
	기타(어학연수 등)	87	5.7	14.9	44.8	20.7	13.8

두려움, 지각된 적대감,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항목들로 구성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의 전체 평균값은 2.54점이며 표준편차는 0.66점으로 나타났다.

표 4-107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두려움	전 체	694	2.63	0.74	
	지역	수도권	414	2.61	0.75
		비수도권	280	2.65	0.72
	교급	학부과정	370	2.72	0.72
		석·박사과정	237	2.56	0.74
		기타(어학연수 등)	87	2.46	0.74
지각된 적대감	전 체	694	2.42	0.80	
	지역	수도권	414	2.43	0.81
		비수도권	280	2.42	0.80
	교급	학부과정	370	2.50	0.80
		석·박사과정	237	2.36	0.80
		기타(어학연수 등)	87	2.29	0.79
지각된 차별감	전 체	694	2.48	0.78	
	지역	수도권	414	2.48	0.77
		비수도권	280	2.49	0.80
	교급	학부과정	370	2.53	0.77
		석·박사과정	237	2.46	0.81
		기타(어학연수 등)	87	2.33	0.75
향수병	전 체	694	2.67	0.88	
	지역	수도권	414	2.65	0.87
		비수도권	280	2.71	0.89
	교급	학부과정	370	2.66	0.90
		석·박사과정	237	2.69	0.88
		기타(어학연수 등)	87	2.67	0.80
문화적응 스트레스	전 체	694	2.54	0.66	
	지역	수도권	414	2.53	0.65
		비수도권	280	2.56	0.66
	교급	학부과정	370	2.60	0.65
		석·박사과정	237	2.51	0.67
		기타(어학연수 등)	87	2.42	0.63

6) 매체 이용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온라인게임(PC, 스마트폰 이용 모두 포함) 이용 및 소비시간은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 28.1%,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 18.2%, ‘4시간 이상’이 14.7%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학생의 경우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31.2%로 비수도권의 23.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 학생의 경우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39.7%로 학부학생의 20.8%와 기타학생의 27.6%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108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온라인게임(PC, 스마트폰 이용 모두 포함) 이용/소비 시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사용하지 않음	30분 미만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전체	694	28.1	13.7	10.8	18.2	8.7	5.9	14.7
지역	수도권	414	31.2	14.0	10.4	16.2	8.7	13.3
	비수도권	280	23.6	13.2	11.4	21.1	8.6	16.8
교급	학부과정	370	20.8	11.4	12.4	22.7	9.5	15.7
	석·박사과정	237	39.7	17.3	7.2	11.8	6.8	13.9
	기타(어학연수 등)	87	27.6	13.8	13.8	16.1	10.3	12.6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한국어 TV프로그램(뉴스 제외) 소비 시간을 보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 27.8%, ‘30분 미만’이 21.3%,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 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학생의 경우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16.2%로 비수도권 학생의 12.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기타 학생의 경우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17.2%로 학부 및 대학원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109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한국어 TV프로그램(뉴스 제외) 소비 시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사용하지 않음	30분 미만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전체	694	14.8	21.3	15.4	27.8	9.5	3.5	7.6
지역	수도권	414	16.2	19.6	16.4	27.5	10.1	3.6
	비수도권	280	12.9	23.9	13.9	28.2	8.6	3.2
교급	학부과정	370	14.9	21.1	14.9	27.6	11.4	2.7
	석·박사과정	237	13.9	19.4	18.1	28.3	7.2	5.5
	기타(어학연수 등)	87	17.2	27.6	10.3	27.6	8.0	1.1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중국 또는 비한국어 TV 프로그램 (뉴스 제외) 소비 시간을 살펴보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이 30.4%,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 16.3%, '30분 미만'이 15.7%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학생의 경우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이 28.5%로 비수도권의 33.2%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부학생의 경우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이 34.9%로 대학원 및 기타 학생의 24.5%와 27.6%에 비해 높았다.

표 4-110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중국 또는 비한국어 TV 프로그램 (뉴스 제외) 소비 시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사용하지 않음	30분 미만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전체	694	10.5	15.7	16.3	30.4	13.8	4.3	8.9
지역	수도권	414	11.4	15.7	16.9	28.5	13.8	5.3
	비수도권	280	9.3	15.7	15.4	33.2	13.9	2.9
교급	학부과정	370	8.4	12.4	17.0	34.9	14.3	4.1
	석·박사과정	237	13.1	19.0	15.6	24.5	13.5	5.9
	기타(어학연수 등)	87	12.6	20.7	14.9	27.6	12.6	1.1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4시간 이상’이 33.7%,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 22.8%,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 1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 모두 ‘4시간 이상’ 이용한다는 비율이 각각 33.6%, 33.9%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부 학생과 대학원 학생 모두 ‘4시간 이상’ 이용한다는 비율이 각각 34.1%, 34.6%로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11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사용하지 않음	30분 미만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전체	694	0.9	3.0	8.4	22.8	17.4	13.8	33.7
지역	수도권	414	1.2	2.7	9.4	22.5	17.6	33.6
	비수도권	280	0.4	3.6	6.8	23.2	17.1	33.9
교급	학부과정	370	0.5	2.4	5.9	23.0	17.6	34.1
	석·박사과정	237	1.3	3.8	11.8	20.7	17.3	34.6
	기타(어학연수 등)	87	1.1	3.4	9.2	27.6	17.2	29.9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SNS 이용시간 (한국어 이용)을 살펴보면, ‘30분 미만’이 28.1%,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 20.8%,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 19.2% 순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학생의 경우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24.3%로 수도권의 18.4%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학생의 경우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31%, 학부학생은 20.3%, 대학원 학생은 17.7%로 나타났다.

표 4-112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SNS 이용시간 (한국어 이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사용하지 않음	30분 미만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전체	694	20.8	28.1	17.4	19.2	7.2	2.5	4.9	
지역	수도권	414	18.4	27.5	18.4	20.5	7.2	2.4	5.6
	비수도권	280	24.3	28.9	16.1	17.1	7.1	2.5	3.9
교급	학부과정	370	20.3	27.3	17.3	20.0	7.3	3.0	4.9
	석·박사과정	237	17.7	28.3	20.3	19.4	6.3	2.1	5.9
	기타(어학연수 등)	87	31.0	31.0	10.3	14.9	9.2	1.1	2.3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SNS 이용시간 (중국어 이용)을 살펴보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 23.5%,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 16.6%, ‘4시간 이상’이 14.8% 순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학생의 경우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22.9%로 수도권 학생의 12.3%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원 학생의 경우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11.8%로 학부학생의 18.1%와 기타 학생의 23.0%에 비해 낮았다.

표 4-113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SNS 이용시간 (중국어 이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사용하지 않음	30분 미만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전체	694	16.6	11.7	14.7	23.5	11.0	7.8	14.8	
지역	수도권	414	12.3	10.4	16.2	25.8	11.6	9.2	14.5
	비수도권	280	22.9	13.6	12.5	20.0	10.0	5.7	15.4
교급	학부과정	370	18.1	10.8	13.2	24.1	9.2	7.6	17.0
	석·박사과정	237	11.8	11.4	17.7	24.1	13.9	8.4	12.7
	기타(어학연수 등)	87	23.0	16.1	12.6	19.5	10.3	6.9	11.5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한국어 서적/신문/인쇄물 소비 시간을 살펴 보면 ‘30분 미만’이 29.7%,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 21.5%,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 19.0%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학생의 경우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17.9%로 수도권 학생의 23.9%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대학원 학생의 경우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16.9%로 학부학생의 21.4%와 기타 학생의 34.5%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14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한국어 서적/신문/인쇄물 소비 시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사용하지 않음	30분 미만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전체	694	21.5	29.7	19.0	17.7	6.5	3.0	2.6	
지역	수도권	414	23.9	27.1	18.8	17.6	7.0	2.7	2.9
	비수도권	280	17.9	33.6	19.3	17.9	5.7	3.6	2.1
교급	학부과정	370	21.4	31.4	20.0	17.8	5.9	2.2	1.4
	석·박사과정	237	16.9	27.4	19.4	17.3	9.3	5.5	4.2
	기타(어학연수 등)	87	34.5	28.7	13.8	18.4	1.1	0.0	3.4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중국 또는 비한국어 서적/신문/인쇄물 소비 시간을 살펴보면 ‘30분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이 25.4%, ‘1시간 2시간 미만’이 21.9%,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 18.3%로 나타났다. 수도권 학생의 경우 ‘4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5.1%이나 비수도권 학생의 경우 7.9%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 학생의 경우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13.9%로 학부 및 기타 학생의 16.5%와 17.2%에 비해 낮았다.

표 4-115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중국 또는 비한국어 서적/신문/인쇄물 소비 시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사용하지 않음	30분 미만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전체	694	15.7	25.4	18.3	21.9	8.8	3.8	6.2
지역	수도권	414	15.9	24.4	20.0	21.5	8.7	5.1
	비수도권	280	15.4	26.8	15.7	22.5	8.9	7.9
교급	학부과정	370	16.5	23.8	18.6	20.8	11.1	4.6
	석·박사과정	237	13.9	27.4	16.9	23.2	7.2	8.0
	기타(어학연수 등)	87	17.2	26.4	20.7	23.0	3.4	8.0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한국어 뉴스(방송, 신문, 포털 등) 소비 시간을 살펴보면, '30분 미만'이 34.6%,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 23.6%,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 17.2% 순으로 조사되었다. 수도권 학생의 경우 '30분 미만'이 32.6%로 비수도권 학생의 37.5%보다 낮게 나타났다. 대학원 학생의 경우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 17.7%로 학부학생의 25.4%와 기타 학생의 32.2%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16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한국어 뉴스(방송, 신문, 포털 등) 소비 시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사용하지 않음	30분 미만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전체	694	23.6	34.6	17.2	15.0	6.8	1.6	1.3
지역	수도권	414	24.4	32.6	17.9	15.0	7.2	1.2
	비수도권	280	22.5	37.5	16.1	15.0	6.1	1.4
교급	학부과정	370	25.4	33.5	15.9	17.0	6.5	0.8
	석·박사과정	237	17.7	35.9	21.9	12.7	6.8	2.1
	기타(어학연수 등)	87	32.2	35.6	9.2	12.6	8.0	1.1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중국어 뉴스(방송, 신문, 포털 등) 소비 시간을 살펴보면, '30분 미만'이 33.1%,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 20.9%,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 18.9%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의 응답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기타 학생의 경우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14.9%로 학부 및 대학원 학생의 8.9%와 9.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117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중국어 뉴스(방송, 신문, 포털 등) 소비 시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사용하지 않음	30분 미만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전체	694	9.9	33.1	20.9	18.9	9.4	2.9	4.9
지역	수도권	414	9.9	32.9	22.7	18.4	8.9	4.1
	비수도권	280	10.0	33.6	18.2	19.6	10.0	6.1
교급	학부과정	370	8.9	34.1	18.9	20.5	10.5	4.6
	석·박사과정	237	9.7	31.2	23.6	17.7	8.4	5.5
	기타(어학연수 등)	87	14.9	34.5	21.8	14.9	6.9	4.6

온라인 공동체의 결속성을 측정하는 문항 중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 중,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신뢰하는 사람이 많다'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47.6%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들 간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대학원 학생의 경우 '전혀 동의 못함'이라고 답한 비율이 14.3%로 학부학생의 11.4%와 기타 학생의 10.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118 결속성-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 중,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신뢰하는 사람이 많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 못함	〈……………〉		보통	……………〉		매우 동의	
전체	694	12.3	10.8	10.7	47.6	12.5	3.2	3.0	
지역	수도권	414	12.6	10.4	11.4	46.9	12.8	3.4	2.7
	비수도권	280	11.8	11.4	9.6	48.6	12.1	2.9	3.6
교급	학부과정	370	11.4	11.6	10.5	48.9	12.4	2.4	2.7
	석·박사과정	237	14.3	10.5	11.0	42.2	13.9	4.2	3.8
	기타(어학연수 등)	87	10.3	8.0	10.3	56.3	9.2	3.4	2.3

온라인 공동체의 결속성을 측정하는 문항 중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 중,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45.4%로 조사되었다. 비수도권 학생의 경우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48.6%로 수도권 학생의 43.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 학생의 경우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40.9%로 학부학생의 46.2%와 기타 학생의 54.0%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19 결속성-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 중,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 못함	〈……………〉		보통	……………〉		매우 동의	
전체	694	11.4	11.1	11.2	45.4	14.7	3.5	2.7	
지역	수도권	414	11.6	10.4	13.3	43.2	15.5	3.9	2.2
	비수도권	280	11.1	12.1	8.2	48.6	13.6	2.9	3.6
교급	학부과정	370	11.6	11.4	9.5	46.2	16.2	2.7	2.4
	석·박사과정	237	11.8	10.1	15.6	40.9	13.5	4.6	3.4
	기타(어학연수 등)	87	9.2	12.6	6.9	54.0	11.5	3.4	2.3

온라인 공동체의 결속성을 측정하는 문항 중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 중,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에 대해 살펴보면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41.4%로 조사되었다. 수도권 학생들은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39.1%이나 비수도권 학생은 44.6%로 나타났다. 기타 학생의 경우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50.6%로 학부 및 대학원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120 결속성-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 중,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 못함	〈……………〉		보통	……………〉		매우 동의
전체		694	12.4	14.0	10.4	41.4	14.8	3.9	3.2
지역	수도권	414	12.3	14.5	10.6	39.1	17.4	3.4	2.7
	비수도권	280	12.5	13.2	10.0	44.6	11.1	4.6	3.9
교급	학부과정	370	12.4	14.3	10.5	40.0	16.2	3.2	3.2
	석·박사과정	237	12.7	14.3	11.8	40.1	13.9	4.2	3.0
	기타(어학연수 등)	87	11.5	11.5	5.7	50.6	11.5	5.7	3.4

온라인 공동체의 결속성을 측정하는 문항 중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에 대해 살펴보면,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38.3%, 전혀 동의 못함이 8.8%, 매우 동의가 5.2%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들 간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기타 학생의 경우 ‘전혀 동의 못함’이라고 답한 비율이 12.6%로 학부 및 대학원 학생에 비해 높았다.

표 4-121 결속성-소셜미디어를 통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 못함	〈……………〉		보통	……………〉		매우 동의	
			8.8	10.2		20.6	8.1		
전체	694	8.8	8.8	10.2	38.3	20.6	8.1	5.2	
지역	수도권	414	8.9	9.4	9.7	37.9	20.3	8.7	5.1
	비수도권	280	8.6	7.9	11.1	38.9	21.1	7.1	5.4
교급	학부과정	370	8.4	8.4	11.4	39.7	21.1	5.9	5.1
	석·박사과정	237	8.0	8.0	8.9	35.0	22.8	11.8	5.5
	기타(어학연수 등)	87	12.6	12.6	9.2	41.4	12.6	6.9	4.6

온라인 공동체의 결속성을 측정하는 문항 중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이 나의 취업에 좋은 추천인이 될 것이다’에 대해 ‘보통’은 42.2%, ‘전혀 동의 못함’이라고 답한 비율은 13.1%, 매우 동의는 2.6%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들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대학원 학생의 경우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36.7%로 학부 및 기타 학생의 44.1%와 49.4%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4-122 결속성-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이 나의 취업에 좋은 추천인이 될 것이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 못함	〈……………〉		보통	……………〉		매우 동의	
			13.3	12.7		12.7	3.5		
전체	694	13.1	13.3	12.7	42.2	12.7	3.5	2.6	
지역	수도권	414	12.8	13.8	13.8	41.8	11.8	3.4	2.7
	비수도권	280	13.6	12.5	11.1	42.9	13.9	3.6	2.5
교급	학부과정	370	12.7	13.0	11.6	44.1	12.2	4.1	2.4
	석·박사과정	237	13.1	13.1	16.0	36.7	14.8	3.4	3.0
	기타(어학연수 등)	87	14.9	14.9	8.0	49.4	9.2	1.1	2.3

온라인 공동체의 연결성을 측정하는 문항 중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은 새로운 사람과 대화할 수 있게 한다’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42.1%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들 간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대학원 학생의 경우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36.3%로 학부 및 기타 학생의 46.2%와 40.2%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4-123 연결성-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은 새로운 사람과 대화할 수 있게 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 못함	〈……………〉		보통	……………〉		매우 동의
전체		694	8.4	10.1	9.4	42.1	20.8	5.0	4.3
지역	수도권	414	8.7	9.9	9.9	40.8	21.0	5.1	4.6
	비수도권	280	7.9	10.4	8.6	43.9	20.4	5.0	3.9
교급	학부과정	370	7.3	9.5	7.8	46.2	19.2	5.1	4.9
	석·박사과정	237	9.7	11.4	11.4	36.3	22.8	4.6	3.8
	기타(어학연수 등)	87	9.2	9.2	10.3	40.2	21.8	5.7	3.4

온라인 공동체의 연결성을 측정하는 문항 중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39.2%, 전혀 동의 못함이 9.2%, 매우 동의가 5.2%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36.7%로 비수도권 학생의 42.9%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대학원 학생의 경우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32.9%로 학부 학생의 42.4%와 기타 학생의 42.5%에 비해 낮았다.

표 4-124 연결성-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 못함	〈……………〉		보통	……………〉		매우 동의
전체		694	9.2	8.7	10.5	39.2	20.3	6.9	5.2
지역	수도권	414	8.9	8.2	11.8	36.7	21.3	8.0	5.1
	비수도권	280	9.6	9.3	8.6	42.9	18.9	5.4	5.4
교급	학부과정	370	8.6	8.6	9.5	42.4	20.3	5.7	4.9
	석·박사과정	237	9.3	9.3	11.4	32.9	21.9	9.7	5.5
	기타(어학연수 등)	87	11.5	6.9	12.6	42.5	16.1	4.6	5.7

온라인 공동체의 연결성을 측정하는 문항 중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든다’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38.8%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들 간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대학원 학생의 경우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34.6%로 학부 학생의 40.5%와 기타 학생의 42.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4-125 연결성-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든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 못함	〈……………〉		보통	……………〉		매우 동의
전체		694	9.2	8.5	9.4	38.8	20.5	8.4	5.3
지역	수도권	414	8.7	8.5	10.6	37.2	19.8	9.7	5.6
	비수도권	280	10.0	8.6	7.5	41.1	21.4	6.4	5.0
교급	학부과정	370	8.9	8.9	8.6	40.5	20.8	6.8	5.4
	석·박사과정	237	8.9	8.4	10.1	34.6	21.5	11.0	5.5
	기타(어학연수 등)	87	11.5	6.9	10.3	42.5	16.1	8.0	4.6

온라인 공동체의 연결성을 측정하는 문항 중 ‘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반적인 공동체 활동에 기여하는데 기꺼이 시간을 소비한다’를 살펴보면,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39.3%, 전혀 동의못함이 8.4%, 매우동의가 4.8%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들 간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대학원 학생의 경우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35.0%로 학부 학생의 40.5%와 기타 학생의 46.0%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4-126 연결성-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반적인 공동체 활동에 기여하는데 기꺼이 시간을 소비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 못함	〈…………〉		보통	…………〉		매우 동의
전체		694	8.4	9.5	12.1	39.3	18.6	7.4	4.8
지역	수도권	414	7.7	9.2	12.6	38.6	18.6	8.2	5.1
	비수도권	280	9.3	10.0	11.4	40.4	18.6	6.1	4.3
교급	학부과정	370	7.8	9.7	10.8	40.5	17.6	8.1	5.4
	석·박사과정	237	8.4	10.5	13.9	35.0	20.7	7.2	4.2
	기타(아학연수 등)	87	10.3	5.7	12.6	46.0	17.2	4.6	3.4

온라인 공동체의 연결성을 측정하는 문항 중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은 내가 더 큰 공동체의 일부임을 느끼게 만든다’에 대해 살펴보면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41.1%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학생의 경우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45.7%로 수도권 학생의 37.9%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타 학생의 경우 ‘전혀 동의 못함’이라고 답한 비율이 12.6%로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127 연결성-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은 내가 더 큰 공동체의 일부임을 느끼게 만든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 못함	〈……………〉		보통	……………〉		매우 동의
			11.2	11.4		14.4	6.6	
전체	694	10.5	11.2	11.4	41.1	14.4	6.6	4.8
지역	수도권	414	10.6	12.8	37.9	16.4	7.0	4.6
	비수도권	280	10.4	9.3	45.7	11.4	6.1	5.0
교급	학부과정	370	10.5	11.4	40.3	15.1	7.0	5.7
	석·박사과정	237	10.5	12.7	41.4	12.7	6.3	3.8
	기타(어학연수 등)	87	12.6	10.3	43.7	16.1	5.7	3.4

온라인 공동체의 결속성 척도의 전체 평균은 3.65점이며 표준편차는 1.25점이며, 온라인 공동체의 연결성 척도의 전체 평균은 3.90점이며 표준편차는 1.33점으로 조사되었다. 즉, 사회자본의 확장에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8 온라인 공동체의 결속성 및 연결성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결속성	전체	694	3.65	1.25	
	지역	수도권	414	3.64	1.25
		비수도권	280	3.67	1.26
	교급	학부과정	370	3.64	1.24
		석·박사과정	237	3.67	1.29
		기타(어학연수 등)	87	3.61	1.23
연결성	전체	694	3.90	1.33	
	지역	수도권	414	3.93	1.34
		비수도권	280	3.86	1.33
	교급	학부과정	370	3.93	1.31
		석·박사과정	237	3.88	1.36
		기타(어학연수 등)	87	3.82	1.36

7) 개인적 특성

한국 유학 전 부모나 가족과의 대화에서 주로 사용한 언어를 살펴보면 중국어가 95.7%, 한국어가 3.0% 기타언어가 1.2%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학생의 경우 한국어 비율이 4.3%로 비수도권 학생의 1.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 학생의 경우 한국어 비율이 6.8%로 학부학생 및 기타 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29 한국 유학 전 부모나 가족과의 대화에서 주로 사용한 언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중국어	한국어	영어	기타
전체		694	95.7	3.0	0.1	1.2
지역	수도권	414	94.0	4.3	0.2	1.4
	비수도권	280	98.2	1.1	0.0	0.7
교급	학부과정	370	97.8	1.1	0.3	0.8
	석·박사과정	237	92.0	6.8	0.0	1.3
	기타(어학연수 등)	87	96.6	1.1	0.0	2.3

삶의 가장 큰 개인적 고민은 '진로문제 (취직, 이직, 진학, 군대 등)'가 42.65%로 1순위로 나타났다. 뒤이어 '목표의식이나 꿈의 부재'가 19.31%, '돈 문제(채무, 가난 등)'가 18.59% 순으로 조사되었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쳐도 같은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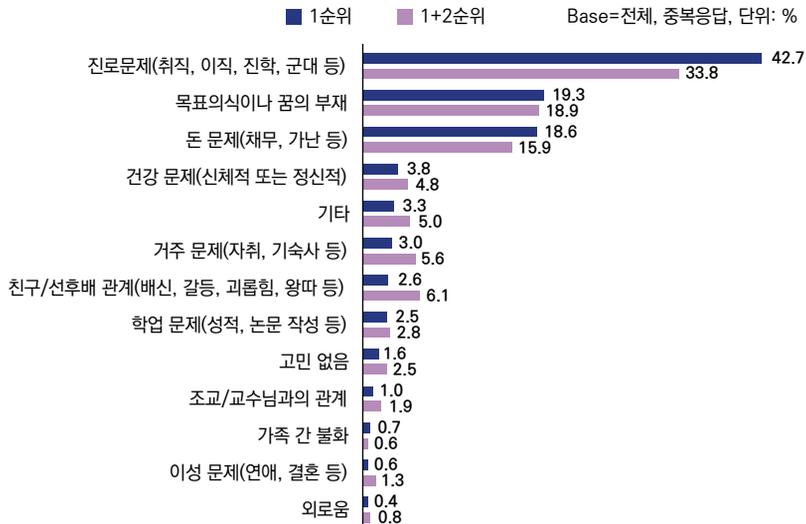
표 4-130 삶의 가장 큰 개인적 고민

(단위: 명, %)

구분	1순위		1+2순위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694	100	1,387	100
진로문제(취직, 이직, 진학, 군대 등)	296	42.65	469	33.81
목표의식이나 꿈의 부재	134	19.31	262	18.89
돈 문제(채무, 가난 등)	129	18.59	221	15.93
건강 문제(신체적 또는 정신적)	26	3.75	67	4.83
기타	23	3.31	69	4.97
거주 문제(자취, 기숙사 등)	21	3.03	78	5.62
친구/선후배관계(배신, 갈등, 괴롭힘, 왕따 등)	18	2.59	84	6.06
학업 문제(성적, 논문작성 등)	17	2.45	39	2.81
고민 없음	11	1.59	34	2.45
조교/교수님과의 관계	7	1.01	27	1.95
가족 간 불화	5	0.72	8	0.58
이성 문제(연애, 결혼 등)	4	0.58	18	1.30
외로움	3	0.43	11	0.79

* 1+2순위는 복수응답으로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그림 4-6 삶의 가장 큰 개인적인 고민(%)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 중 ‘나는 사는 게 즐겁다’를 살펴보면 ‘보통이다’와 ‘그런 편이다’가 각각 41.8%으로 조사되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학원 학생의 경우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44.7%와 9.7%로 학부 학생과 기타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131 삶의 만족도-나는 사는 게 즐겁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94	2.0	7.4	41.8	41.8	7.1
지역	수도권	414	1.7	7.5	41.8	41.3	7.7
	비수도권	280	2.5	7.1	41.8	42.5	6.1
교급	학부과정	370	2.4	8.1	43.2	40.5	5.7
	석·박사과정	237	1.3	5.5	38.8	44.7	9.7
	기타(어학연수 등)	87	2.3	9.2	43.7	39.1	5.7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 중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를 살펴보면 ‘보통이다’가 38.9%,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28.5%, ‘그런 편이다’가 21.6%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학생의 경우 ‘보통이다’와 ‘그런 편이다’가 각각 41.1%와 23.2%로 수도권 학생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 학생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가 7.6%로 학부 및 기타 학생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4-132 삶의 만족도-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94	8.8	28.5	38.9	21.6	2.2	
지역	수도권	414	8.2	31.2	37.4	20.5	2.7
	비수도권	280	9.6	24.6	41.1	23.2	1.4
교급	학부과정	370	9.2	27.0	41.6	20.0	2.2
	석·박사과정	237	7.6	30.8	36.3	23.2	2.1
	기타(어학연수 등)	87	10.3	28.7	34.5	24.1	2.3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 중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 한다’를 살펴보면 ‘그런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41.6%, ‘보통이다’가 37.8%, ‘매우 그렇다’가 9.9%로 나타났다. 수도권 학생의 경우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11.1%와 42.8%로 비수도권 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원 학생의 경우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12.7%와 46.0%로 학부 및 기타 학생에 비해 높았다.

표 4-133 삶의 만족도-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94	2.9	7.8	37.8	41.6	9.9	
지역	수도권	414	2.4	7.2	36.5	42.8	11.1
	비수도권	280	3.6	8.6	39.6	40.0	8.2
교급	학부과정	370	3.8	9.5	38.9	40.0	7.8
	석·박사과정	237	1.3	5.9	34.2	46.0	12.7
	기타(어학연수 등)	87	3.4	5.7	42.5	36.8	11.5

우울을 측정하는 문항 중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우울해한다'를 살펴보면 '보통이다'가 37.6%,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33.6%, '전혀 그렇지 않다'가 16.0%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학생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이 16.9%로 비수도권 학생의 14.6%보다 높았다. 학부학생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이 12.2%로 대학원과 기타 학생 보다 낮았다.

표 4-134 우울-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우울해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94	16.0	33.6	37.6	10.1	2.7
지역	수도권	414	16.9	33.1	37.7	10.1	2.2
	비수도권	280	14.6	34.3	37.5	10.0	3.6
교급	학부과정	370	12.2	34.3	40.0	10.3	3.2
	석·박사과정	237	20.7	36.3	33.8	7.6	1.7
	기타(어학연수 등)	87	19.5	23.0	37.9	16.1	3.4

우울을 측정하는 문항 중 '나는 걱정이 많다'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41.5%,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27.1%, '그런 편이다'가 18.9% 순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학생의 경우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5.7%로 수도권 학생의 2.4%보다 높았다. 학부학생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이 5.7%로 대학원 학생의 11.8%와 기타 학생의 13.8%보다 높았다.

표 4-135 우울-나는 걱정이 많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94	8.8	27.1	41.5	18.9	3.8	
지역	수도권	414	10.1	23.4	43.5	20.5	2.4
	비수도권	280	6.8	32.5	38.6	16.4	5.7
교급	학부과정	370	5.7	26.5	44.1	18.9	4.9
	석·박사과정	237	11.8	31.6	37.1	17.3	2.1
	기타(어학연수 등)	87	13.8	17.2	42.5	23.0	3.4

우울을 측정하는 문항 중 ‘모든 일이 힘들다’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38.3%, ‘보통이다’가 36.7%, ‘그런 편이다’가 11.8% 순으로 조사되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들 간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기타과정 학생의 경우 ‘그런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16.1%로 학부 및 대학원 학생의 12.2%와 9.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136 우울-모든 일이 힘들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94	10.7	38.3	36.7	11.8	2.5	
지역	수도권	414	10.9	37.0	37.4	12.6	2.2
	비수도권	280	10.4	40.4	35.7	10.7	2.9
교급	학부과정	370	8.9	36.5	40.0	12.2	2.4
	석·박사과정	237	12.2	43.5	31.6	9.7	3.0
	기타(어학연수 등)	87	13.8	32.2	36.8	16.1	1.1

우울을 측정하는 문항 중 ‘나는 외롭다’에 대해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34.4%, ‘보통이다’가 34.2% ‘그런 편이다’가 15.3%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들 간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기타과정 학생의 경우 ‘그런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20.7%로 학부 및 대학원 학생의 12.4%와 17.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137 우울-나는 외롭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94	12.7	34.4	34.2	15.3	3.5
지역	수도권	414	12.6	34.1	34.1	15.9	3.4
	비수도권	280	12.9	35.0	34.3	14.3	3.6
교급	학부과정	370	11.6	33.5	38.4	12.4	4.1
	석·박사과정	237	13.9	37.1	28.3	17.7	3.0
	기타(어학연수 등)	87	13.8	31.0	32.2	20.7	2.3

우울을 측정하는 문항 중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에 대해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40.5%, ‘보통이다’가 32.3%, ‘전혀 그렇지 않다’가 19.2%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학생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이 16.1%이나 수도권 학생의 경우 21.3%로 나타났다. 학부학생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이 15.7%로 대학원 학생의 21.1%와 기타 학생의 28.7%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4-138 우울-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94	19.2	40.5	32.3	6.3	1.7	
지역	수도권	414	21.3	36.7	33.1	7.2	1.7
	비수도권	280	16.1	46.1	31.1	5.0	1.8
교급	학부과정	370	15.7	41.6	34.6	6.2	1.9
	석·박사과정	237	21.1	42.6	28.3	6.8	1.3
	기타(어학연수 등)	87	28.7	29.9	33.3	5.7	2.3

우울을 측정하는 문항 중 ‘나는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에 대해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38.6%, ‘보통이다’가 27.0%, ‘전혀 그렇지 않다’가 24.1%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학생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이 26.1%로 비수도권 학생의 21.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부학생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이 18.9%로 대학원과 기타 학생의 29.1%와 32.2%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4-139 우울-나는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94	24.1	38.6	27.0	8.7	1.7	
지역	수도권	414	26.1	36.5	27.8	8.2	1.4
	비수도권	280	21.1	41.8	25.7	9.3	2.1
교급	학부과정	370	18.9	40.5	29.5	8.9	2.2
	석·박사과정	237	29.1	40.9	19.8	8.9	1.3
	기타(어학연수 등)	87	32.2	24.1	35.6	6.9	1.1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는 문항 중 ‘나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36.5%, ‘보통이다’가 32.3%, ‘전혀 그렇지 않다’가 16.6%로 나타났다. 수도권 학생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이 17.6%이나 비수도권 학생의 경우 15.0%로 나타났다. 학부학생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이 15.1%로 대학원과 기타 과정 학생의 17.3%와 20.7%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4-140 사회적 위축-나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94	16.6	36.5	32.3	11.8	2.9
지역	수도권	414	17.6	35.3	30.7	13.0	3.4
	비수도권	280	15.0	38.2	34.6	10.0	2.1
교급	학부과정	370	15.1	34.6	36.2	11.4	2.7
	석·박사과정	237	17.3	39.7	26.2	13.1	3.8
	기타(어학연수 등)	87	20.7	35.6	32.2	10.3	1.1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는 문항 중 ‘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를 살펴보면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41.2%,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28.5%, ‘그런 편이다’가 20.0% 순으로 조사되었다. 수도권 학생의 경우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43.7%로 비수도권 학생의 37.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부학생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이 6.2%로 대학원 학생의 8.4%와 기타 학생의 9.2%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4-141 사회적 위축-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94	7.4	28.5	41.2	20.0	2.9	
지역	수도권	414	8.2	24.6	43.7	20.0	3.4
	비수도권	280	6.1	34.3	37.5	20.0	2.1
교급	학부과정	370	6.2	28.4	41.1	21.1	3.2
	석·박사과정	237	8.4	30.0	40.9	18.6	2.1
	기타(어학연수 등)	87	9.2	25.3	42.5	19.5	3.4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는 문항 중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에 대해 살펴보면,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36.7%,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27.2%, ‘그런 편이다’가 24.4%로 조사되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들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타 학생의 경우 ‘그런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35.6%로 학부학생의 24.9%와 대학원 학생의 19.4%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42 사회적 위축-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94	8.1	27.2	36.7	24.4	3.6	
지역	수도권	414	8.9	25.6	36.0	25.8	3.6
	비수도권	280	6.8	29.6	37.9	22.1	3.6
교급	학부과정	370	7.6	27.0	36.5	24.9	4.1
	석·박사과정	237	7.6	31.2	39.7	19.4	2.1
	기타(어학연수 등)	87	11.5	17.2	29.9	35.6	5.7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는 문항 중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에 대해 살펴보면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37.8%,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27.0%, ‘그런 편이다’가 21.8%순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31.8%로 수도권 학생의 23.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기타 학생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이 12.6%로 학부학생의 7.3%, 대학원 학생의 8.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143 사회적 위축-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694	8.2	27.0	37.8	21.8	5.3
지역	수도권	414	8.9	23.7	39.4	22.7	5.3
	비수도권	280	7.1	31.8	35.4	20.4	5.4
교급	학부과정	370	7.3	26.8	38.1	21.4	6.5
	석·박사과정	237	8.0	30.0	38.0	21.5	2.5
	기타(어학연수 등)	87	12.6	19.5	35.6	24.1	8.0

삶의 만족도의 평균값은 3.24점으로 표준편차는 0.74점으로 나타났다. 우울도의 평균값은 2.51점으로 표준편차는 0.77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의 평균값은 2.77점으로 표준편차는 0.78점으로 나타났다. 석 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우울이나 사회적 위축감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44 삶의 만족도, 우울 및 사회적 위축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삶의 만족도	전체	694	3.24	0.74	
	지역	수도권	414	3.26	0.74
		비수도권	280	3.22	0.74
	교급	학부과정	370	3.19	0.75
		석·박사과정	237	3.33	0.71
		기타(어학연수 등)	87	3.21	0.76
우울	전체	694	2.51	0.77	
	지역	수도권	414	2.51	0.76
		비수도권	280	2.52	0.79
	교급	학부과정	370	2.58	0.75
		석·박사과정	237	2.40	0.79
		기타(어학연수 등)	87	2.52	0.81
사회적 위축	전체	694	2.77	0.78	
	지역	수도권	414	2.79	0.79
		비수도권	280	2.74	0.75
	교급	학부과정	370	2.81	0.77
		석·박사과정	237	2.70	0.75
		기타(어학연수 등)	87	2.80	0.87

‘최근 1년간 한국에서의 활동’ 중 ‘온라인 종교 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전혀 안 한다’고 답한 비율이 62.3%, ‘거의 하지 않는다’가 18.4%, ‘가끔 한다’가 13.5% 순으로 조사되었다. ‘오프라인 종교 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전혀 안 한다’가 58.4%, ‘거의 하지 않는다’가 19.6%, ‘가끔 한다’가 15.4%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45 최근 1년간 한국에서의 활동-종교 활동(교회, 사찰, 선교 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안한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온라인	전체	694	62.3	18.4	13.5	5.8	
	지역	수도권	414	68.8	15.7	11.6	3.9
		비수도권	280	52.5	22.5	16.4	8.6
	교급	학부과정	370	58.9	21.9	14.1	5.1
		석·박사과정	237	65.0	13.9	13.5	7.6
		기타(어학연수 등)	87	69.0	16.1	11.5	3.4
오프라인	전체	694	58.4	19.6	15.4	6.6	
	지역	수도권	414	63.3	18.4	13.3	5.1
		비수도권	280	51.1	21.4	18.6	8.9
	교급	학부과정	370	57.0	22.7	14.9	5.4
		석·박사과정	237	58.2	16.5	16.0	9.3
		기타(어학연수 등)	87	64.4	14.9	16.1	4.6

‘최근 1년간 한국에서의 활동’ 중 ‘온라인 취미 동호회/동아리 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전혀 안 한다’고 답한 비율이 32.9%, ‘거의 하지 않는다’가 32.1%, ‘가끔 한다’가 30.7% 순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취미 동호회/동아리 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전혀 안 한다’가 32.7%, ‘거의 하지 않는다’가 32.6%, ‘가끔 한다’가 29.4%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46 최근 1년간 한국에서의 활동-취미 동호회/동아리 활동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안한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온라인	전체	694	32.9	32.1	30.7	4.3	
	지역	수도권	414	34.8	32.4	29.0	3.9
		비수도권	280	30.0	31.8	33.2	5.0
	교급	학부과정	370	31.1	31.1	31.1	6.8
		석·박사과정	237	33.3	34.6	30.4	1.7
		기타(어학연수 등)	87	39.1	29.9	29.9	1.1
오프라인	전체	694	32.7	32.6	29.4	5.3	
	지역	수도권	414	32.9	33.6	28.7	4.8
		비수도권	280	32.5	31.1	30.4	6.1
	교급	학부과정	370	31.1	31.1	30.5	7.3
		석·박사과정	237	33.8	36.7	26.6	3.0
		기타(어학연수 등)	87	36.8	27.6	32.2	3.4

‘최근 1년간 한국에서의 활동’ 중 ‘온라인 중국인 유학생 단체/연합회 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가끔 한다’가 35.3%, ‘거의하지 않는다’가 30.0%, ‘전혀 안 한다’가 21.8% 순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취미 동호회/동아리 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가끔 한다’가 35.0%, ‘거의하지 않는다’가 26.7%, ‘전혀 안 한다’가 25.9%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47 최근 1년간 한국에서의 활동-중국인 유학생 단체/연합회 활동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안한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온라인	전체	694	21.8	30.0	35.3	13.0	
	지역	수도권	414	23.9	28.3	35.7	12.1
		비수도권	280	18.6	32.5	34.6	14.3
	교급	학부과정	370	18.6	28.4	35.4	17.6
		석·박사과정	237	22.8	32.9	35.4	8.9
		기타(어학연수 등)	87	32.2	28.7	34.5	4.6
오프라인	전체	694	25.9	26.7	35.0	12.4	
	지역	수도권	414	26.1	27.5	34.3	12.1
		비수도권	280	25.7	25.4	36.1	12.9
	교급	학부과정	370	21.6	27.3	34.1	17.0
		석·박사과정	237	28.3	27.0	36.7	8.0
		기타(어학연수 등)	87	37.9	23.0	34.5	4.6

‘최근 1년간 한국에서의 활동’ 중 ‘온라인 지역사회 활동’에 대해 살펴 보면 ‘전혀 안 한다’고 답한 비율이 46.8%, ‘거의 하지 않는다’가 32.6%, ‘가끔 한다’가 17.9% 순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취미 동호회/동아리 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전혀 안한다’가 46.8%, ‘거의 하지 않는다’가 32.4%, ‘가끔 한다’가 18.4%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48 최근 1년간 한국에서의 활동-지역사회 활동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안한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온라인	전체	694	46.8	32.6	17.9	2.7	
	지역	수도권	414	50.7	30.4	16.4	2.4
		비수도권	280	41.1	35.7	20.0	3.2
	교급	학부과정	370	45.1	32.7	18.6	3.5
		석·박사과정	237	48.9	32.5	16.9	1.7
		기타(어학연수 등)	87	48.3	32.2	17.2	2.3
오프라인	전체	694	46.8	32.4	18.4	2.3	
	지역	수도권	414	49.3	30.4	18.6	1.7
		비수도권	280	43.2	35.4	18.2	3.2
	교급	학부과정	370	45.1	32.4	19.7	2.7
		석·박사과정	237	47.3	33.8	17.3	1.7
		기타(어학연수 등)	87	52.9	28.7	16.1	2.3

‘최근 1년간 한국에서의 활동’ 중 ‘온라인 기부/봉사 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전혀 안 한다’고 답한 비율이 36.2%, ‘거의 하지 않는다’가 31.7%, ‘가끔 한다’가 28.1% 순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취미 동호회/ 동아리 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전혀 안 한다’가 36.3%, ‘거의 하지 않는다’가 33.0%, ‘가끔 한다’가 27.1%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49 최근 1년간 한국에서의 활동-기부/봉사 활동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안한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온라인	전체	694	36.2	31.7	28.1	4.0	
	지역	수도권	414	41.5	28.0	26.8	3.6
		비수도권	280	28.2	37.1	30.0	4.6
	교급	학부과정	370	32.4	33.2	30.5	3.8
		석·박사과정	237	37.6	31.2	26.2	5.1
		기타(어학연수 등)	87	48.3	26.4	23.0	2.3
오프라인	전체	694	36.3	33.0	27.1	3.6	
	지역	수도권	414	37.7	32.6	26.6	3.1
		비수도권	280	34.3	33.6	27.9	4.3
	교급	학부과정	370	33.5	34.1	28.1	4.3
		석·박사과정	237	36.7	32.5	27.0	3.8
		기타(어학연수 등)	87	47.1	29.9	23.0	0.0

8)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 중 ‘유학생에 대한 인턴십 기회 확대’에 대해 살펴 보면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52.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수도권 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55.0%로 수도권 학생의 51.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기타 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54.0%로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의 52.4%와 52.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150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유학생에 대한 인턴십 기회 확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 없음	〈……………〉		보통	……………〉		매우 필요
전체		694	0.9	1.2	2.6	16.6	14.8	11.2	52.7
지역	수도권	414	1.0	1.2	3.4	15.9	16.4	10.9	51.2
	비수도권	280	0.7	1.1	1.4	17.5	12.5	11.8	55.0
교급	학부과정	370	1.1	0.8	2.7	16.8	16.5	9.7	52.4
	석·박사과정	237	0.0	1.7	2.5	16.0	13.1	13.9	52.7
	기타(어학연수 등)	87	2.3	1.1	2.3	17.2	12.6	10.3	54.0

‘취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에 대해 살펴보면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51.0%이다. 비수도권 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52.9%로 수도권 학생의 49.8%에 비해 높았다. 대학원 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53.2%로 학부학생의 49.2%에 비해 높았다.

표 4-151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취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 없음	〈……………〉		보통	……………〉		매우 필요
전체		694	0.9	0.7	3.3	15.4	15.6	13.1	51.0
지역	수도권	414	1.0	0.7	3.9	14.3	17.1	13.3	49.8
	비수도권	280	0.7	0.7	2.5	17.1	13.2	12.9	52.9
교급	학부과정	370	1.4	0.5	3.0	16.2	16.5	13.2	49.2
	석·박사과정	237	0.4	0.4	3.0	13.1	15.6	14.3	53.2
	기타(어학연수 등)	87	0.0	2.3	5.7	18.4	11.5	9.2	52.9

‘대학-기업-지역사회가 연계한 취업관련 행사 확대’를 살펴보면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48.3%로 나타났다. 수도권 학생의 경우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14.7%로 비수도권 학생의 20.7%보다 낮게 나타났다.

학부 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46.5%로 대학원 학생의 49.8%와 기타 학생의 51.7%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4-152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대학-기업-지역사회가 연계한 취업관련 행사 확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 없음	〈……………〉		보통	……………〉		매우 필요
전 체		694	0.9	0.7	3.2	17.2	16.1	13.7	48.3
지역	수도권	414	1.2	0.7	3.9	14.7	18.6	13.3	47.6
	비수도권	280	0.4	0.7	2.1	20.7	12.5	14.3	49.3
교급	학부과정	370	0.8	0.5	3.8	19.2	15.7	13.5	46.5
	석·박사과정	237	0.8	0.4	1.7	13.9	17.7	15.6	49.8
	기타(어학연수 등)	87	1.1	2.3	4.6	17.2	13.8	9.2	51.7

'등록금 및 교육비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에 대해 살펴보면'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58.1%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61.1%로 수도권 학생의 56.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부 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56.2%로 대학원 학생의 60.8%와 기타 학생의 58.6%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4-153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등록금 및 교육비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 없음	〈……………〉		보통	……………〉		매우 필요
전 체		694	0.7	0.7	2.5	12.5	12.3	13.3	58.1
지역	수도권	414	1.0	1.0	2.4	10.9	14.7	14.0	56.0
	비수도권	280	0.4	0.4	2.5	15.0	8.6	12.1	61.1
교급	학부과정	370	0.8	0.5	2.7	14.1	12.4	13.2	56.2
	석·박사과정	237	0.4	0.8	2.1	10.1	11.8	13.9	60.8
	기타(어학연수 등)	87	1.1	1.1	2.3	12.6	12.6	11.5	58.6

‘양질의 영어 강의 개설/확대’에 대해 살펴보면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43.4%로 조사되었다. 대학원 학생의 경우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19.4%로 학부 학생의 25.9%에 비해 낮았다.

표 4-154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양질의 영어 강의 개설/확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 없음	〈……………〉		보통	……………〉		매우 필요	
전체	694	2.3	1.9	2.9	23.1	14.4	12.1	43.4	
지역	수도권	414	2.4	1.9	2.7	21.5	17.1	12.1	42.3
	비수도권	280	2.1	1.8	3.2	25.4	10.4	12.1	45.0
교급	학부과정	370	2.7	1.6	2.7	25.9	14.6	9.7	42.7
	석·박사과정	237	1.3	2.1	3.0	19.4	13.1	16.5	44.7
	기타(어학연수 등)	87	3.4	2.3	3.4	20.7	17.2	10.3	42.5

‘한국어 지원 서비스 확대(리포트/ 논문 수정 등)’에 대해 살펴보면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54.2%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56.1%로 수도권 학생의 52.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155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한국어 지원 서비스 확대(리포트/ 논문 수정 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 없음	〈……………〉		보통	……………〉		매우 필요	
전체	694	0.9	1.2	2.0	14.7	14.1	13.0	54.2	
지역	수도권	414	0.5	1.2	2.9	14.7	14.7	13.0	52.9
	비수도권	280	1.4	1.1	0.7	14.6	13.2	12.9	56.1
교급	학부과정	370	1.4	1.4	0.8	13.5	16.2	11.9	54.9
	석·박사과정	237	0.4	0.8	3.4	16.9	11.4	14.3	52.7
	기타(어학연수 등)	87	0.0	1.1	3.4	13.8	12.6	13.8	55.2

‘영어 지원 서비스 확대(리포트/ 논문 수정 등)’에 대해 살펴보면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45.5%로 나타났다. 수도권 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47.1%로 비수도권의 43.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기타 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49.4%로 학부학생의 44.3%와 대학원 학생의 46.0%에 비해 높았다.

표 4-156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영어 지원 서비스 확대(리포트/ 논문 수정 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 없음	〈……………〉		보통	……………〉		매우 필요
전체		694	1.6	1.4	3.8	19.0	15.4	13.3	45.5
지역	수도권	414	1.0	1.0	3.9	18.4	16.9	11.8	47.1
	비수도권	280	2.5	2.1	3.6	20.0	13.2	15.4	43.2
교급	학부과정	370	1.4	2.2	3.5	17.8	16.8	14.1	44.3
	석·박사과정	237	1.7	0.4	4.2	21.5	13.5	12.7	46.0
	기타(어학연수 등)	87	2.3	1.1	3.4	17.2	14.9	11.5	49.4

‘양질의 중국어 강의 개설/확대’에 대해 살펴보면,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35.5%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38.9%로 수도권 학생의 33.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 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27.8%로 학부학생의 40.0%와 기타 학생의 36.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157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양질의 중국어 강의 개설/확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 없음	〈……………〉		보통	……………〉		매우 필요	
			4.5	3.9		13.7	11.4		
전체	694	4.6	4.5	3.9	26.5	13.7	11.4	35.5	
지역	수도권	414	4.6	4.8	3.9	27.8	14.3	11.6	33.1
	비수도권	280	4.6	3.9	3.9	24.6	12.9	11.1	38.9
교급	학부과정	370	4.3	3.8	3.2	23.0	14.1	11.6	40.0
	석·박사과정	237	5.9	5.9	5.1	30.8	11.8	12.7	27.8
	기타(어학연수 등)	87	2.3	3.4	3.4	29.9	17.2	6.9	36.8

‘멘토링제 지원/확대’에 대해 살펴보면,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48.9%로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대학원 학생이 19.0%로 학부 학생의 15.4%와 기타 학생의 14.9%에 비해 높았다.

표 4-158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멘토링제 지원/확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 없음	〈……………〉		보통	……………〉		매우 필요	
			1.0	2.0		16.6	14.4		
전체	694	0.6	1.0	2.0	16.6	16.6	14.4	48.9	
지역	수도권	414	0.7	1.2	2.2	15.9	17.4	14.0	48.6
	비수도권	280	0.4	0.7	1.8	17.5	15.4	15.0	49.3
교급	학부과정	370	0.8	0.8	1.9	15.4	17.6	14.6	48.9
	석·박사과정	237	0.4	1.3	1.7	19.0	13.9	15.6	48.1
	기타(어학연수 등)	87	0.0	1.1	3.4	14.9	19.5	10.3	50.6

‘재학중인 학교의 국내외적인 평판도 제고 노력’에 대해 살펴보면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44.5%, ‘보통’이 19.3%로 나타났다. 수도권 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비수도권의 46.4%에 비해 낮

았다. 학부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47.6%로 대학원 및 기타 학생의 41.4%와 40.2%에 비해 높았다.

표 4-159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재학중인 학교의 국내외적인 평판도 제고 노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 없음	〈……………〉		보통	……………〉		매우 필요
전체		694	2.2	1.6	2.2	19.3	16.9	13.4	44.5
지역	수도권	414	2.9	2.4	1.9	19.3	17.4	12.8	43.2
	비수도권	280	1.1	0.4	2.5	19.3	16.1	14.3	46.4
교급	학부과정	370	0.8	0.5	2.2	17.8	18.4	12.7	47.6
	석·박사과정	237	3.4	3.4	1.7	21.1	15.6	13.5	41.4
	기타(어학연수 등)	87	4.6	1.1	3.4	20.7	13.8	16.1	40.2

‘복지 서비스 이용(의료보험, 심리상담 등)’에 대해 살펴보면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46.1%, ‘보통’이 17.9%로 나타났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 학생 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기타 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49.4%로 학부 및 대학원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160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복지 서비스 이용(의료보험, 심리상담 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 없음	〈……………〉		보통	……………〉		매우 필요
전체		694	0.6	1.0	1.9	17.9	16.3	16.3	46.1
지역	수도권	414	0.2	1.0	1.9	17.1	17.4	15.9	46.4
	비수도권	280	1.1	1.1	1.8	18.9	14.6	16.8	45.7
교급	학부과정	370	1.1	0.5	1.9	17.0	18.1	15.7	45.7
	석·박사과정	237	0.0	1.3	2.1	18.6	13.5	19.0	45.6
	기타(어학연수 등)	87	0.0	2.3	1.1	19.5	16.1	11.5	49.4

‘창업 관련 상담 및 지원’에 관해 살펴보면,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46.1%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기타 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48.3%로 학부 및 대학원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161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창업 관련 상담 및 지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 없음	〈……………〉		보통	……………〉		매우 필요
전체		694	0.3	1.2	2.6	17.3	17.3	15.3	46.1
지역	수도권	414	0.2	1.7	2.7	17.4	17.1	15.5	45.4
	비수도권	280	0.4	0.4	2.5	17.1	17.5	15.0	47.1
교급	학부과정	370	0.5	0.5	2.4	16.8	16.8	16.5	46.5
	석·박사과정	237	0.0	1.7	3.4	16.5	19.0	14.8	44.7
	기타(여학연수 등)	87	0.0	2.3	1.1	21.8	14.9	11.5	48.3

‘법적 보호(주거 문제, 아르바이트 문제, 분쟁 등과 관련된 법적 대응 및 지원)에 관해 살펴보면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53%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54.6%로 수도권 학생의 51.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기타 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55.2%로 학부 및 대학원 학생에 비해 높았다.

표 4-162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법적 보호(주거 문제, 아르바이트 문제, 분쟁 등과 관련된 법적 대응 및 지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 없음	〈……………〉		보통	……………〉		매우 필요
전체		694	0.6	1.0	2.0	14.3	15.3	13.8	53.0
지역	수도권	414	0.7	1.4	2.2	13.8	16.2	13.8	51.9
	비수도권	280	0.4	0.4	1.8	15.0	13.9	13.9	54.6
교급	학부과정	370	0.5	0.5	2.4	14.1	14.9	14.9	52.7
	석·박사과정	237	0.8	1.3	1.7	13.5	16.0	13.9	52.7
	기타(어학연수 등)	87	0.0	2.3	1.1	17.2	14.9	9.2	55.2

‘비자 발급/ 갱신 제도의 개선’에 대해 살펴보면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50.3%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 및 교급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163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비자 발급/ 갱신 제도의 개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 없음	〈……………〉		보통	……………〉		매우 필요
전체		694	0.3	1.3	1.4	15.7	16.3	14.7	50.3
지역	수도권	414	0.2	1.0	1.9	15.0	15.7	15.7	50.5
	비수도권	280	0.4	1.8	0.7	16.8	17.1	13.2	50.0
교급	학부과정	370	0.5	1.1	1.1	15.4	15.4	15.7	50.8
	석·박사과정	237	0.0	1.3	2.1	15.6	17.3	15.2	48.5
	기타(어학연수 등)	87	0.0	2.3	1.1	17.2	17.2	9.2	52.9

‘유학생생활 안내 확대 및 내실화’에 대해 살펴보면,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51.9%로 나타났다.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학원 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48.9%로 학부 및 기타학생의 52.7%와 56.3%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4-164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유학생할 안내 확대 및 내실화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 없음	〈……………〉		보통	……………〉		매우 필요	
전체	694	0.4	0.6	1.6	14.3	15.1	16.1	51.9	
지역	수도권	414	0.5	0.7	1.9	14.5	15.0	15.5	51.9
	비수도권	280	0.4	0.4	1.1	13.9	15.4	17.1	51.8
교급	학부과정	370	0.5	0.0	2.2	13.2	15.1	16.2	52.7
	석·박사과정	237	0.4	0.4	0.8	15.6	14.8	19.0	48.9
	기타(어학연수 등)	87	0.0	3.4	1.1	14.9	16.1	8.0	56.3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 대해서 살펴보면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46.5%로 나타났다. 지역 및 교급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65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 없음	〈……………〉		보통	……………〉		매우 필요	
전체	694	0.4	0.9	2.2	17.2	17.2	15.7	46.5	
지역	수도권	414	0.5	1.0	2.4	16.7	16.7	16.4	46.4
	비수도권	280	0.4	0.7	1.8	17.9	17.9	14.6	46.8
교급	학부과정	370	0.5	0.3	1.6	15.9	17.8	16.8	47.0
	석·박사과정	237	0.4	0.8	3.0	17.3	16.5	16.0	46.0
	기타(어학연수 등)	87	0.0	3.4	2.3	21.8	16.1	10.3	46.0

‘일반인들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 대해서 살펴보면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46.0%로 나타났다. 지역 및 교급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166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일반인들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 없음	〈……………〉		보통	……………〉		매우 필요	
전체	694	0.4	0.9	1.7	18.4	16.7	15.9	46.0	
지역	수도권	414	0.5	0.7	1.7	17.6	17.1	15.9	46.4
	비수도권	280	0.4	1.1	1.8	19.6	16.1	15.7	45.4
교급	학부과정	370	0.5	0.8	1.4	15.7	18.6	17.3	45.7
	석·박사과정	237	0.4	0.4	2.5	19.8	13.9	16.0	46.8
	기타(어학연수 등)	87	0.0	2.3	1.1	26.4	16.1	9.2	44.8

‘식생활(중국음식 등) 제공 확대’에 대해 알아보면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47.1%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경우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51.8%로 수도권의 44.0%에 비해 높게 나타나 비수도권 유학생들이 식생활의 고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부학생 및 기타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49.5%와 48.3%로 대학원 학생의 43.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167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식생활(중국음식 등) 제공 확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 없음	〈……………〉		보통	……………〉		매우 필요	
전체	694	0.4	1.0	2.2	20.0	15.3	14.0	47.1	
지역	수도권	414	0.2	1.4	2.9	20.0	15.7	15.7	44.0
	비수도권	280	0.7	0.4	1.1	20.0	14.6	11.4	51.8
교급	학부과정	370	0.5	0.3	1.9	18.6	15.1	14.1	49.5
	석·박사과정	237	0.4	0.8	3.0	21.5	15.6	15.6	43.0
	기타(어학연수 등)	87	0.0	4.6	1.1	21.8	14.9	9.2	48.3

‘아르바이트 제도의 개선(허가,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살펴보면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52.6%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55.4%로 수도권 학생의 50.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 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49.8%로 학부 및 기타 학생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4-168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아르바이트 제도의 개선(허가, 절차 간소화 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 없음	〈……………〉		보통	……………〉		매우 필요
전체		694	0.4	0.6	2.3	15.4	14.1	14.6	52.6
지역	수도권	414	0.5	0.5	2.7	16.2	14.7	14.7	50.7
	비수도권	280	0.4	0.7	1.8	14.3	13.2	14.3	55.4
교급	학부과정	370	0.5	0.0	1.9	14.6	15.1	14.1	53.8
	석·박사과정	237	0.4	1.3	3.0	16.0	12.7	16.9	49.8
	기타(어학연수 등)	87	0.0	1.1	2.3	17.2	13.8	10.3	55.2

‘주거 지원 확대 및 개선’에 대해 살펴보면,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53.2%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 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학부 및 기타 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53.5%와 55.2%로 대학원 학생의 51.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169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주거 지원 확대 및 개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 없음	〈……………〉		보통	……………〉		매우 필요	
전체	694	0.6	0.4	2.2	14.3	14.6	14.8	53.2	
지역	수도권	414	0.7	0.5	2.4	13.5	15.0	15.5	52.4
	비수도권	280	0.4	0.4	1.8	15.4	13.9	13.9	54.3
교급	학부과정	370	0.5	0.0	2.4	14.1	14.1	15.4	53.5
	석·박사과정	237	0.4	0.4	1.7	14.8	15.6	15.2	51.9
	기타(어학연수 등)	87	1.1	2.3	2.3	13.8	13.8	11.5	55.2

‘학점 부여 시 한국인 학생과 중국인 유학생의 분리 평가’에 대해 살펴 보면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43.5%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48.2%로 수도권 학생의 40.3%에 비해 높았으며, 학부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48.6%로 대학원 및 기타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170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학점 부여 시 한국인 학생과 중국인 유학생의 분리 평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 없음	〈……………〉		보통	……………〉		매우 필요	
전체	694	4.0	3.0	3.6	20.8	13.7	11.4	43.5	
지역	수도권	414	5.1	3.9	4.3	19.8	14.3	12.3	40.3
	비수도권	280	2.5	1.8	2.5	22.1	12.9	10.0	48.2
교급	학부과정	370	2.2	1.4	2.2	19.5	13.0	13.2	48.6
	석·박사과정	237	6.3	5.9	5.9	22.8	13.9	7.6	37.6
	기타(어학연수 등)	87	5.7	2.3	3.4	20.7	16.1	13.8	37.9

중국인 유학생들이 응답한 이들이 선호하는 Top 3 지원정책 및 서비스는 등록금 및 교육비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유학생할 안내 확대 및 내실화, 주거지원 확대 및 개선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들을 분리하여 별도로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와 중국어 강의 개설 및 확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71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서비스 (순위)

문항	평균	표준편차	순위
등록금 및 교육비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6.07	1.31	1순위
유학생할 안내 확대 및 내실화	5.99	1.26	공동2순위
주거 지원 확대 및 개선	5.99	1.29	공동2순위
법적보호 (주거문제, 아르바이트 문제, 분쟁 등과 관련된 법적대응 및 지원)	5.96	1.32	공동4순위
아르바이트제도의개선(허가, 절차 간소화 등)	5.96	1.30	공동4순위
한국어지원서비스확대(리포트/논문 수정 등)	5.96	1.36	공동4순위
비자발급/갱신제도의개선	5.92	1.30	7순위
유학생에 대한 인턴십 기회 확대	5.88	1.40	8순위
취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5.87	1.38	9순위
멘토링제 지원/확대	5.86	1.34	10순위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5.83	1.32	11순위
복지서비스이용(의료보험, 심리상담 등)	5.82	1.33	12순위
일반인들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5.82	1.32	13순위
대학-기업-지역사회가 연계한 취업관련 행사 확대	5.81	1.38	14순위
창업 관련 상담 및 지원	5.80	1.33	15순위
식생활(중국음식 등)제공확대	5.79	1.36	16순위
영어지원 서비스 확대(리포트/논문수정 등)	5.67	1.49	17순위
재학 중인 학교의 국내외적인 평판도 제고 노력	5.65	1.50	18순위
양질의 영어강의 개설/확대	5.55	1.56	19순위
학점 부여 시 한국인 학생과 중국인 유학생의 분리 평가	5.45	1.71	20순위
양질의 중국어 강의 개설/확대	5.16	1.75	21순위

9)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의 영향요인

여기에서는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 밝힌 것처럼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둘로 나눠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살펴보았다.

(1)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먼저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부터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 4-172>은 남성더미(여성기준), 대학원재학더미(대학재학 기준)를 통제변수로, 한국어의 어려움, 영어의 어려움, 학교공부의 어려움, 학업 관련 정보의 제약, 학비 조달의 어려움, 생활비/주거비 조달의 어려움, 아르바이트 구하기 어려움, 음식적응의 어려움, 신체적 건강의 문제, 한국 일상생활 관련 정보의 제약, 비자발급 및 갱신의 어려움, 가족, 연인, 친구에 대한 그리움에 의한 어려움, 외로움에 의한 어려움, 중국인 동료/선후배와의 관계의 어려움, 한국인 동료/선후배와의 관계의 어려움, 조교와의 관계의 어려움, 교수/강사와의 관계의 어려움, 교내 유학생 담당직원과의 관계의 어려움, 한국사회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의 어려움, 소셜미디어 사회자본, 취업/창업 관련 정보의 제약, 진학 관련 정보의 제약, 취업/창업 지원의 부족을 독립변수로 하여 이들 변수들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이다(수정된 R제곱=0.318, 유의확률=0.000).

통제변수인 남성더미(여성기준) 변수는 성별을 (1) 남, (2) 여로 측정한

것을 여=0, 남=1의 남성더미(여성기준) 변수로 만들어 투입하였고, 대학원재학더미(대학재학기준) 변수는 (1) 대학교 1학년, (2) 대학교 2학년, (3) 대학교 3학년, (4) 대학교 4학년, (5) 대학원 석사과정, (6) 대학원 박사과정으로 측정된 것을 (1)~(4) 대학재학=0, (5)~(6) 대학원재학=1의 대학원재학더미(대학재학기준) 변수로 만들어 투입하였다.

독립변수인 한국어의 어려움, 영어의 어려움, 학교공부의 어려움, 학업 관련 정보의 제약, 학비 조달의 어려움, 생활비/주거비 조달의 어려움, 아르바이트 구하기 어려움, 음식적응의 어려움, 신체적 건강의 문제, 한국 일상생활 관련 정보의 제약, 비자발급 및 갱신의 어려움, 가족, 연인, 친구에 대한 그리움에 의한 어려움, 외로움에 의한 어려움, 중국인 동료/선후배와의 관계의 어려움, 한국인 동료/선후배와의 관계의 어려움, 조교와의 관계의 어려움, 교수/강사와의 관계의 어려움, 교내 유학생 담당직원과의 관계의 어려움, 한국사회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의 어려움, 취업/창업 관련 정보의 제약, 진학 관련 정보의 제약, 취업/창업 지원의 부족 변수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 유학생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1) 전혀 어렵지 않다~(7) 매우 어렵다의 7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그대로 투입하였다.

독립변수인 소셜미디어 사회자본(Williams, 2006; 금희조, 2011) 변수는 (1)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 중,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신뢰하는 사람이 많다~(10)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은 내가 더 큰 공동체의 일부임을 느끼게 만든다의 10개 문항 각각에 대해 (1) 전혀 동의못함~(7) 매우 동의함의 7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전부 더한 후 10으로 나눠 분석에 투입하였다(Cronbach의 알파=0.952).

종속변수인 문화적응스트레스(Sandhu & Asrabadi, 1994; 이승중, 1995) 변수는 (1) 내가 가진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15) 나는 내 고향과 중국에 있는 지인들을 그리워한다는 15개 문항 각각에 대해 (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전부 더한 후 15로 나눠 분석에 투입하였다(Cronbach의 알파=0.915).

투입된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는지를 VIF 계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투입한 독립변수들 중 한국어의 어려움(베타=0.108, 유의확률=0.008), 외로움에 의한 어려움(베타=0.152, 유의확률=0.003), 한국인 동료/선후배와의 관계의 어려움(베타=0.152, 유의확률=0.001), 한국사회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의 어려움(베타=0.331, 유의확률=0.000)의 네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사회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 어려움을 느낄수록, 한국인 동료/선후배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수록, 한국에서의 외로움에 의한 어려움을 느낄수록, 한국어에 어려움을 느낄수록의 순서대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데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문화적응스트레스에는 한국사회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의 어려움, 한국인 동료/선후배와의 관계의 어려움, 외로움에 의한 어려움과 같은 사회적 관계요인과 한국어의 어려움과 같은 언어적인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들 부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4-172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베타)	t	유의확률	VIF
(상수)	1.220		8.273	.000	
남성더미(여성기준)	.075	.049	1.390	.165	1.093
대학원재학더미(대학재학기준)	-.053	-.040	-1.102	.271	1.149
한국어의 어려움	.045	.108	2.647	.008	1.479
영어의 어려움	-.015	-.035	-.944	.346	1.192
학교공부 어려움	-.021	-.038	-.947	.344	1.467
학업 관련 정보의 제약	-.014	-.033	-.684	.494	2.076
학비 조달의 어려움	-.005	-.014	-.220	.826	3.467
생활비/주거비 조달의 어려움	.025	.058	.888	.375	3.767
아르바이트 구하기 어려움	-.002	-.005	-.114	.909	1.588
음식적응의 어려움	.007	.018	.463	.643	1.391
신체적 건강의 문제	.023	.057	1.354	.176	1.580
한국 일상생활 관련 정보의 제약	.019	.042	.871	.384	2.079
비지발급 및 갱신의 어려움	.014	.033	.767	.444	1.623
가족, 연인, 친구에 대한 그리움에 의한 어려움	.014	.034	.677	.498	2.213
외로움에 의한 어려움	.062	.152	2.990	.003	2.298
중국인 동료/선배와의 관계의 어려움	.005	.011	.275	.784	1.316
한국인 동료/선배와의 관계의 어려움	.067	.152	3.338	.001	1.850
조교와의 관계의 어려움	-.044	-.094	-1.949	.052	2.066
교수/강사와의 관계의 어려움	.025	.053	1.053	.293	2.236
교내 유학생 담당직원과의 관계의 어려움	.017	.036	.810	.418	1.753
한국사회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의 어려움	.146	.331	7.621	.000	1.676
소셜미디어 사회자본	.026	.049	1.426	.154	1.044
취업/창업 관련 정보의 제약	-.038	-.083	-1.630	.104	2.329
진학 관련 정보의 제약	.001	.002	.042	.967	2.316
취업/창업 지원의 부족	.002	.003	.072	.943	2.012
수정된 R제곱=0.318(유의확률=0.000)					

(2)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으로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 4-173>는 남성더미(여성기준), 대학원재학더미(대학재학 기준)를 통제변수로 하고, 한국어강의 이해정도, 영어강의 이해정도, 교내 한국어지원서비스 만족도, 교내 영어지원서비스 만족도, 대학의 커리큘럼 만족도, 교수의 강의 만족도, 교수의 학생지도 만족도, 도서관(중국 DB구축 등) 및 사서 서비스 만족도, 유학생에 대한 학사행정 만족도, 학교의 기숙사운영 만족도, 외국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고충처리 만족도, 유학생을 위한 비자 및 국제 업무 지원 만족도, 같은 학교 중국인 학생과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 같은 학교의 한국학생과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 같은 학교의 타국 유학생과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 같은 학교 교수/강사와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 행정 및 국제업무 담당직원과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 학교의 취업/창업 지원 서비스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이들 변수들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 본 결과이다(수정된 R제곱=0.295, 유의확률=0.000).

앞의 문화적응스트레스 회귀모형과 마찬가지로, 통제변수인 남성더미(여성기준) 변수는 성별을 (1) 남, (2) 여로 측정한 것을 여=0, 남=1의 남성더미(여성기준) 변수로 리코딩하여 회귀분석에 투입하였고, 대학원재학더미(대학재학기준) 변수는 (1) 대학교 1학년, (2) 대학교 2학년, (3) 대학교 3학년, (4) 대학교 4학년, (5) 대학원 석사과정, (6) 대학원 박사과정

으로 측정된 것을 (1)~(4) 대학재학=0, (5)~(6) 대학원재학=1의 대학원재학더미(대학재학기준) 변수로 리코딩하여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독립변수인 한국어강의 이해정도와 영어강의 이해정도 변수는 각각에 대해 (1) 20%미만, (2) 20~40%미만, (3) 40~60%미만, (4) 60~80%미만, (5) 80%이상의 5점 척도로 측정된 후 그대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독립변수인 교내 한국어지원서비스 만족도, 교내 영어지원서비스 만족도, 대학의 커리큘럼 만족도, 교수의 강의 만족도, 교수의 학생지도 만족도, 도서관(중국 DB구축 등) 및 사서 서비스 만족도, 유학생에 대한 학사행정 만족도, 학교의 기숙사운영 만족도, 외국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고충처리 만족도, 유학생을 위한 비자 및 국제 업무 지원 만족도, 학교의 취업/창업 지원 서비스 만족도 변수(허재준 외, 2011)는 각각의 만족도에 대해 (1) 매우 불만족~(5) 매우 만족의 5점 척도로 측정된 후 분석에 투입하였다.

독립변수인 같은 학교 중국인 학생과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 같은 학교의 한국학생과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 같은 학교의 타국 유학생과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 같은 학교 교수/강사와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 행정 및 국제업무 담당직원과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 변수는 각각에 대해 (1) 전혀 하지 않는다~(5) 매우 자주하는 편이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된 후 분석에 투입하였다.

종속변수인 대학적응(Baker & Siryk, 1984) 변수는 (1) 나는 공부를 밀리지 않고 잘해 나가고 있다~(8) 나는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8개 문항 각각에 대해 (1) 전혀 그렇지 않다~(7)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4개의 부정적인 문항을 긍정적으로 리코드하고, 전부 더

한 후 8로 나눠 분석에 투입하였다(Cronbach의 알파=0.770).

투입된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에 대해 VIF 계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투입한 독립변수들 중 한국어강의 이해정도(베타=0.103, 유의확률=0.012), 대학의 커리큘럼 만족도(베타=0.242, 유의확률=0.000), 교수의 강의 만족도(베타=0.192, 유의확률=0.002), 같은 학교 중국인 학생과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베타=-0.106, 유의확률=0.006), 학교의 취업/창업 지원 서비스 만족도(베타=-0.132, 유의확률=0.008)가 대학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의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수의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같은 학교 중국인 학생과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가 많을수록, 한국어 강의를 이해하는 정도가 높을수록의 순으로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의 취업/창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 중 취업/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충실하기보다는 화장품장사, 의류장사 등 현재의 취업/창업에 더 관심을 쏟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학생활적응에는 대학의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도, 교수의 강의에 대한 만족도, 같은 학교 중국인 학생과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 한국어 강의를 이해하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학교의 취업/창업 지원 서

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중국인 유학생들이 현재의 화장
 품장사, 옷장사 등에 몰두해서 대학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
 는 것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4-173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베타)	t	유의 확률	VIF
(상수)	2.339		9.055	.000	
남성다미(여성기준)	-.164	-.079	-2.090	.037	1.050
대학원재학다미(대학재학기준)	.124	.068	1.694	.091	1.175
한국어강의 이해정도	.085	.103	2.515	.012	1.225
영어강의 이해정도	.055	.079	1.948	.052	1.216
교내 한국어지원서비스 만족도	.027	.029	.498	.618	2.438
교내 영어지원서비스 만족도	-.062	-.059	-1.121	.263	2.067
대학의 커리큘럼 만족도	.295	.242	4.695	.000	1.950
교수의 강의 만족도	.216	.192	3.172	.002	2.704
교수의 학생지도 만족도	.082	.077	1.317	.188	2.530
도서관(중국 DB구축 등) 및 사서 서비스 만족도	-.025	-.026	-.570	.569	1.567
유학생에 대한 학사행정 만족도	.096	.092	1.624	.105	2.391
학교의 기숙사운영 만족도	.061	.063	1.377	.169	1.531
외국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고충처리 만족도	-.015	-.014	-.228	.820	2.961
유학생을 위한 비자 및 국제 업무 지원 만족도	-.042	-.042	-.686	.493	2.759
같은 학교 중국인 학생과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	.106	.106	2.756	.006	1.098
같은 학교의 한국학생과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	.057	.064	1.406	.160	1.517
같은 학교의 타국 유학생과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	-.061	-.067	-1.543	.123	1.395
같은 학교 교수/강사와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	.063	.065	1.398	.163	1.574
행정 및 국제업무 담당직원과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	-.046	-.049	-1.108	.268	1.468
학교의 취업/창업 지원 서비스 만족도	-.139	-.132	-2.650	.008	1.830
수정된 R제곱=0.295(유의확률=0.000)					

10) 소결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유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로 중국에서의 취/창업에 유리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전공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30% 미만을 차지하는 이들은 자신의 진로를 위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한국유학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의 응답자들은 교육비가 적절해서, 학교 입학이 용이해서, 한류스타나 K-pop을 좋아해서, 장학금을 제공받아서, 한국에 친인척이나 친구가 있어서 등 유학 본연의 목적보다는 부수적인 이유들이 한국 유학을 결심한 1순위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학의 핵심사항인 학업 수행에 있어서 장애요소의 1순위로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한국어 능력 부족을 들었다. 학업적 적응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 학부생들은 7점 만점에 4.63을, 대학원 과정의 유학생들은 5.06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학초기 학업 및 생활 지원이 학부생들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한국어 강의 수업 이해 수준이 80% 이상이라고 응답한 대학원생들의 비율이 44%인 반면 학부과정 중국인 유학생들은 20% 미만으로 나타나 원활한 초기정착과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한국어 실력 제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졸업 이후 한국 체류 의향을 묻는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8%를 차지하였다. 한국에서 교육을 더 받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10.5%, 한국에서 취업/창업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18.9%로 나타나, 졸업 후 한국 체류 희망자가 30% 미만에 머물렀다. 한국에 더 머물지 않으려는 이유로 한국보다 용이한 취/창업 환경 때문에, 한국보

다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한국에서의 차별 때문에, 한국 직장문화 적응이 어려워, 한국어, 한국문화 부적응의 이유를 들은 응답자의 비율이 절반가량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의 시사점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중국인 유학생 유치와 역량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들에 의해 우리 사회에 제공되는 가시적인 기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유학생생활 중 느끼는 어려움으로 취업/창업 관련 정보의 제약, 취업/창업 지원의 부족을 최우선순위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생활비/주거비 문제, 학비조달 문제 등 경제적인 어려움, 학교공부, 진학관련 정보 제약, 영어 등 학업에서의 어려움을 들었다. 그 밖에 한국인 동료/선후배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국인 유학생들의 고민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희망하는 지원정책 및 서비스의 우선순위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① 재정 및 주거 지원 서비스와 ② 유학생생활 정보, 법률 정보 및 지원, 취업 정보 및 지원 등 유학생생활과 진로를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 및 지원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비자발급/갱신제도 개선, 유학생 인턴십 기회 확대, 아르바이트제도 개선, 한국어 지원 서비스 확대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바라는 지원정책/서비스 상위 10위권에 포진해 있었다.

회귀분석을 통해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통제변수로 남성더미(여성기준), 대학원재학더미(대학재학기준)를 투입하고, 독립변수로 한국어의 어려움, 영어의 어려움, 학교공부의 어려움, 학업 관련 정보의 제약, 학비 조달의 어려움, 생활비/주거비 조달의 어려움, 아르바이트 구하기 어려움, 음식적응의 어려움, 신체적 건

강의 문제, 한국 일상생활 관련 정보의 제약, 비자발급 및 갱신의 어려움, 가족, 연인, 친구에 대한 그리움에 의한 어려움, 외로움에 의한 어려움, 중국인 동료/선후배와의 관계의 어려움, 한국인 동료/선후배와의 관계의 어려움, 조교와의 관계의 어려움, 교수/강사와의 관계의 어려움, 교내 유학생 담당직원과의 관계의 어려움, 한국사회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의 어려움, 소셜미디어 사회자본, 취업/창업 관련 정보의 제약, 진학 관련 정보의 제약, 취업/창업 지원의 부족을 투입한 후 이들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한국사회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 어려움을 느낄수록, 한국인 동료/선후배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수록, 한국에서의 외로움에 의한 어려움을 느낄수록, 한국어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사회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 중 특히 한국사회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의 어려움, 한국인 동료/선후배와의 관계의 어려움, 외로움에 의한 어려움, 한국어의 어려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어 통제변수로 남성더미(여성기준), 대학원재학더미(대학재학기준)를 투입하고, 독립변수로 한국어강의 이해정도, 영어강의 이해정도, 교내 한국어지원서비스 만족도, 교내 영어지원서비스 만족도, 대학의 커리큘럼 만족도, 교수의 강의 만족도, 교수의 학생지도 만족도, 도서관(중국 DB구축 등) 및 사서 서비스 만족도, 유학생에 대한 학사행정 만족도, 학교의 기숙사운영 만족도, 외국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고충처리 만족도, 유학생을 위한 비자 및 국제 업무 지원 만족도, 같은 학교 중국인 학생과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 같은 학교의 한국학생과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 같은 학교의 타국 유학생과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 같은 학교 교수/강사와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 행정 및 국제업무 담당직원과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 학교의 취업/창업 지원 서비스 만족도를 투입한 후 이들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대학의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수의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같은 학교 중국인 학생과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가 많을수록, 한국어 강의를 이해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의 취업/창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들 중 화장품장사, 의류장사 등 현재의 취업/창업에 더 관심을 쏟는 학생들일수록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관련 요인들 중 특히 대학의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도, 교수의 강의에 대한 만족도, 같은 학교 중국인 학생과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 한국어 강의를 이해하는 정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학교의 취업/창업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중국인 유학생들이 현재의 화장품장사, 옷장사에 몰두해서 학교생활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국제교류담당직원 및 전문가 인터뷰 분석결과

1) 중국인 유학생 현황

A 대학의 경우 어학연수생 60명, 교환학생 110여명, 학부생 110명, 대학원생 20여명 등 300여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재학중이다. B대학의 중국인 유학생은 학부 270여명, 대학원생 90여명 등 총 360여명으로 전체유학생의 90% 이상이 중국인 유학생이라고 한다. C대학에는 교환학생 40여명, 학부 80여명, 대학원생 20여명 등 150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이고 유학생 중 중국인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이다. D대학의 경우에는 어학연수생 80여명, 학부 15명, 대학원 5명 등 100여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다른 대학과 달리 어학연수생이 많은 편이다. E대학의 경우 외국인학부생 850여명 중 중국인학생은 50%를 약간 넘는 450여명을 차지하고 있고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180여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있다.

2)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가장 큰 문제

국제교류를 맡고 있는 대학담당자들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가장 큰 문제로 언어문제, 음식문제, 한국친구사귀기, 사드배치문제로 인한 갈등, 높은 생활비용 등을 지적하였다. 이 같은 응답은 중국인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중국인 유학생들이 낯선 한국문화에 적응하는데 언어와 음식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 주로 자기나라 학생들끼리 어울리다보니 정보력(학교행사, 학사정보 등)이 낮은 편이어서 한국친구들을 사귀기가 힘든 것 같다.

B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개인적으로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학교 생활에서 적응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언어와 음식’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언어가 부족한 학생들은 한국 사람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힘들어 매우 답답해하는 학생들이 여럿 있다. 중국 음식은 주로 기름으로 볶은 요리들이 대다수라 담백한 한국 음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예를 들자면 저희 학교 중국인 학생들 중 일부는 학교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근처 중국 식당에 가거나 본인이 직접 중국 요리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

C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현재 유학생들이 한국의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언어 및 생활습성의 차이로 인한 불편함이다. 그리고 최근 사드배치문제로 인한 중국과 한국간의 정치적 이슈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면서 귀국을 종용하는 현상에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

D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언어가 가장 큰 장벽인 것 같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화들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보니 소속감도 덜 느끼고 고립돼 있다.

E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높은 주거비용 및 생활비용 때문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다. 졸업후 취업이 어렵다는 것도 유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이다.

3)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생활지원 프로그램

(1) 한국어수업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한국어능력이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을 관리하는 학교들은 유학생들이 충분한 한국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었다. 특히 D대학의 경우 한국어수업을 들을 경우 최대 12학점까지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을 해 줬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어수업을 들을 경우 수강료를 할인해주고 있었다. E대학의 경우에는 주 2회에 걸쳐 야간에 유학생들을 위해 무료로 기초한국어과정을 운영하였다.

A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 매학기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학부신입생일 경우 한국어를 반드시 수강하도록 지도한다. 재학생들에게는 한국어학당 수업을 수강할 경우 수강료를 30% 할인해주고 있다.

B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학기 중 방과후에 무료 토픽강좌를 개설하여 학생들이 토픽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시 어학당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인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언어교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내국인학생들과 상호언어를 교류하고 학습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C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한국어실력이 부족한 학생은 한국어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유학생들에게 교양한국어를 개방하고 있으며, 학부 유학생이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어학보충수업을 원할시 수강료를 70% 할인하여 주고 있다. 또한 유학생들이 한국어능력시험을 단체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수험장까지의 이동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D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어학연수생의 경우 레벨테스트를 해서 1급에서 6급까지 단계에 맞춰 공부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반이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소규모로 운영한다. 학부신입생의 경우 전공수업을 하는 데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교양한국어수업을 지원하며 해당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졸업이수학점으로 최대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E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기초한국어 교양과목을 확대하고 있고 야간(저녁 7시 - 9시)에 주 2회에 걸쳐 무료로 기초한국어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 장학금지원

대부분의 대학들이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혜택을 제공했다. 학부 신입생의 경우 토픽성적이 높으면 첫 학기에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후부터는 졸업때까지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이 장학금을 받는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학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만큼 높은 학점을 받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A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을 면제해주고 토픽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5급이상의 경우 학비 면제)한다. 두 번째 학기부터는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령, 성적이 3.0 이상이면 25% 학비면제, 3.5 이상 33% 학비면제, 3.8 이상 50% 학비면제, 4.2 이상 100% 학비면제이다. 대학원신입생의 경우 연구보조장

학금(50% 학비면제)과 성적우수장학금(33% 학비면제)을 지급하고 있다.

B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학부 신입생의 경우 토픽 성적에 따라서 입학 첫 학기에 한해 장학금(학비감면)을 지원하고 있다(예 : 토픽5-6급 등록금 전액 감면, 4급 90%감면, 3급 80% 감면 등등). 입학 첫 학기 이후(2차 학기부터 졸업까지)부터는 학생들의 토픽 등급 및 학점에 따라 차등을 두어 장학금(학비감면)이 지원되고 있다.

C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직전학기 성적, 한국어능력시험성적, 출결 확인서, 보험가입여부와 연결하여 차등지급하고 있다.

D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어학연수생의 경우 토픽 한 급수마다 1명씩 지원하고 있는데 학생장려차원에서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신입생의 경우 첫학기에만 수업료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학부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학점에 따라 수업료의 30% ~ 100%를 감면해주고 있다. 한국어교육센터 수료생은 기숙사비의 50%를 1년간 지원해 준다.

E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외국인우수입학장학금이 있고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할 경우 최대 학기당 1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학점이 3.8 이상일 경우 100만원, 4.3 이상일 경우 150만원 지원).

(3) 기숙사제공

대부분의 대학들이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 D대학의 경우 외국인유학생과 한국학생이 함께 방을 쓰도록 하고 있었다.

A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 외국인유학생을 기숙사에 우선선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전용기숙사에서 취사도 가능하다.

B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대학 기숙사는 2인실, 4인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천 2백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기숙사 배정 시 외국인 유학생을 제일 우선순위로 배정하기 때문에 기숙사 입실을 희망하는 외국인 학생들 중 미입실한 학생은 없다. 이렇듯 유학생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전원 기숙사에 입실할 수 있지만 3, 4학년의 경우 취향과 문화적 차이로 학교 밖 원룸 등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다.

C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유학생은 전원 기숙사 거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D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국제학생 전용기숙사로 국제생활관(학부생/교환학생)과 국제교육관(어학연수생)이 마련돼 있다. 어학연수생이 주로 이용하는 국제교육관의 경우 3인 1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 학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석이 있을 경우 한국학생을 배정한다. 주로 외국인 학생 2명에 한국인 학생 1명이 사용한다. 외국인학생과 룸메이트를 하겠다고 신청한 내국인학생에게는 캠퍼스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교내 장학금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기숙사생활수칙 등 안내자료를 영어와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하고 있다. 여자대학교다 보니 남학생 어학연수생의 경우 교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어 근처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알선해주고 있다.

E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외국인유학생은 기숙사신청시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다.

(4) 아르바이트알선

중국인 유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적극적으로 알선해주는 대학은 거의 없었다. B대학의 경우 중국어통역 아르바이트모집 외에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선해주지 않았다. D대학의 경우 교내 근로장학생 중 일부를 중국인 유학생으로 선발하여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A대학과 C대학, E대학은 유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직접 알선해 주지 않았다. 이처럼 대학들은 유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알선에 소극적이었다.

(5) 신입생오리엔테이션

대부분의 대학들이 신입생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고 재학 중에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학업과 학사행정전반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고 있었다. E대학의 경우 중국인유학생회와 학기별로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유학생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 각 과정별 신입생오리엔테이션을 따로 진행하고 있다. 진행 시 학사안내 및 생활안내 등을 포함한 유심카드를 무료로 제공하고 통장개설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학기 중에도 재학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면서 졸업학점확인, 외국인등록증 만료 확인 등을 체크하고 있다.

B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매 학기 초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며, 학기 말에는 학부와 대학원 진학 예정인 어학연수생 혹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학업과 학사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C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신규입학 외국인 학생은 지정한 일정에 맞추어 입국하도록 안내하고 지정한 날짜에 입국하는 유학생은 모두 인천공항에서 픽업하여 기숙사를 배정하고 있으며, 매 학기 초와 말에 2차례 유학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학사, 생활, 안전과 출입국체류관리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D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합격발표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기숙사에 입사한 경우 별도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E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매 학기 신입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고 학기 중에는 중국인유학생회와 공동으로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다.

4)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취업지원

대학들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채용박람회에 참가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유학생동문들을 초청해 취업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A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 기업들로부터 채용의뢰가 오면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외국인유학생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B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본교 경력개발상담센터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MBTI 검사(성격유형검사)를 실시하여 센터전담상담사와 집중적으로 진로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본교 졸업생 중 국내나 해외 우수 기업에 취업한 유학생들을 초청하여 취업설명회를 갖기도 한다.

C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취업관련 정보 제공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하

여 졸업예정학생들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유학생지도교수들이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을 방문하여 유학생들이 체류자격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선하고 있으며 지역상인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D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외국인학생들의 경우 취업이 대학취업률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경을 덜쓰는 것 같다. 주로 국내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가 이뤄지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취업설명회에 참여할 기회는 많이 없는 것 같다. 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에 정기적으로 참가하거나 학과에서 주관하는 인턴십프로그램에 한국학생들과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E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취업에 성공한 외국인졸업생을 초청하여 취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취업콘서트를 개최하고 있고 특강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코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특강을 통해 국내기업 입사 전략과 한국의 기업문화, 중국현지취업전략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다.

5)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유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어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했다. 또한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학생들이 한국의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A 대학은 중국인유학생을 포함하여 외국인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절대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즉 한국학생들의 경우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유학생들의 경우 학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절대평가로 성적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A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시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매 학기 한국 문화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유학생봉사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절대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B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현재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멘토링과 언어교환, 국제대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내국인 학생과 중국인 유학생 1:1 매칭을 통해 학교생활을 비롯하여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언어교환 프로그램은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내국인 학생들과 상호 언어 교환을 통해 한국어 학습 향상 및 한국 친구 만들기 등 학교 생활 적응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고 있다. 국제대사 프로그램은 매학기 언어소통 능력을 지닌 한국 학생들을 모집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과 한국생활 적응 그리고 개인적 요구를 해결해 주는 한국 학생들이 친선대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C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교수학습지원센터, 국제교류팀, 한국어문학부, 창의인재미래대학, 국제학부(중국어전공)와 공동으로 멘토/튜터/버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학교생활상담센터를 통하여 외국인유학생 적성 및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D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어학연수생의 경우 한국어를 지원하는 한국어도우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우미로 선발된 내국학생은 캠퍼스마일리지가 부여돼 장학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부생의 경우 매 학기 지도교수와 2회 이상 학업, 생활, 진로 등에 관해 면담을 실시하

도록 하고 있다. 대학원과정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유학생 1:1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시작한 호스트 패밀리 제도가 있다. 학교 근처 한국가정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유학생들이 한국가정을 방문함으로써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

E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유학생학습지원센터운영, 유학생상담실운영, 멘토링프로그램진행, 한국생활정착지원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6)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원방안

(1) 한국학생과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제공

대학직원 및 전문가들은 중국인유학생의 한국사회 및 문화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제교류와 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직원들은 한국학생들과 유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유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 한국학생들과의 조별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B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무엇보다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다니는 학교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의 터전을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C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으로 유학생도 내국인 학생들과 똑같은 본교 학생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내국인학생들이 참여하는 교내 각종 행사에 외국인유학생들도 차별없이 참여할 있도록 홍보하고 신분상에서 내국인 학생들과 동등하고 그들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D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먼저 교내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외국인유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2) 학교 내 중국요리를 조리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앞서 FGI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음식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유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중국요리를 조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D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유학생들이 한국음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늘 한국음식만 먹으니까 음식에 대한 유학생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다. 기숙사관리부서에 조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쉽지가 않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생활 중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음식 문제이니만큼 꼭 기숙사 내에서 뿐 아니라 학교 내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중국인 유학생들이 자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한다면 이들의 학교에 대한 애착심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3) 비자절차간소화

E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은 비자변경신청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E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 D-4 어학연수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학부 또는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비자변경신청을 해야 하는데 중국은 법무부장관고시 국가여서 중국인유학생은 재정보증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비자변경시 재정보증입증서류준비를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비자변경절차간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

유학생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지만 외국인근로자나 결혼이민자만큼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전문가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을 주장하였다.

전문가 1: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를 위한 전문기관은 각 지자체 별로 마련되어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전문기관은 서울에 있는 국립국제교육원 정도다.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대학에게만 유학생 유치 및 지원을 맡기는 것은 지자체의 향후 이민정책에 있어서도 지역발전에 있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초단체는 제외하더라도 광역단체만이라도 지역대학, 지역기업

등과 협력하여 협의체를 구성, 중앙정부로부터 일정금액의 예산도 지원받아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하루 빨리 설립·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문가 2: 정부차원에서 유학생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구를 통해서 유학생실태에 대한 연구도 하고 컨트롤타워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중국인유학생회 등 커뮤니티 적극 지원 및 활용

유학생들은 낯선 곳에서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학생회를 구성하여 활동한다. 전문가들은 유학생회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이를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유학생회를 잘 조직하고 이를 지원한다면 중국관광객 유치 및 지역사회홍보활동에 이러한 조직의 힘이 잘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중국인교수들에 대한 적극적 활용도 제기되었다.

B대학국제교류담당직원: 정부차원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서로 뽕뽕 뭉쳐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여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중국인 유학생회 혹은 연합회의 결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한중문화교류 행사나 학교별 중국인 유학생회 커뮤니티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1: 중국인 유학생만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중국인 유학생은 '중국'이라는 국가 소속감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단체 행동을 주로 많이 하는 편이다. 이에 각 지역별 중국인 유학생회를 지역사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면서 동시에 네트워크 망을 튼튼히 하여 지역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중국인 유학생 역시 취업에 대한 갈망이 있는 만큼 이들 유학생을 활용한 요우커 유치 등의 관광객 유치활동 및 지역사회 홍보활동을 추진한다면, 중국인 유학생 취업문제 해결과 동시에 지역 사회 발전에도 충분히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문가 3: 재한중국인교수가 180명 정도 있습니다. 재한중국인학자연합회에 다 가입해 있지는 않지만 40-50명은 상시적으로 활동합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하면 한중간의 서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 적응단계별 맞춤형 지원

일부 전문가들은 유학생들이 한국사회에 와서 적응하는 동안 단계별로 맞춤형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입학기간, 재학기간, 졸업전후 등 단계별로 지원전략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 1: 입학전후, 재학 중, 졸업전후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입학전후에는 유학설명회 개최, 언어권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환영회 개최 등이 필요하며 재학 중에는 장학금 및 공동기숙사 지원, 유학생회 또는 커뮤니티 운영 및 지원, 아르바이트 연계 등 지원이 필요하고 졸업전후시 인턴십 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운영,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교육, 졸업생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4: 학생들이 유학을 오게 되면 주로 유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시기에 따라 유학 대상국가에 대한 감정이나 적응도가 달라집니다. 통

상 허니문기를 거쳐서 적응기를 거친 다음에 나중에는 관계가 악화되는 기간이 있고 이에 대한 적응이 끝나게 되면 상승기로 돌아가게 된다는 유학 체류 기간에 따른 감정 적응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이 처음 한국에 도착해서 허니문기간인 초기에는 인천이나 커뮤니티에 대한 소개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중간에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체류 국가에 대해서 싫증을 느끼는 기간에는 오히려 커뮤니티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할 것을 제안했어요. 반등기로 접어들 때에는 졸업을 준비하니 4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집중시켜보자 이런 식의 제안을 했어요.

(7)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및 관심 필요

일부 전문가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관심을 촉구했다. 유학생들을 유치하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이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한국유학에 대한 동기부여를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 2: 국가적으로 볼 때 유학생 유치도 좋지만 관리, 체계가 잘 안 되어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정부는 유학생 관리에 별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체계적인 정책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죠. 유학생을 산업으로 봐야해요. 영국이나 호주가 성공한 게 산업으로 봤기 때문에 성공한 거고 산업을 하려면 유학생들이 한국에 오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할만한 장치를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건데 그것도 언제 끊길지 몰라요. 중국 대학들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일단은 정부의 체계적인 유치나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게 첫 번째고요.

(8) 유학생들의 기본적인 정보 공개

호주와 같이 유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즉 대학에 입학하는 중국인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점수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 3: 사실은 우리도 호주처럼 각 학교에 유학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토픽 몇 급 정도의 학생이 입학했고 어떤 수준의 자질을 가진 학생들이 들어왔는지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정보에 기초해 학생들은 어떤 학교가 본인과 맞는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 한국인의 대중국 이미지 개선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하루빨리 벗을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유학생들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길거리에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뀔 필요가 있다.

전문가 1: 한국인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한국에서 유학하는 중국인 유학생 대부분이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별로 인해 반한감정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극한감정까지 갖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외국인 지원과 함께 꼭 병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외국인을 바라보는 내국인들의 인식변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2: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도 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중국에 대

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물었더니 답이 뭐냐면 중국이 강대국인 것 같은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반도 채 안 나왔어요. 여전히 과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관료도 똑 같아요.

(10) 공공외교전략차원에서 유학생 문제 접근

장기적으로는 공공외교전략차원에서 중국인 유학생문제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문가 4: 지금 정부의 외교전략 중의 하나가 공공외교강화 전략입니다. 한국에 온 유학생에 대한 케어 시스템이 기존에는 경제, 산업이나 교육, 지방대의 경영 관점에서 다루어졌다면 이제 새롭게 공공외교의 자산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가 보기에 중국인 유학생이 공공외교의 자산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사회진출에 대한 어떤 배려나 프로그램들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지방정부는 리쿠르트에만 집중되어있었고 이들을 진출시켜서 얼마만큼 좋은 자산으로 내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는 학생들의 취업에 대해서 지역 공공부문 인턴사원제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공공부문이 인턴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자라고 하는 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11) 한국어능력을 갖춘 중국인 유학생의 유치

대학원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전문가 5는 한국어능력을 갖춘 유학생들을 데려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가 생기는 학

교들은 대부분 브로커를 통해 자격이 안되는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전문가 5: 저희 학과의 경우 대학원생 12명 중 중국인 유학생이 반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학생들이거나 토픽 5급이상의 학생들을 받는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유학생들이 한국어능력을 갖추고 있어 지도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수업료의 8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다행히 과 내에 중국전공한 교수가 있어 학생들이 편하게 중국어로도 상담을 받기도 한다. 더불어 중국인 유학생들을 조교로 활용하기도 한다. 학부생의 경우도 60여명의 중국학생들이 있는 데 토픽 5급이상이 돼야 입학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어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문제가 되는 학교들은 대부분 브로커를 통해 학생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따라서, 브로커를 통해 학생들을 데려오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한국어능력을 잘 갖춘 학생들을 데려오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7) 소결

본 연구는 중국인유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대학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에 위치한 총 5개 대학에 근무하는 국제교류담당직원과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지원이나 장학금지원, 기숙사제공, 취업지원 등 학교생활적응에 필요한 지원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학점이 3.5나 3.8 이상으로 높은 경우가 많아

많은 중국유학생들이 혜택을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아르바이트를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학비와 생활비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유학생들을 위해 대학측에서 아르바이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국유학생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지원이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직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국인유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파악한 결과 단기적, 중장기적 대책들이 제시되었다. 먼저, 단기적 대책으로는 학교 내 자국 요리를 조리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적응단계별 맞춤형 지원, 한국학생과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제공 등이 거론되었다.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유학생전담기구설립을 통한 중국인유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중국인에 대해 갖고 있는 한국인들의 부정적 이미지나 편견의 해소, 공공외교의 자산으로 유학생의 역량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제5장 요약 및 제언

1. 연구의 요약
2. 정책적 제언



이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추출하여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의 실태 및 영향요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인 학부 및 대학원 유학생들과 한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적 FGI조사를 실시하였고, 중국인 학부 및 대학원생 등 학위과정 재학생들과 어학연수 등 비학위과정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대학에서 유학생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교류담당직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유학생의 양적확대에 주력해온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과 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소프트파워 제고와 우리사회의 인적자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1. 연구의 요약

1) 학생 대상 FGI

중국인 학부 및 대학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질적 FGI를 실시한 결과,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어 적응의 어려움, 발표수업, 영어강의 등 강의방식 적응의 문제, 학점취득의 어려움, 학교공부도우미 제도의 부재, 장학금 취득의 어려움, 기숙사 방 배정의 문제, 한국음식에 대한 부적응 문제, 병원보험비 처리과정에서의 어려움, 아르바이트과정에서의 일자리 구하기와 차별문제, 범죄피해에의 두려움과 법적 보호의 문제, 한국인 친구사귀의 어려움, 조교선생님, 교수/강사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한국사회 일반인들의 차별적 인식, 진로지원의 부족, 비자연장과정에서

의 어려움, 유학생할 안내의 내실화 부족 등의 여러 문제를 한국 사회문화 적응의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2) 중국인 유학생 대상 설문조사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들 중 취업이나 창업 관련 정보 제약과 지원의 부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상위 10위까지의 항목들 중 취업 및 창업 정보의 제약(1위), 진학 관련 정보의 제약(6위), 한국 일상생활 관련 정보의 제약(10위) 등 언어와 문화가 달라 발생하는 정보제약이 이들의 한국생활을 어렵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동료나 한국인 선후배와의 관계(9위)도 유학생 할에서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학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나의 한국어 능력 부족'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학생할과 고등과정의 학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가지 유학생의 선별과 한국어 능력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교수의 강의와 학생 지도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교내 도서관 사서 서비스와 취창업 지원 서비스, 한국어 지원 서비스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통해 논문이나 보고서 작성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필요 있으며,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취/창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학교의 연계노력이 요망된다. 중국인 유학생의 가장 큰 고민이 진로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할 지원체계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어 정부와 학교 차원의 연계노력이 요망된다.

설문 응답자의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목표의식이나 꿈의 부재를 가장 큰 개인적인 고민으로 꼽고 있어 이들에 대한 상담노력과 사회자본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학부생들은 대학원 과정 학생들에 비해 우울과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나 주변 상황에 따라 타의로 한국에 온 학부생들과 유학생들 중 학업의지가 꺾인 학부생들의 비율이 늘어난다면 이는 개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교육비의 낭비와 학업분위기 저해를 가져오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몸담은 사회에 비용과 부담을 지우는 꼴이 될 것이다.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한국사회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 어려움을 느낄수록, 한국인 동료/선후배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수록, 한국에서의 외로움에 의한 어려움을 느낄수록, 한국어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도 한국사회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의 어려움, 한국인 동료/선후배와의 관계의 어려움, 외로움에 의한 어려움, 한국어의 어려움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됨을 시사해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대학의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수의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같은 학교 중국인 학생과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가 많을수록, 한국어 강의를 이해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취업/창업 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 중 취업/창업에

대해 만족감을 높게 느끼는 학생들이일수록 화장품장사, 옷장사 등 현재의 취업/창업에 관심을 집중하여 전반적인 학교생활적응에 소홀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여러 요인들 중 대학의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도, 교수의 강의에 대한 만족도, 같은 학교 중국인 학생과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 한국어 강의를 이해하는 정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됨을 시사해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화장품장사, 옷장사 등 현재의 취/창업에 몰두해서 학교적응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대학 직원 및 전문가 대상 인터뷰

대학직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중국인유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유학생들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학교 내 자국 요리를 조리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적응단계별 맞춤형지원, 한국학생과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제공 등이 거론되었다. 또한 중국인유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관심을 촉구하거나 중국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유학생들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 전문가는 공공외교차원에서 중국인유학생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기도 하였다. 중국인에 대해 갖고 있는 한국인들의 부정적 이미지나 편견을 불식시킬 필요성과 한국어능력 등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중국인 유학생의 유치 등도 정책과제로 제시되었다. 5개 대학 국제교류담당직원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어수업이나 장학금지원, 취업지원 등은 비교적 원만

하게 이뤄졌으나 아르바이트를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는 대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유학생들의 언어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지원이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제언은 크게 대학, 지역사회, 정부의 역할로 나뉘 살펴보았다.

2. 정책적 제언

1) 대학의 역할

(1) 학교 내에서 아르바이트의 적극적인 알선

앞서 중국인 유학생들과의 인터뷰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유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설사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제때에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한국 손님으로부터 차별적인 언사도 들어야 했다. 특히 국제교류담당자와의 인터뷰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대학들은 유학생들의 취업에만 신경을 많이 썼지 아르바이트알선에는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대학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유학생들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알선할 필요가 있다. 사드배치문제로 중국인관광객의 수가 많이 줄긴 했지만 중국인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업소나 사업장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유학생들과 매치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즉 중국인 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중국음식요리공간의 확보 및 중국음식코너 마련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음식문제이다. 유학생들은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식사하는 데 애로가 많다. 더구나 기숙사에는 간편한 음식만 해 먹게 돼 있어 자국의 음식을 조리할 공간이 없었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본토의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조리공간이 학교 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내식당에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음식코너를 마련해 이들이 자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내 학생용식당에 중국인들이 평소 즐겨먹는 소스와 간단한 밑반찬을 상시 비치한다면 식생활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한국인과의 사회적, 문화적 교류 강화

앞서 인터뷰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중국인 유학생들은 유학생생활 중 한국인들의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유학생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으로 한국인 동료나 선후배와의 관계라고 응답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실제로 회귀분석결과 한국사회로부터 차별을 많이 겪고 한국인 동료나 선후배와의 관계를 어려워하는 유학생일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로움을 많이 느낄수록 타국에서 겪는 스트레스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는 유학생들의 정서적, 심리적 적응과 한국인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암시해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과 중국인 유학생들이 합

게 어울리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 A대학 직원이 언급한 대로, 수업시간에 한국학생들과 중국유학생들이 조를 이뤄 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조별수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 소통하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000 대학의 호스트 패밀리 사례는 참고 할만하다. 즉 이 대학은 학교 근처 한국가정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유학생과 결연을 맺어준다. 즉 유학생들이 한국가정을 방문함으로써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사회나 문화를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 아직은 시행초기여서 많은 가정들이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이러한 제도가 확대된다면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의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한국의 생활이나 문화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학교 내 중국인 유학생 네트워크 강화

앞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 같은 학교 중국인 학생과의 개별적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같은 학교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끼리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일년에 한번 정도 중국인 유학생의 날 같은 것을 지정해서 축제를 개최해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참여과정에서 다른 중국인 유학생들과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각 단과대학별로도 중국인 유학생의 날 행사 같은 것을 개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각 학과별로도 중국인 유학생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에 보다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유학생의 상담 강화

유학생들은 부모 등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외롭고 힘들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중국유학생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학생들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A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국제교류팀에 배치하여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시 상담을 제공할 수 있고 C 대학의 경우처럼 학교생활상담센터를 통해 유학생의 심리검사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D 대학처럼 지도교수와의 상시 면담도 유학생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대학이 유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상담체계를 갖춰 이들의 불안과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적응단계별 맞춤형 지원의 확대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에서도 제시됐듯이, 효과적인 유학생지원을 위해서는 적응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입학단계에서는 학교의 학사행정을 알려주거나 학교를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과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지리나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유학생들이 지역에 애착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통시설이나 핸드폰구입요령, 거주환경 등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이 시기에 중요하다. 본격적인 유학생활동이 시작되면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숙사 지원이 필요하며 아르바이트도 적극적으로 알선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유학생들이 한국어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므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학생들이 지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탐방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졸업단계에서는 유학생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기업체나 공공기관 인턴십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졸업생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필요할 경우 졸업생들이 취업특강을 실시할 수도 있다.

표 5-1 적응단계별 유학생지원 프로그램

단계	지원프로그램
입학단계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환영회 개최 - 학교소개 - 지역문화소개 -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제공
재학단계	-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제공 - 장학금 지원 - 기숙사 지원 - 아르바이트 지원 - 지역문화탐방프로그램 제공
졸업단계	- 인턴십 제공 - 취업정보제공 - 취업특강 - 졸업생네트워크 구축

(7) 취업 및 창업지원 강화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취업/창업 관련 정보 제약과 지원 부족을 꼽았다. 비록 대학들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 청년들의 실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

는 등 상황이 안좋기 때문에 국내대학생들의 취업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D대학 국제담당교류직원의 말처럼 대학평가의 중요한 기준인 대학취업률에 외국인학생들의 취업률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유학생 취업문제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유학생들의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박람회나 창업박람회가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고 졸업한 유학생 선배들을 초청하여 실시하는 취업특강이 자주 마련돼야 한다. E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요령, 한국의 기업문화 등을 알려주는 특강도 자주 실시돼야 할 것이다.

한편 취업 및 창업지원과 관련하여, 중국인 유학생들이 화장품장사, 옷장사 등 현재의 재학 중 창업에 몰두하느라 대학생활 적응을 소홀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생활 적응에 방해가 안 되도록 교육 등의 실시를 통해 주지시키고 계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학사관리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사회의 역할

(1) 중국인 유학생 커뮤니티와 지역사회의 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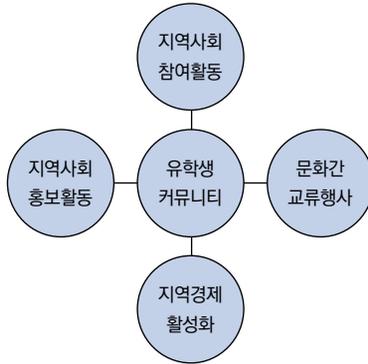
앞서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언급됐듯이, 유학생들은 공공외교의 중요한 자산이다. 이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여론지도층이 될 경우 한국문화나 사회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국민들에게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유학생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령, 한중 문화 간 교

류행사나 중국관광객유치 등에 유학생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유학생조직을 참여시킨다면 한중 상호간 이해를 도모할 수 있고 한국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을 고양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유학생커뮤니티와 연계한 사업들을 활발히 전개한다면 유학생들의 소속감을 고취시켜 결국에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과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들과의 빈번한 교류는 정보공유와 사회자본 확충을 통한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취지에서, 미국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지역사회 종교기관들이 일주일에 한 번 가량 무료 점심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며 상호이해와 전도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지역사회 내 중국인 관련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중국인 유학생들은 정서적인 유대감과 자신의 전공분야를 살린 봉사활동을 통한 자긍심과 현장경험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가 요망된다. 예를 들어,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출신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심리상담 전공자들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청소년 상담 지원, 예체능 전공자들이 중국어로 진행되는 특별활동 시간, 중도입국 청소년과 중국인 유학생간의 일대일 멘토링, 중국어 통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기관의 중국어 가능한 전문 인력의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1 유학생커뮤니티 연계 활동



(2) 중국인 유학생 대상 페스티벌의 확대

중국유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문화행사를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유학생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하는 문화교류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충청북도는 매년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중국 젊은이들의 문화간 이해와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에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2박 3일 동안 청주예술의전당일원에서 제7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제7회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201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www.korchin.com/>참조). 한중 말하기 대회, 바둑대회, 한중대학생가요제, 행복토크콘서트, 요리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유학생축제가 다른 광역자치단체까지 확산된다면 중국인 유학생들이 자국의 문화를 알리고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3) 정부의 역할

(1) 중국인 유학생의 체계적인 유치 및 관리체계 구축

교육부는 2023년까지 유학생 20만명 유치라는 목표를 내걸었다(교육부, 2015). 앞서 언급한대로 2016년 기준 유학생 숫자가 10만명 가량(교육부, 2016)인 점을 감안하면 유학생 숫자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숫자를 늘리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앞서 전문가 2가 지적했듯이, 중국유학생들이 한국대학에 올 만한 동기를 갖도록 하고 이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노력들이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유학생을 늘리는 데 주력하기 보다 유학생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유치나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뒤야 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학령인구의 감소 속에 국내대학생들의 입학숫자가 줄어들자 일부 대학들이 언어능력 등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유학생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외국인유학생 전담기관의 설립

앞서 논의한바와 같이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인유학생관리 및 지원을 전담할 기관의 설립을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 1은 지역대학과 지역기업이 광역지자체와 협력하여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문가 2는 정부차원에서 유학생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치를 언급하였다. 전담기구의 규모 및 조직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논

의가 필요해 보이지만 전담기구가 설립되면 유학생 실태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유학생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3) 다문화이해교육의 강화

본 연구의 회귀분석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차별경험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긍정적 관련이 있었다. 더구나 최근 사드배치문제로 한중관계는 더욱더 악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이미지는 더욱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국제상황 속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유학생을 포함하여 중국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정부는 다문화교육에 한층 더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이질적인 문화를 이해하고 국적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유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들의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4) 법적 보호의 강화

앞의 중국인 유학생 대상의 FGI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에의 두려움과 법적 보호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보이스포싱, 아르바이트 수당 미지급 등 여러 범죄피해를 당해 경찰당국에 보호를 요

청했으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유학생생활 중 느끼는 범죄피해에의 두려움과 법적 보호의 문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도 한국사회에 대한 이미지를 좋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통해 향후 한국과 중국의 미래 우호적인 사회문화적 관계 형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범죄피해에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법적 보호의 강화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좋은 한국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중국인 유학생들을 통한 향후 우호적인 미래형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5)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및 기업문화 적응을 위한 연수 제공

정부의 주도로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박람회를 매년 상설화한다면 이들의 취업정보 취득과 진로에 관한 정보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취업 박람회에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중국인 지원기관 및 단체, 중국 내 우수 기업들을 유치하여 실제 중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원활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창구 역할이 되도록 한국 및 중국 정부의 노력이 요망된다.

또한, 한국의 직장 문화 이해와 한국인 직장 동료 및 선후배와의 원만

한 관계를 위한 소통 능력 제고를 위한 취업 예비생들을 대상으로 한 단기 연수가 체계적으로 제공된다면 중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중국인 유학생을 채용한 기업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설문조사결과와 전문가 자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실제 한국사회와 기업문화의 적응이 어려워 한국에서의 취·창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기업은 직장 구성원간의 마찰과 소통의 어려움을 우려하여 중국인 유학생의 고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로 취업예비생들을 위한 단기 연수를 통해 이들의 한국 직장 문화 이해와 업무역량 제고 노력을 키워 준다면 장기적으로 사회비용을 줄이는 효과와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Ⅰ 참고문헌 Ⅰ

- 구교태 (2014). 문화적응과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미디어이용효과: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과학연구**, 21(1), 35-55.
- 구예원 (2015).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적응에 관한 연구-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자역, 강구섭, 권용용, 이화영, 이준식, 김숙이, 박영진 (2010). **한·중 양국민간 우호정서 저해원인 연구 : 국내체류 중국인 유학생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금희조 (2011). 소셜 미디어 시대, 우리는 행복한가?. **한국방송학보**, 25(5), 7-48.
- 김선남 (2008). 재한중국인유학생의 한국 TV 드라마 시청행태에 관한 연구. **언론과 학연구**, 8(2), 122-148.
- 김소영, 양정애, 양승목 (2013). 한국미디어에 대한 중국인유학생들의 적대적 지각이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이용 및 대인커뮤니케이션을 예측변인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27, 33-75.
- 김영란, 김이선, 김난주, 강승호, 이철선, 황경진 (2015).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 수립연구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경, 정연순, 이계백 (2015).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증장기 발전전략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옥련, 왕설 (2013).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SNS이용에 관한 연구: 재한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4(4), 377-401.
- 김현철, 모상현, 오성배 (2015). **다문화청소년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I : 총괄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홍호, 전성홍, 이희옥, 김인, 민귀식 (2010). **한중 양국의 상호 유학생 실태와**

개선방안.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문흥호 (2011). **중국인 유학생의 재한 중국유학생 취업실태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민귀식 (2017). 한국의 유학경쟁력과 유학정책 평가. 미발간논문.
- 박은미, 황빙의, 정태연 (2010).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와 학생할 적응의 관계. **스트레스研究**, 18(2), 145-152.
- 박현수, 이경상 (2012). 청소년 폭력피해의 중단적 변화유형과 영향요인. **한국교육**, 39(1), 119-142.
- 반육홍 (2011).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문화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와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반육홍, 이선영 (2012).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문화 불확실성에 관한 연구 : 불확실성 감소 요인과 문화적응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Speech & Communication**, 17, 140-167.
- 배상률, 김형주, 성은모 (2013). **2013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배상률 (2016).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백세진 (2011). **중국인 유학생의 불안과 불확실성이 문화적응과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영인, 김미란, 김은영, 채재은, 윤나경 (2012).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체제 강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서효봉, 서창갑 (2011). 중국인 유학생들의 SNS 활용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4(2), 1149-1167.
- 왕매, 나미수 (2015).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8(1), 77-98.
- 윤명숙, 김남희 (2013).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및 생활스트레스와 부모 및 친구에 차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권 8호, 21-47.

- 이내영, 한지영 (2011).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실태조사. **동서간호학연구지**, 17(1) 48-56.
- 이동윤(2012). 아세안(ASEAN)의 강대국 외교관계-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제관계연구**, 17(1), 179-205.
- 이승중 (1995).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신, 이문광, 류재미, 최문훈 (2014). 중국인유학생의 문화적 통합에 대한 영향 요인 탐구: 미디어와 대인채널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8권 5호, 233-254.
- 이현진 (2011).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사회복지관련 서비스의 실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흥직 (2011).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결정요인. **스트레스研究**, 19(2), 183-194.
- 임수진, 한규석 (2009). 중국인 유학생이 겪는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3), 413-427.
- 임지혜, 최정화 (2009). 미디어 이용실태와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국내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15(2), 183-206.
- 장선영, 윤태훈 (2015). 현지 거점센터 예비반 출신의 중국인 유학생과 일반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유학 후 계획, 대학 선택 동기, 교육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비교 연구. **교육방법연구**, 27(3), 329-347.
- 전재은, 장나영 (2012). 니하오?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학생과의 교우관계: 중국인 유학생의 경험과 인식. **한국교육학연구**, 18(1). 303-326.
- 정유선(2014).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중국어 문논역총간**, 34, 447-466.
- 정혜선 (2012a).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건강증진행위와 대상자 특성에 따른 차이.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1), 231-245.
- 정혜선 (2012b).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스트레스 정도와 상담요구도.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2), 949-963.

조운영(2016). 불확실성의 동북아 국제관계의 심화: 중국의 급부상과 동북아 주요국가들의 강한 리더십의 등장과 한국. **정치정보연구**, 19(3), 27-56.

조혁수, 전경태 (2009).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20(3), 193-223.

진민진, 배성만, 현명호 (2011). 중국인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4), 783-797.

최정 (2016).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통제소재와 지각된 차별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오선, 신나민 (2013). 중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 학습실태 및 학습태도에 관한 사례연구. **교육문제연구**, 26(4), 23-44.

황여정, 김정숙, 이수정, 변정현 (2015).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허재준, 김세움, 노용진, 오계택, Randall, W. Green, 서환주 (2011). **유학생 시장의 특성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허혜영 (2014).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저해요인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

Dent, Harry S (2015). **2018 인구 절벽이 온다** (권성희 역). 서울:청림.

Sandhu, D. S., &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1), 435-448.

WU XIAOWEN (201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행태가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Williams, D (2006). On and off the 'Net': Scales for social capital in an

online era.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1(2), 593-628.

ZHANG DEEPNG (2015).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기업취업 과정과 일터에서의 학습 경험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인터넷 자료]

교육부 (2015).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안).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59915&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503&opType=N> (2017년 5월 4일 인출)

교육부 (2016). 2016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정보공개.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boardSeq=64729&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1&s=moe&m=040103&opType=N> (2017년 7월 4일 인출)

교육통계서비스 (2017). kess.kedi.re.kr (2017년 4월 인출)

국가통계포털(kosis.kr) (2017). 체류외국인통계. <http://kosis.kr> (2017년 4월 인출)

국가통계포털 (2017). 체류외국인통계: 유학생관련현황 자료. <http://kosis.kr> (2017년 9월 26일 인출)

제7회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2017). <http://www.korchin.com/> (2017년 9월 27일 인출)

중국의 6대 지역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regions_of_the_People%27s_Republic_of_China (2017년 11월 1일 인출)

부록



--	--	--	--

20170701-01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대한민국 국무총리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국내 어학원(당), 대학교, 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진로, 사회문화 적응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응답내용은 연구용의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귀하의 응답내용을 타 기관이나 학교에 제공하는 일은 절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각 조사 문항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중국인 유학생 지원정책 개발에 활용될 예정 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 08

※ 본 조사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 조사연구기관: 국무총리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연구책임: 배상률 부연구위원, 044-415-2220; drbai@nypi.re.kr
- ▶ 설문내용 및 조사진행 문의: 고은혜 위촉연구원, 044-415-2221; graceko@nypi.re.kr
이재희 위촉연구원, 044-415-2229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4. 기프트콘 수신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활용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아래 질문부터 응답해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출생년도	() 년)
[3] 귀하는 어느 성(城)에서 왔습니까? (※ 출생과 성장이 다른 성일 경우 귀하가 주로 생활한 곳 하나만 적어주세요.)	() 성)
[4] 귀하의 현재 체류자격은?	①D-2 ②D-4 ③D-10 ④C-3 ⑤F-4 ⑥기타()
[5] 귀하의 현재 소속 학교명	()
[6] 귀하가 현재 소속된 학교는 다음 중 어느 지역에 있나요?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7] 귀하는 언제 한국에 처음 입국하였습니까?	() 년)
[8] 귀하는 한국에서 얼마동안 거주하였습니까? (※ 한국 유학생생활을 하다 도중에 중국으로 돌아가 수년간 생활하고 다시 한국에 유학 온 경우는 유학생생활 도중의 중국거주기간을 뺀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을 적어주세요.)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③ 1년 이상 2년 미만 ④ 2년 이상 3년 미만 ⑤ 3년 이상 4년 미만 ⑥ 4년 이상 5년 미만 ⑦ 5년 이상 6년 미만 ⑧ 6년 이상 7년 미만 ⑨ 7년 이상 8년 미만 ⑩ 8년 이상 9년 미만 ⑪ 9년 이상 10년 미만 ⑫ 10년 이상

교육 및 유학생할

[문항 1] 귀하가 한국에 처음 유학 왔을 당시 어떤 과정으로 입학/편입하셨습니까?

- ① 고등학교 이하 ② 학부과정 ③ 대학원 석사과정 ④ 대학원 박사과정
- ⑤ 언어 연수(어학당 등) ⑥ 기타 연수(언어연수 제외)

[문항 2] 현재 귀하는 몇 학년 입니까?

- ① 대학교 1학년 ② 대학교 2학년 ③ 대학교 3학년 ④ 대학교 4학년
- ⑤ 대학원 석사과정 ⑥ 대학원 박사과정 ⑦ 기타(언어연수, 어학당 재학 등)
- ⑧ 휴학 중

[문항 2-1] (현재 휴학 중인 자만 응답하시오) 귀하는 휴학 직전 몇 학년이었나요?

- ① 대학교 1학년 ② 대학교 2학년 ③ 대학교 3학년 ④ 대학교 4학년
- ⑤ 대학원 석사과정 ⑥ 대학원 박사과정 ⑦ 기타(언어연수, 어학당 재학 등)

[문항 2-2] (현재 휴학 중인 자만 응답하시오) 휴학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를 우선순위로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취업 관련 시험,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기 위해
- ②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 ③ 봉사활동을 위해
- ④ 공모전 준비를 위해
- ⑤ 진로를 고민하기 위해
- ⑥ 심리·정서적 재충전을 위해
- ⑦ 학비와 생활비 충당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위해
- ⑧ 한국 교육 시스템에 적응이 어려워서
- ⑨ 한국 교육 서비스에 실망해서
- ⑩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
- ⑪ 다른 나라로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 ⑫ 기타()

[문항 3] 다음 중 귀하의 현재 전공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다음에 해당하는 전공이 없는 경우 기타에 체크해주세요)

- ① 인문계열(어문계, 인문계) ② 사회계열(법정계, 사회계) ③ 교육계열(사범계)
 ④ 공학계열 ⑤ 자연계열(이학계, 농학계, 수산·해양계, 수의학계)
 ⑥ 예·체능계열(예술계, 체육계) ⑦ 의학계열(의·치·한의학·약학계열)
 ⑧ 상경계열(경영, 마케팅) ⑨ 기타계열(융합학과 계열)

[문항 4] 귀하가 현재 한국에서의 유학생생활에 있어서 다음 사항들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1(전혀 어렵지 않다)부터 7(매우 어렵다)까지의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 이다>		매우 어렵다
		1	2		3	4	
① 학교 공부	1	2	3	4	5	6	7
② 한국인 동료/선후배와의 관계	1	2	3	4	5	6	7
③ 중국인 동료/선후배와의 관계	1	2	3	4	5	6	7
④ 조교와의 관계	1	2	3	4	5	6	7
⑤ 교수/강사와의 관계	1	2	3	4	5	6	7
⑥ 교내 유학생 담당직원과의 관계	1	2	3	4	5	6	7
⑦ 학비 조달 문제	1	2	3	4	5	6	7
⑧ 생활비 또는 주거비	1	2	3	4	5	6	7
⑨ 한국어	1	2	3	4	5	6	7
⑩ 영어	1	2	3	4	5	6	7
⑪ 음식	1	2	3	4	5	6	7
⑫ 외로움	1	2	3	4	5	6	7
⑬ 가족, 연인, 친구에 대한 그리움	1	2	3	4	5	6	7
⑭ 신체적 건강	1	2	3	4	5	6	7
⑮ 한국사회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	1	2	3	4	5	6	7
⑯ 취업/창업 관련 정보의 제약	1	2	3	4	5	6	7
⑰ 진학 관련 정보의 제약	1	2	3	4	5	6	7
⑱ 한국 일상생활 관련 정보의 제약 (동아리, 행사, 공공시설 이용 등)	1	2	3	4	5	6	7

⑩ 학업 관련 정보의 제약 (도서관 이용정보, 중국어 논문 이용 등)	1	2	3	4	5	6	7
⑪ 아르바이트 구하기	1	2	3	4	5	6	7
⑫ 비자발급 및 갱신	1	2	3	4	5	6	7
⑬ 취업/창업 지원의 부족	1	2	3	4	5	6	7

[문항 5] 귀하가 한국 유학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교육비가 적절해서
- ② 생활비가 적절해서
- ③ 한국유학이 중국에서의 취업/창업에 유리해서
- ④ 한국유학이 한국에서의 취업/창업에 유리해서
- 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 ⑥ 비자발급 등 유학절차가 용이해서
- ⑦ 대학(원)의 입학이 용이해서
- ⑧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 ⑨ 한류스타나 K-pop을 좋아해서
- ⑩ 장학금을 제공받아서
- ⑪ 아르바이트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 ⑫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 ⑬ 본인 전공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 ⑭ 한국에 친인척 또는 가까운 친구가 살아서
- ⑮ 기타 _____

[문항 6] 귀하는 TOPIK 급수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급입니까?

- ① 예(_____급)
- ② 아니오

[문항 6-1] (6번 문항에서 ②아니오를 선택한 사람만 응답하십시오) 어학당에서 받은 레벨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레벨입니까?

- ① 예(_____레벨)
- ② 아니오

[문항 7] 한국어 강의 수업 이해정도

- ① 20% 미만 ② 20~40%미만 ③ 40~60%미만
 ④ 60~80%미만 ⑤ 80% 이상 ⑥ 한국어 강의 수강 경험 없음

[문항 8] 영어 강의 수업 이해정도

- ① 20% 미만 ② 20~40%미만 ③ 40~60%미만
 ④ 60~80%미만 ⑤ 80% 이상 ⑥ 영어 강의 수강 경험 없음

[문항 9] 한국에서 학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우선순위로 2가지만 답해주시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나의 한국어 능력 부족
 ② 나의 영어 능력 부족
 ③ 나의 선행/기초학습 부족
 ④ 연습/복습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⑤ 교수/강사의 언어실력 부족
 ⑥ 교수/강사의 전문성 부족
 ⑦ 전공특성상 수업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⑧ 수업방식에 따른 어려움 (토론, 팀 프로젝트 등)
 ⑨ 학술정보 이용의 어려움 (도서관 자료 검색 등)
 ⑩ 어려움을 느낀 적 없음

[문항 10] 학교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얼마나 자주하는지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해주세요. (* 여기서 묻는 상호작용은 강의 과정에서의 공식적인 상호작용을 제외한 귀하와 상대방과의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문 항	전혀 하지 않는다	자주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자주하는 편이다	매우 자주하는 편이다
① 같은 학교의 교수/강사	1	2	3	4	5
② 같은 학교의 한국 학생	1	2	3	4	5
③ 같은 학교의 중국인 학생	1	2	3	4	5
④ 같은 학교의 타국 유학생	1	2	3	4	5
⑤ 행정 및 국제업무 담당직원	1	2	3	4	5

[문항 11]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숫자를 체크해주세요.

문항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대학의 전반적인 커리큘럼 만족도	1	2	3	4	5
② 유학생에 대한 학사행정 만족도	1	2	3	4	5
③ 유학생을 위한 비자 및 국제 업무 지원 만족도	1	2	3	4	5
④ 외국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고충처리 만족도	1	2	3	4	5
⑤ 교수의 강의 만족도	1	2	3	4	5
⑥ 교수의 학생 지도 만족도	1	2	3	4	5
⑦ 학교의 기숙사 운영 만족도	1	2	3	4	5
⑧ 학교의 취업/창업 지원 서비스 만족도	1	2	3	4	5
⑨ 교내 한국어지원 서비스 만족도(리포트/논문 수정 등)	1	2	3	4	5
⑩ 교내 영어지원 서비스 만족도(리포트/논문 수정 등)	1	2	3	4	5
⑪ 도서관(중국 DB구축 등) 및 사서 서비스 만 족도	1	2	3	4	5

[문항 12] 다음은 대학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를 체크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① 나는 공부를 밀리지 않고 잘해나 가고 있다	1	2	3	4	5	6	7
② 나는 노력에 비해서는 성적이 만 족스럽지 못하다	1	2	3	4	5	6	7
③ 나는 대학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 의 질이나 양에 만족한다	1	2	3	4	5	6	7
④ 나는 규칙적으로 강의에 출석 한다	1	2	3	4	5	6	7

⑤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대학에 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집에 있는 편이 낫겠다	1	2	3	4	5	6	7
⑥ 최근에 나는 대학을 옮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1	2	3	4	5	6	7
⑦ 나는 휴학을 했다가 나중에 공부를 마칠까 하는 생각을 자주한다	1	2	3	4	5	6	7
⑧ 나는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1	2	3	4	5	6	7

[문항 13] 귀하는 한국 유학생생활의 최근 1년 동안 정부, 기관, 기업,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항 13-1] (13번 문항에 ①번 응답자만 응답하시오) 귀하가 최근 1년 동안 받은 장학금의 총합은 얼마입니까? (등록금 면제의 경우 등록금 액수를 적어주세요)

한화기준 약 _____만원(₩)

[문항 14] 귀하는 최근 1년간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용돈, 학비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항 14-1] (14번 문항에 ①번 응답자만 응답하시오) 귀하가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최근 1년 동안 받은 경제적 지원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한화기준 약 _____만원(₩)

[문항 19] (16번 문항에서 ②번을 선택한 사람만 응답하시오) 귀하가 최근 1년 동안 직장생활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를 우선순위로 2가지만 골라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아서
- ②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서
- ③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해서
- ④ 전공/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 ⑤ 체류신분 등 법적인 제약이나 절차가 복잡해서
- ⑥ 부모님이 원하지 않아서
- ⑦ 원하는 직장이 너무 멀어서
- ⑧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
- ⑨ 기타(구체적으로 기입해주세요): _____

진로

[문항 20] 졸업 이후 한국 체류 의향

- ① 유학기간이 끝나면 중국으로 바로 돌아가고 싶다
- ② 중국이나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가고 싶다
- ③ 한국에서 취업이나 사업을 하고 싶다
- ④ 한국에서 교육을 더 받고 싶다
- 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 ⑥ 기타

[문항 20-1] (20번 문항에서 ①번, ②번을 선택한 사람들만 응답하시오) 귀하가 한국에 더 머물지 않으려는 주요 이유에 해당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한국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적 이익이 기대되므로

- ② 한국보다 용이한 취업/창업 환경 때문에
- ③ 한국보다 우수한 교육시스템
- ④ 한국에서의 차별받기 싫어서
- ⑤ 한국어의 어려움 때문에
- ⑥ 한국문화의 부적응 때문에
- ⑦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살고 싶어서
- ⑧ 자녀 양육 환경이 더 좋아서
- ⑨ 고국에 나의 재능을 기여하고 싶어서
- ⑩ 한국보다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 ⑪ 비자연장/취득이 어려워서
- ⑫ 한국 직장문화의 적응이 어려워서(술자리, 잦은 야근 등)
- ⑬ 기타 (_____)

[문항 21] 귀하는 진로선택을 할 때, 다음 각 항목들에서 정보를 얼마나 얻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숫자를 선택해 주세요.

문항	전혀 얻지 않는다	거의 얻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많이 얻는 편이다	매우 많이 얻는다
① 부모(보호자)/가족	1	2	3	4	5
② 한국인 친구/선후배	1	2	3	4	5
③ 한국인 교수/강사	1	2	3	4	5
④ 한국거주 중국인 친구/선후배/지인	1	2	3	4	5
⑤ 중국거주 중국인 친구/선후배/지인	1	2	3	4	5
⑥ 재학 중인 학교 행정직원	1	2	3	4	5
⑦ 한국 인터넷 사이트	1	2	3	4	5
⑧ 중국 인터넷 사이트	1	2	3	4	5
⑨ 한국 SNS	1	2	3	4	5
⑩ 중국 SNS	1	2	3	4	5

사회적 관계 및 적응

[문항 22] 다음은 각 항목에 서술한 내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타 국적의 유학생과 친한 단짝이 될 의향이 있다	1	2	3	4	5
② 한국인 학생과 친한 단짝이 될 의향이 있다	1	2	3	4	5
③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국가(한국 제외)의 사람을 애인으로 사귄 의향이 있다	1	2	3	4	5
④ 한국 사람을 기꺼이 애인으로 사귄 의향이 있다	1	2	3	4	5

[문항 23] 귀하의 사적 고민이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지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국인과 한국거주 중국인, 한국 이외지역(중국 포함) 거주 중국인으로 구분하여 응답해주세요.

구분	없음	1명~2명	3명~4명	5명~9명	10명~14명	15명~19명	20명 이상
① 한국인	1	2	3	4	5	6	7
② 중국인 (한국 거주)	1	2	3	4	5	6	7
③ 중국인 (한국 이외 지역 거주)	1	2	3	4	5	6	7

[문항 24] 다음 문항은 한국에서의 귀하의 생활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에 체크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내가 가진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	1	2	3	4	5
② 나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으로 인해 자주 혼자 있다	1	2	3	4	5
③ 한국은 안전하지 못한 것 같다	1	2	3	4	5
④ 나는 한국 사람들이 나를 외국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와 사귀지 않는다고 느낀다	1	2	3	4	5
⑤ 한국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나를 미워하고 있다	1	2	3	4	5
⑥ 한국 사람들은 나의 문화적 가치를 바르게 평가하지 않는다	1	2	3	4	5
⑦ 한국 사람들은 행동으로 나를 미워함을 나타낸다	1	2	3	4	5
⑧ 한국 사람들은 언어(말)로 나를 미워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1	2	3	4	5
⑨ 나는 한국 사회에서 다르게 취급된다	1	2	3	4	5
⑩ 한국 사람은 나에게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⑪ 한국에는 많은 기회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1	2	3	4	5
⑫ 나는 한국에서 불공평한 취급을 받고 있는 듯 하다	1	2	3	4	5
⑬ 집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괴롭힌다	1	2	3	4	5
⑭ 나는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슬프다	1	2	3	4	5
⑮ 나는 내 고향과 중국에 있는 지인들을 그리워한다	1	2	3	4	5

매체 이용

[문항 25] 귀하의 매체 이용/소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이루어진 아래의 각 매체별 하루평균 이용/소비 시간에 해당하는 번호를 체크 표시해 주세요.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음	30분 미만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온라인게임 (PC, 스마트폰 이용 모두 포함)	1	2	3	4	5	6	7
한국어 TV프로그램 (뉴스 제외)	1	2	3	4	5	6	7
중국 또는 비한국어 TV 프로그램 (뉴스 제외)	1	2	3	4	5	6	7
스마트폰 이용시간	1	2	3	4	5	6	7
SNS 이용시간 (한국어 이용)	1	2	3	4	5	6	7
SNS 이용시간 (중국어 이용)	1	2	3	4	5	6	7
한국어 서적/신문/인쇄물	1	2	3	4	5	6	7
중국 또는 비한국어 서적/신문/인쇄물	1	2	3	4	5	6	7
한국어 뉴스(방송, 신문, 포털 등)	1	2	3	4	5	6	7
중국어 뉴스(방송, 신문, 포털 등)	1	2	3	4	5	6	7

[문항 26] 소셜미디어 관련하여 다음에 제시된 각 항목별로 귀하가 얼마나 동의하십니까는지를 1(전혀 동의 못함)부터 7(매우 동의함)까지의 숫자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동의 못함	<.....>		보통>		매우 동의
		2	3		5	6	
①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 중,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신뢰하는 사람이 많다	1	2	3	4	5	6	7
②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 중,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6	7
③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 중,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1	2	3	4	5	6	7
④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1	2	3	4	5	6	7
⑤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이 나의 취업에 좋은 추천인이 될 것이다	1	2	3	4	5	6	7
⑥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은 새로운 사람과 대화할 수 있게 한다	1	2	3	4	5	6	7
⑦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	1	2	3	4	5	6	7
⑧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든다	1	2	3	4	5	6	7
⑨ 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반적인 공동체 활동에 기여하는데 기꺼이 시간을 소비한다	1	2	3	4	5	6	7
⑩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은 내가 더 큰 공동체의 일부를 느끼게 만든다.	1	2	3	4	5	6	7

개인적 특성 및 정책 제한

[문항 27] 귀하는 한국 유학 전 귀하의 부모나 가족과의 대화에서 주로 사용한 언어는 무엇입니까?

- ① 중국어 ② 한국어 ③ 영어 ④ 기타

[문항 28] 최근 귀하의 삶에 가장 큰 개인적 고민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가장 큰 고민 두 가지를 선택하여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 주세요. (고민이 없는 경우 1순위에 ⑫번만 선택)

1순위 () 2순위 ()

- | | |
|----------------------|--------------------------------|
| ① 돈 문제(채무, 가난 등) | ② 진로문제(취직, 이직, 진학, 군대 등) |
| ③ 건강 문제(신체적 또는 정신적) | ④ 가족 간 불화 |
| ⑤ 이성 문제(연애, 결혼 등) | ⑥ 친구/선후배 관계(배신, 갈등, 괴롭힘, 왕따 등) |
| ⑦ 조교/ 교수님과의 관계 | ⑧ 외로움 |
| ⑨ 학업 문제(성적, 논문 작성 등) | ⑩ 목표의식이나 꿈의 부재 |
| ⑪ 거주 문제(자취, 기숙사 등) | ⑫ 고민 없음 |
| ⑬ 기타(직접기입)_____ | |

[문항 29] 귀하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해당 번호를 체크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나는 사는 게 즐겁다	1	2	3	4	5
②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1	2	3	4	5
③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④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우울해한다	1	2	3	4	5
⑤ 나는 걱정이 많다	1	2	3	4	5

⑥ 모든 일이 힘들다	1	2	3	4	5
⑦ 나는 외롭다	1	2	3	4	5
⑧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1	2	3	4	5
⑨ 나는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1	2	3	4	5
⑩ 나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1	2	3	4	5
⑪ 나는 부끄럼을 많이 탄다	1	2	3	4	5
⑫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	1	2	3	4	5
⑬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1	2	3	4	5

[문항 30] 귀하는 최근 1년간 한국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다음의 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 항목에서 제시한 활동별 귀하의 참여 수준에 따라 해당하는 숫자를 선택해주세요.

최근 1년간 한국에서의 활동	활동형태 (온·오프라인 구분)	전혀 안한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종교활동(교회, 사찰, 선교 등)	온라인	1	2	3	4
	오프라인	1	2	3	4
취미 동호회/동아리 활동	온라인	1	2	3	4
	오프라인	1	2	3	4
중국인 유학생 단체/연합회 활동	온라인	1	2	3	4
	오프라인	1	2	3	4
지역사회 활동	온라인	1	2	3	4
	오프라인	1	2	3	4
기부/봉사 활동	온라인	1	2	3	4
	오프라인	1	2	3	4

[문항 31] 다음은 유학생의 한국 생활, 학업, 취업/창업 지원 등과 관련된 지원 정책 및 서비스들입니다. 각 항목별로 귀하가 생각하는 필요성의 정도를 1(전혀 필요 없음)부터 7(매우 필요함)까지의 숫자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필요 없음	<.....>		보통>		매우 필요
		1	2		3	4	
① 유학생에 대한 인턴십 기회 확대	1	2	3	4	5	6	7
② 취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1	2	3	4	5	6	7
③ 대학-기업-지역사회가 연계한 취업관련 행사 확대	1	2	3	4	5	6	7
④ 등록금 및 교육비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1	2	3	4	5	6	7
⑤ 양질의 영어 강의 개설/확대	1	2	3	4	5	6	7
⑥ 한국어 지원 서비스 확대(리포트/ 논문 수정 등)	1	2	3	4	5	6	7
⑦ 영어 지원 서비스 확대(리포트/ 논문 수정 등)	1	2	3	4	5	6	7
⑧ 양질의 중국어 강의 개설/확대	1	2	3	4	5	6	7
⑨ 멘토링제 지원/확대	1	2	3	4	5	6	7
⑩ 재학중인 학교의 국내외적인 평판도 제고 노력	1	2	3	4	5	6	7
⑪ 복지 서비스 이용(의료보험, 심리상담 등)	1	2	3	4	5	6	7
⑫ 창업 관련 상담 및 지원	1	2	3	4	5	6	7
⑬ 법적 보호(주거 문제, 아르바이트 문제, 분쟁 등과 관련된 법적 대응 및 지원)	1	2	3	4	5	6	7
⑭ 비자 발급/ 갱신 제도의 개선	1	2	3	4	5	6	7
⑮ 유학생할 안내 확대 및 내실화	1	2	3	4	5	6	7
⑯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1	2	3	4	5	6	7
⑰ 일반인들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⑱ 식생활(중국음식 등) 제공 확대	1	2	3	4	5	6	7
⑲ 아르바이트 제도의 개선(허가, 절차 간소화 등)	1	2	3	4	5	6	7
⑳ 주거 지원 확대 및 개선	1	2	3	4	5	6	7
㉑ 학점 부여 시 한국인 학생과 중국인 유학생의 분리 평가	1	2	3	4	5	6	7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size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으실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작성해주세요. (*아래 정보는 상품전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이름:

★ 전화번호: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문협력진 ◆

장 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박사수료)

이 정 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과정)

이 진 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과정)

장 옥 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석사과정)